



7

198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9. 7 호

(루계 501)



◆◆◆◆◆◆◆◆◆◆ 차 례 ◆◆◆◆◆◆◆◆◆◆

시계종소리	4
주체사상을 신봉하라	5
정일봉의 진달래	5
백두산 밀영에서	6
고향집 트랙에	8
온천골의 밤	8
배가 떠나간다	9
삼천리강산을 안으시고	10
용해공	11
로동계급의 신념에 대한 진실한 화폭	12
해마다 봄이 오면	17
나라잃은 민족의 설움을 풍부한 서정으로	17
밝혀낸 세련된 시형상	17
평양축전에 참가해주십시오!	20
기양사람들의 모습	21
나의 평양	24
광복거리를 걸으며	25
평양에서 만나자	25
아, 청춘거리여	26
혁명궁전의 새벽	27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발전에 이바지할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은	

현시기 중요한 문제	33
대동강우에 핀 꽃송이	35
사랑의 거리	36
광복거리와 비둘기	37
내 마음속에 이어진 길	38
땀의 무게	38
인간의 수업	39
표창.....	56
잊지 못하여라 (외 1 편).....	57
탄부의 안해	57
금강의 팔담	58
철은 흑색이 아니다	58
대답.....	59
나서자 통일성전에	68
공화국기발에 대한 생각	69
호각소리	70
나의 마치	71
림종의 한탄.....	71
그렇게 살고파	72
친근한 속삭임	72
시대의 지향과 동심이 넘치는 참신한 성격형상	73
분노한 나의 시	77
단편소설의 생명과 매력	78
출항의 아침	80

시계종소리

안정기

바쁜길 가다가도
여기서는 내 잠시 서있군한다
김일성광장에서
바라보는 인민대학습당

여기에 서면 들려온다
누리에 퍼지는 시계종소리
창공에 나래펼친 합각지붕밑에서
가슴뜨거이 울려퍼지는 사랑의 메아리

저 크나큰 시계바늘에
내 작은 손목시계도 맞추어보고
울렁이는 가슴속 맥박도 맞추어보며
온몸으로 듣는다 감격에 젖어
후더운 생각에 젖어

사람들 오고가며 언뜻
스쳐들을수도 있는 저 종소리에
마음 쓰신 낮과 밤은 그 얼마이신가
가장 아름다운 음색을 띠도록
가장 큰 울림과 여운을 내도록
합금비례까지 하나하나 깨우쳐주신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그 종소리에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첫 소절을 담아
온 세상에 울려가게 하자고
간곡하게 일러주시던

그 목소리가 저 종소리에 담겨있고

준공을 앞에 둔 그밤
로대우에 오르시여 환히 웃으시며
이제는 수령님을 모시자고
기쁨과 만족을 드리자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며 나의 목적이라고
뇌이고 뇌이시던 그 진정도
저 음향속에 합쳐있거니

내 그저 지나갈수 없어라
내 무심히 서있을수 없어라
저 웅심깊은 종소리는
다만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그것만이 아니기에

아 깊어지는 생각이여
하나의 종을 울려도
효성의 노래로 뜻을 담아 울리고
한걸음을 걸어도
충성의 자욱으로 력사에 빛나는
그 시간을 내 심장속에 심어주나니

가던 길 멈추고 잊은듯 썼노라
이 강산에 울리고 누리에 넘쳐날
저 종소리 종소리
내 한생 가슴속에 안고 살고저

주체사상을 신봉하라

아이자이아 쿼오 모리슨

주체사상을 신봉하라
주체사상은
가장 발전된 정치철학
인류사상의 상상봉
모두가 높이 찬양하며 따르는 사상이거늘
언제건 어디서건 빛내가야 하리

높이 들어라 주체의 기치를
주체사상은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사상
커다란 견인력으로 세계 방방곡곡에
희망과 기쁨 안겨주는 사상이여라

주체사상은 만경대의 빛발
전세계의 선량한 인민들
열렬히 신봉하는 사상
실천을 통해 검증된 행동의 지침
절망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고독에 잠긴 사람들을 건져주네

신봉하라
김일성 주석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을
그이는 위대한 태양
동방의 위인

야수같은 피물들을 몰아내시고
조선인민을 락원의 주인으로 되게 하신분

주체사상을 신봉하라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
희망의 등대
압박받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해주는 사상

주체사상은 불멸의 사상
그 어떤 원쑤도 헐뜯지 못하리
백두산처럼 억세게 뿌리내려
승승장구하네
충실하신 후계자
김정일 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발전풍부화되고 완성되어가네

주체사상은
탁월한 사상
불멸의 위대한 진리
우리모두 이 사상을
따라배우고 꽃피워가리
그렇다 신봉하라
위대한 주체사상을
(필자는 가나 시인임)

◇가시◇

정일봉의 진달래

전병구

백두의 봄빛을 남먼저 안고
찬바람 이기고 붉게 피었네
아 정일봉의 진달래
송이송이 봄소식 너는 전하네

영광의 산정에 찬란히 솟은
그 해빛 받아서 망울터친 꽃

아 정일봉의 진달래
송이송이 그 봄의 기쁨 전하네

한마음 인민이 받들어모신
위대한 그 존함 길이 빛내네
아 정일봉의 진달래
송이송이 축원의 향기를 없네

시조

백두산 밀영에서

김희종

생각이 깊어지는 집

거리도 아니고
마을도 아닌
한적한 세상의 한끝
천고의 밀림속에 세워진 고향집

방안 구름노전우에는
모진 고생을 담은 나무꺾꽂 하나
부엌에는 불의 시련을 헤쳐온
검은 술과 그릇 몇개

나는 지금
마음속에 조용히 묻는다
나에게는 아니 우리모두에게는
어떤 고향집이 있는것인가

친애하는 그이는
이 집에서 탄생하시였어라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첫 걸음마도
혁명의 첫걸음으로 떼여야 하시였어라

초연 스민 어머니 군복자락에서
탄피를 만지시며 자라신 유년기
저 조선지도맞추기는
심장깊이 새기신 피흐르던 조국
저 나무권총은
원췌 향해 불을 뿜은 총구

그날에 벌써
그렇듯 원췌와 싸우시며
걸음걸음 조국의 땅과 하늘 넓혀가시고
우리모두를 찾으시였거니

심장아 대답하라
아름다운 락원의 거리에
처마높은 화려한 고향집
한없이 누리는 내 삶의 보람은
어디서 시작되었던가

나서자란 산천이면
내 고향이라고
내 조국이라고
어이 쉽사리 부를수 있던가

걸음 옮기기엔 너무나 추억이 뜨거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볼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고향집

아, 우리모두의
고향의 고향집인 혁명의 품
조선의 영광이며
인민의 영원한 자랑인
백두밀영의 고향집이어

눈이 내리네

백두밀영의 고향집에
송이송이 흰눈이 내리네
그리운 그이를 그리며
눈이 아름다운 경치를 펼치네

그리고는 소곤소곤 저희들 말을 속삭이네
그이 설경을 좋아하심은
눈을 보시며 탄생하시고
눈을 밝으시며 걸음마 익히신
그 자옥자옥에서 정다워진 마음

정갈하고 부드러이 내리는
이 새 눈을 보시면
고향 향기를 느끼시며
희디흰 눈송이에 뜻을 새기시리

아득히 푸른 자락 날리는 숲
나무마다 탐스러이 피운 눈꽃 보시면
깊은 추억으로 어린 시절 더듬으시며
한송이 두송이 혼들어보시리

눈이 내리네, 속삭이며 내리네
친애하는 그이 설경을 좋아하심은
이 땅우에 영원한 봄을 가꾸시기 위하여
언제나 겨울을 떠나지 않으시고
한시도 설령을 내리지 않으시는 마음이시기때문

사나운 눈보라 밀림에 울부짖으면
마음은 벌써 장설을 헤치시며

령끝에 펄펄 휘날리는
한점의 붉은 기폭에 마음을 담으시리

무서운 폭음 울리며
골안에 천길 눈사태 쏟아질 때면
제국주의 마지막아성을 허물어가는
자주시대의 장쾌한 우뢰소리 들으시리

눈이 내리네 눈이 내리네
아름다운 경치를 펼치는
백두밀영 고향집의 소원을 안고
하늘가 멀리 당중앙의 창가에도
내리며 속삭이는 눈송이

오시라네
깨끗한 솟눈우에 내려쌓이며
환희로운 그날을 무척 기다린다고
꼭 오시라네

나무를 심는다

짧다면 짧은
인간의 한생이기에
다하고싶은 수많은 소원을 담아
내 이 나무를 심거니

나무야 나무야
너는 이제부터 정일봉의 나무
심장이 없다고 말할수 있으랴
나는 너에게서
나의 먼먼 후날을 보고싶다

멈출수 없는 세월의 흐름처럼
나는 푸르려 서있고싶다
한번도 짓밟힌적 없는 조선의 넓이 나래친
깨끗한 이 흙에 뿌리를 내리고

봉우리에 고요히 달빛이 내리고
부드러이 미풍이 흘러내리면
그 바람결을 타고 나는 설레이고싶다

정일봉에 바치는 시와 노래를 지으며

폭풍이 우뢰치며 휘몰아치면
정일봉 칼벼랑의 절개를 안고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싶다
그이를 호위하는 근위전사처럼

그 폭풍과의 격전끝에
내 만일 쓰러진대도
정일봉의 하늘을 담으며 눈을 감고
정일봉의 흙이 되어 영원히 안기리

그 천년을 나는 심는다
그 만년을 나는 심는다
위대한 향도성 우리러 받들어모실
나의 무궁한 세월을
너의 돌기에 감고싶어서...
너의 푸른 잎에 엮고싶어서...

고향집 뜨락에

정도희

저 멀리
정일봉너머 비껴가는
아름다운 은하수
나를 불러세우는
소백수의 정다운 물소리

하얀 보석인듯
흰눈도 빛을 뿜는 새벽
하늘에 빛나는 큰별, 작은 별
그대로 이 뜨락에 내렸는가
나를 앞서 찍어간
발자욱 발자욱이어

런포벌 아득히
대비날론기지를 일떠세운
그 위훈 안고
천리를 달려와
여기에 남겼는가

축원의 노래 안고 대양 건너
찾아오고 찾아오는
세계의 발걸음들이
만리를 달려와
이 뜨락에 새겼는가

키낮은 동기와지붕우

층층 쌓이고 덧쌓인
저 흰눈을
가슴에 녹이며 한자욱...

세월의 풍상 다 이겨낸
여기 검소한 단칸방
다섯잎 구름노전우에
아궁가득 불을 지피
온기를 주고싶었던 그 진정에
한자욱 또 한자욱...

물어선 무엇하리
알아선 무엇하리
누구나 마주서면
가슴 후더운 사연에 쉬이 못떠나
울바자도 아니 두르고
사립문도 아니 세운 뜨락

아 고향집 마당은 작아도
천만의 발걸음이 들어서고
천만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뜨락이어서
밤을 이어 새벽을 이어
서둘러 새날을 맞이하는 마음들에
태양처럼 솟아있는
백두의 고향집이어

온천골의 밤

림종근

나무숲을 다정히 어루만지는
실실이 달빛을 타고 물이 흐르나
북대봉마루에서 굽이쳐내리는
하얀 물줄기를 타고 달빛이 흐르나

달빛을 헤치고 물소리 뛰어넘어
피창 밝은 초가집에서 울리는 글소리
홍겨운 노래처럼
어머님 먼저 한구절 읽으시면
마을너인들 랑랑히 외우는 소리

처마 낮은 유격구의 아동단학교에서
혁명의 미래를 키워가시던 그때처럼
까막눈의 산골너인들을 한품에 안아
우리 글을 배워주시는 김정숙어머님
새 조선의 주인으로 키워가시는 그 뜻

낮에는 발머리와 빨래터...
너인들 가는곳 어디나 같이 가시여
일손을 도와 땀도 흘리시고

설참이면 밀영에서 부르시던 노래로
온천골에 백두의 바람을 불러주는 저 소리

밤이면 밤마다
마을의 너맽사업도 지도해주시고
미신의 허황성도 깨우쳐주어
봉건과 몽매속에 헤매던 너인들
문명의 밝은 세상으로 이끄시는 글소리여

달밝은 이밤엔 달빛처럼 환하게
행복에 넘쳐 웃으며 살라고
천대속에 시들었던 젊음을 찾아안고
새 조선의 앞길을 가슴 펴고 걸으라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시는 어머니

진정
장군님의 뜻이 활짝 꽃피난
행복의 새로운 낮과 밤이 여기 흘러라
눈물로 새던 밤은 영영 밀어내고
새 삶의 세월을 불러오는 메아리

아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온천골에 새 생활을 꽃피우신
김정숙어머님의 크나큰 업적
이 골안에 넘치고 넘쳐나
물결은 노래하며 골을 빠지네
달빛은 누리에 밝은 웃음 전하네

배가 떠나간다

권태봉

배떠나간다
강변의 실버들에 배전을 스치며
감도는 물안개를 헤치며
그날의 나루배인듯
동림선창가를 떠나간다

선창가에 서시여 손저어주시던
선생님의 그 영상을 못잊어
후두둑... 기슭을 감도는 물오리떼...
가슴가슴 지퍼주신 애국의 열정인가
배전에 길길이 키쑹구는 물갈기-

바다를 향해
천만 강줄기 흘러들듯
끝없이 찾아오는 회원들을
지원의 한품에 안아주시며 키워주신
김형직선생님

흠어지면 멸망
단결은 독립
우리의 뭉친 힘으로 조선을 찾자고
조국광복의 큰뜻 깊이 심어주시며
선생님 바래주시던 나루터에서
오늘도 수백 수천명의 사람들을 태운

배가 떠나간다

투쟁의 노대를 쥐여주시며
바람따라 돛달지 말라고
투쟁의 바다로 힘껏 떠밀어주신
그날의 나루배는 달렸다
풍랑거친 바다를 헤치며

헤치며 나가며
깊은 어둠을 뚫고 달리는 그 앞길에
조선의 려명이 오고있었다
조선의 새벽이 오고있었다

오늘도 선생님은 선창가에 서계신다
그날의 조선국민회원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듯
목메여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시며

아 배가 떠나간다
세월은 아득히 흘러갔어도
선생님 애국의 숨결로 출렁이는
동림선창 려사의 기슭에서
오늘도 배가 떠나간다

삼천리강산을 안으시고

해쑈는 룡남산마루에 서니
삼천리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이 노래는 오늘 우리 인민들이 류다른 감정을 가지고 널리 부르는 노래이다.

한없이 고매한 뜻과 함께 도도한 기상이 넘쳐 흐르는 노래, 이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들을 때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을 경건히 가다듬는다. 그것은 이 노래가 우리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종합대학에 입학하신 첫날 유서깊은 룡남산마루에서 자신의 숭고한 포부를 담아 지으신 노래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불멸의 자욱을 옮기신 그 첫날은 그이의 빛나는 생애와 영광스러운 활동에서 력사적인 이정표로 아로새겨진 뜻깊은 날이었다.

이날 아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뜨거운 감회를 안으시고 종합대학이 자리잡고있는 룡남산에 오르시었다.

주홍빛 아침노을을 온몸에 받으면서 산마루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그곳에 마중나와있던 교원, 학생들과 감격적으로 상봉하시었다.

《처음 뵈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워주십시오.》

그이께서는 모자를 벗어드시고 교원들에게 겸손하게 인사의 말씀을 하시었다.

그이의 겸허하신 인품에 감동된 한 학부장은 이렇게 뵈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선생님, 제가 도리어 이처럼 훌륭한 우리의 종합대학에서 공부하게 된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록음속에 거연히 솟은 대학의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셨다.

그이의 얼굴에는 숙연한 빛이 어렸다.

결코 무심히는 보실수 없는 대학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땅에 개선후에 건국의 첫 건설대상으로 세워주신 과학의 최고전당이였다. 막대한 왜놈들에게 시령우의 눈술가락마저 깡그리 빼앗겨 남은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해방직후에 수령님께서는 인재가 있어야 건국도, 민족의 장래도 있다시며 종합대학부터 일떠세우

게 하시지 않았던가. 나라에 자금이라고는 농민들이 바친 애국미밖에 없었던 그때 수많은 투자대상들을 다 뒤로 미루시고 그것을 대학건설에 먼저 돌리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뜨거이 바라신 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무지에 울고 몽매에 가슴치던 이 나라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 지난날 명색마저 잃었던 이 땅우에 자주위 삶이 활짝 꽃핀 사회주의, 공산주의락원을 세상에서 남먼저 일떠세우실 그 열망이 아니었던가.

그 열망을 실현하시려고 밤으로 낮으로 투쟁하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기에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도 백송리로 옮겨간 종합대학을 친히 찾으시여 승리한 강산에 주체의 락원을 세우는 역센 기동감이 되라고 대학생들을 고무하셨고 모든것이 파괴된 전후의 그 어려운 시련의 나날에도 몸소 대학에 나오시여 교육사업이 첫째라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던것이다.

가슴벅찬 생각을 더듬으시며 서계시는 그이께 교원들과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실것을 간청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자못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배움의 성지, 룡남산마루에 오르니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배워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리라는 결심이 더욱 굳어집니다.》

그러시면서 선자리에 천천히 오고가시며 다시금 깊은 사색에 잠기시었다.

그이께서는 어리신 시절에도 부모님을 따라 이곳 룡남산에 오르신 일이 있었다.

이 강산에 건국의 메질소리 울려 퍼지던 1947년의 어느날, 어머님의 손목을 잡으시고 이곳 대학 건설장에 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나무 발판을 오르내리시며 어머님에게 많은것을 물으시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공부하는가, 여기서는 무엇을 배우는가...

어머님께서서는 아드님의 물음속에 빠짐없이 대답을 주시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너도 이 다음에 크거들랑 이곳에 와서 배우거라. 여기서 아버님의 큰뜻을 배워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 장차 커서 아버님의 뒤를 이어 나라를 떠메고나갈수 있다.》

세월은 흘러 그날은 아득히 멀어졌건만 어머님의 그 애뜻한 말씀만은 아직도 귀전에 울리는듯 싶었다.

그이께서는 미풍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그자리에 그대로 서고만 계셨다.

아, 지척에 보이는 대성산 기슭에 잠드신 어머님께서 대학에 오신 아드님의 이 성장을 보실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한순간 가슴뭉클한 충격을 안으시게 된 그이께서는 몇걸음 옮기시더니 마침내 조용한 음성으로 심중에 차오른 걱정을 읊으시었다.

참으로 그것은 하늘을 가던 구름도 걸음을 멈추고 룡담산의 잣나무숲도 설레임을 그치며 귀를 기울인 승엄한 시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역세게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해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해빛으로 이어가리라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이것은 결코 대학에 입학하신 걱정만을 읊으신 시가 아니었다.!

이것은 대학에 입학하신 의의깊은 날에 삼천리 강산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기어이, 기어이 조선혁명의 주인이 되시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빛내어나가리라 조국과 인민앞에 굳게 약속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드림없는 신념의 시였다.

이것은 또한 세계를 안으시고 끝까지, 끝까지 백전백승의 혁명적 기치, 주체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시대를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가리라 력사와 인류 앞에 엄숙히 맹세다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철석같은 의지의 노래였다.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그 신념, 그 의지는 불멸의 노래가 되어 오늘날 온 강산에 흘러넘치며 세계의 창공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실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종합대학에 빛나는 첫 자옥을 새기신 이날은 그이의 영광스러운 혁명활동을 새로운 높이에 오르게 한 뜻깊은 날이었으며 종합대학의 력사에도 새로운 장이 펼쳐진 잇을수 없는 날이었다.

하기에 **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들은 이 력사적인 날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있다.

《우리 대학의 큰 명절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대학을 세워주신 날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대학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들이 있기때문에 세상이 우리 대학을 우러러보고있으며 신뢰와 존경의 정을 보내고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대학에서 깊이 연구하시고 더한층 발전풍부화시키시였습니다. 이 한가지 사실만을 놓고보더라도 그이의 대학시절은 우리 인민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인류의 행복을 마련하신 력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시절입니다.》

정녕 그렇다. 그이의 대학시절은 우리 조국청사에, 우리 당과 인민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가장 빛나는 한장으로 기록된 불멸의 시절이었다.

용해공

오재신

아직은 채 식지 않은 로
그속에 뛰어들어 한초 또 한초...
로체수리 마치고
웃으며 나서는 내일에
이 누구들인가
나를 둘러싸는 의사와 간호원들

현장검진이라누나
그래 어서 재여보라
나의 맥박 나의 체온
그대들은 알수 있으리

그 청진기와 그 체온계로

하지만 재일수 없으리
당의 뜻 받들어 고동치는
내 심장의 박동은-
용해공!

내 심장의 열도와
쇠물의 끓음점은 언제나 한점

-김철에서-

로동계급의 신념에 대한 진실한 화폭

-장편소설 《철의 신념》에 대하여-

최연경

장편소설 《철의 신념》(김리돈 작)은 나라 안팎의 정세가 이처럼 복잡하고 우리 당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그 시기에 오로지 자기 당, 자기 수령에 대한 믿음을 드높지 않는 신념으로 간직하고 이 땅위에 천리마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은 영웅적인 강선의 로동계급에 대한 잊을수 없는 서사시적 화폭이다.

혁명적 신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의 혁명관을 세운다는것은 혁명의 본질과 근본목적, 그 실현방도를 옳게 인식하고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 각오와 의지를 신념으로 간직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혁명적 신념, 이것은 한번다진 맹세, 한번 선택한 목적, 한번 들어선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물러섬이 없고 드팀이 없는 혁명가의 고결한 혁명적 량심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순결성이다.

혁명적 신념은 진짜혁명가와 가짜혁명가, 충신과 배신을 갈라내는 시금석이다. 불속에서도 타지 않고 억년이 가도 변하지 않으며 잊어봐도 쇠소리가 나고 뒤집어봐도 쇠소리가 나는 그런 철의 신념을 간직한 사람만이 참된 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의 신념이란 곧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며 영원한 충성이다.

장편소설 《철의 신념》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규정하여 그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근본적 의의를 가지는 신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심오한 사상예술적 해답을 주고있다.

소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1956 년은 우리 당의 력사에서 가장 준엄했던 시련의 한 시기였다. 혁명의 내외정세는 참으로 복잡하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이 헤쳐야 할 난관과 시련 또한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국제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켰으며 특히는 《반공》소동에 미쳐날뛰고있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북진》소동을 더욱 미친듯이 벌리였으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파괴,

암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우리 당안에 기여들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어렵고 복잡한 정세에 편승해서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야심을 실현해보려고 다시 머리를 쳐들고 당을 정면으로 도전해나섰다. 나라의 경제건설에서도 자재와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실로 벽돌 한장, 강재 한키로그램이 이처럼 귀중하였다.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며 조성된 난국을 어떻게 뚫고나갈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조선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장편소설 《철의 신념》은 바로 이 시련의 시기 우리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그것은 오직 우리 로동계급의 드높지 않는 철의 신념에 의하여 해결될수 있었다는것을 감명깊은 생활적 화폭으로 펼쳐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 준엄한 시련의 시기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깊이 간직한 변함없는 신념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수령님의 믿음이 있는한 난국은 반드시 극복되며 우리 인민은 전쟁에서 이긴것처럼 꼭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였다.

이 어려운 시기 그 누구보다도 우리 로동계급을 믿으시고 몸소 제강소로동계급부터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1 만톤의 강재가 더 있어야 나라가 허리를 펴수 있다고 하시면서 귀중한 믿음을 안겨주신다.

《동무들은 나를 믿구 나는 동무들을 믿구 이 어려운 난국을 뚫고나가자구...》

동무들은 나를 믿구 나는 동무들을 믿구 이 어려운 난국을 뚫고나가자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 이 뜨거운 믿음을 철의 신념으로 간직하였기에 제강소로동계급은 계급적 원수들의 그 악랄한 반혁명적 책동을 단호히 짓부실수 있었고 전진을 가로막는 소극성, 보수주의를 불살라버리면서 더 많은 강재를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마침내 이 땅위에 천리마대진군의 시원을 열어놓을수 있었던것이다.

작품의 종자를 해명하는 중심에 주인공 로장섭을 비롯한 제강소 로동계급이 서있다.

수령에 대한 신뢰와 충성을 드لول지 않는 철의 신념으로 간직한 강철로동계급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한것은 로동자-작가에 의하여 창작된 이 작품의 가장 귀중한 성과로 된다.

주인공 로장섭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어머니사랑속에서 자라난 미더운 로동계급이다.

그는 해방직후 아버지와 함께 파괴된 제강소를 복구하는 투쟁의 앞장에 섰으며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또한 아버지의 땀까지 합쳐 1만톤의 강재를 더 생산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나섰다.

실로 그의 모든 운명은 사랑도, 행복도, 삶의 보람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는 강재 1만톤과 뿔수 없이 하나로 련결되어있었다. 바로 여기에 그의 성격을 특징짓는 신념화된 충성심이 있는것이다.

소설은 그러한것을 특히 강피밀부분이 잘 가열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사고현장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사고가 퇴치되는 18분이라는 시간을 로동자들과 함께 계시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로장섭이 체험하게 되는 그 숭고한 세계를 통하여 매우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다리신 18분, 이 길지 않은 력사의 순간에 로동자들은 수령님의 마음속에 자기들이 있고 자기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곳에 수령님께서 계시다는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던것이다.

로장섭은 이 짧은 력사의 순간에 실로 너무도 많은것을 느끼었다. 정녕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그 짧은 순간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처럼 빛나게 남겨놓으실수 있었다. 로장섭은 자기에게 그로록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숭엄한 마음으로 우러렀다.

그는 이 순간 진정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강재 1만톤을 더 생산하는 그 길에 생의 목적이 있으며 삶의 가치가 있다는것을, 바로 그것이 자기가 일생을 다해 지켜나갈 신념이라는것을 절감하였다.

그의 심장에 뜨겁게 간직된 이 철의 신념은 무엇보다도 온갖 난관과 원수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기어이 가열로개조를 성공시키는데서 뚜렷이 발현되었다.

가열로의 개조, 이것은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나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자력갱생의 높은 뜻이 깃들어있는것이다.

가열로를 신설하는것은 손쉬운 길이지만 남의 힘을 빌어야 하는 구차한 길이며 기약조차할수 없는 막연한 길인것이다.

그리하여 로장섭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인 흑색금속관리국 부국장 배영달의 방해책동과 그에 추

종하여 동요하는 제강소 생산부장 송학민 등 신념이 똑똑치 못한 사람들의 소극성, 보수주의를 물리치고 끝내 가열로개조설계를 완성하고 성공하도록 하는것이다.

로장섭의 심장속에 뜨겁게 간직된 철의 신념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강재 1만톤을 더 생산하기 위한 보람찬 충성의 한길에 자신뿐 아니라 작업반과 직장, 온 제강소가 한사람같이 일떠서도록 불러일으키는 높은 집단주의정신에서도 뚜렷이 발현되었다.

그러한것은 그가 작업반원들을 설복교양하여 교대본위주의를 없애고 직장전반의 생산을 높이기 위한 《30분점검》제도를 세우는데서, 그리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구호를 내세우고 실현하는데서 생동하게 엿볼수 있다.

실로 그의 이러한 신념에 이끌리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지어는 말마디들도 오로지 1만톤의 강재를 더 생산하려는 그 한뼘으로만 세차게 흐르게 되었던것이다.

로장섭의 심장속에 뜨겁게 간직된 드لول지 않는 철의 신념은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에서 매우 감동적으로 형상되고있다.

그는 가열로개조를 위한 돌격대대장으로서 오직 가열로의 개조를 성공시키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침식도 잊어가며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그의 이러한 헌신성은 특히 가열로시운전에서 사고가 나서 가열로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남먼저 가열로속으로 뛰어드는데서 가슴뜨겁게 그려지고있다.

로장섭은 자기의 앞을 막아서는 당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위원장장동지!... 우린 수령님의 교시만 관철할수 있다면 가열로에 들어가 한줌의 재가 되여도 좋습니다.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지 못할바에야 살아 무엇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한줌의 재가 되여도 좋다는 신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더운 강철로동계급이 지닌 꺾을수 없는 철의 신념인것이다.

소설은 바로 이 강철의 신념이 있어 우리 로동계급은 계급적 원수들과 어중이며중이들의 궤변을 불사르고 강재 12만톤을 생산하는 세기적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역경을 순경으로 변경시켜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을수 있었다는것을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세월은 멀리 흘러갔어도 그날의 그 신념과 그 충성으로 우리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장편소설 《철의 신념》의 영원한 가치와 의의가 있는것이다.

강제 12 만톤을 생산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로장섭이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어 12 만톤의 강재를 생산한 손들을 잡아보라고 뜨거운 사랑을 부여주시었으며 우리 나라가 허리를 쭉 펴게 한 영웅들이라고,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를 제일 먼저 탄 영웅들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장섭이, 그리고 제강소 기사장 림해천, 직장장 박인혁을 대견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동무들을 영원히 기억할것ियो. 동무들은 우리 혁명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가장 보람찬 시기로 전변시킨 선구자들이요!》

참으로 이 감명깊은 형상은 인간이 확고한 신념을 간직할 때 삶을 얼마나 참되게 빛내일수 있는가를 생동한 화폭으로 잘 보여준다.

소설은 주인공 로장섭외에도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적이며 생활락천적인 새 세대의 로동계급인 최갑동의 생기발랄한 형상, 세포위원장 한중석, 제강소 기사장 림해천 등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철의 신념으로 간직한 강철로동계급과 아름다운 인간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고있다.

장편소설 《철의 신념》은 시종일관 심각하고 첨예한 극적 갈등속에서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이것은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며 형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상예술적 요인의 하나로 된다.

소설이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있는 생활의 소재와 작품의 종자자체가 심각한 갈등을 요구하였다.

세기적인 기적으로 력사에 기록된 12 만톤의 강재생산, 천리마운동의 지원, 이것은 실로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과의 투쟁의 산물이었으며 내외 원수들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얻은 승리의 결실이였다.

작품에는 계급적 원수들의 파괴압해책동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반대하는 심각하고 첨예한 적대적 갈등도 있으며 소극성과 보수주의, 동요분자 등 신념이 없는 사람들, 낡고 뒤떨어진것과의 비적대적 갈등도 있다.

이 모든 갈등은 그자체가 계급투쟁의 진리를 보여줄뿐아니라 강철로동계급이 지닌 철의 신념을 강조하는데 형상적으로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다.

작품의 기본갈등을 이루는것은 가열로의 개조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긍정과 부정간의 심각한 갈등이다.

이것은 결코 가열로를 개조하는가, 신설하는가 하는 단순한 생산기술적 문제가 아니였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강제 1 만톤을 더 생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혁명적 신념에 대한 문제, 심각한 계급투쟁의 문제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가열로를 개조하여야 하며 또 반드시 할수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한 긍정인물계렬에는 주인공 로장섭을 비롯하여 압연공인 세포위원장 한중석, 압연공 최갑동, 직장장 박인혁, 기중기운전공 서창실 등 제강소 로동계급과 당위원장 리영삼, 기사장 림해천 등이 서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강제 12 만톤을 생산해낸 기적의 창조자들이고 천리마운동의 첫 선구자들이며 작품의 종자를 형상적으로 풀어나가는 형상의 기본담당자들이다.

이 긍정인물들과 기본갈등을 이루고있는 적대적 갈등의 중심에 서있는 부정인물이 바로 반당반혁명종파분자인 흑색금속관리국 부국장 배영달과 암해분자 탁재구이다.

사회주의현실주제를 취급한 이 작품에서 계급적 원수들과의 적대적 갈등이 기본갈등으로 전면에서 나서는것은 소설이 반영하고있는 당시의 시대적 특징과 관련된다. 당시 력사적으로 우리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고질적인 종파주의는 극복되고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더욱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었으나 그 종파잔당은 아직 남아있었던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체현한 인물이 바로 배영달이다.

그는 종파의 정치적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높은 간부의 자리를 악용하여 우리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방해해나선 반당반혁명종파분자이다.

배영달은 현존가열능력을 높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가열로를 개조하여 강제 1 만톤을 더 생산하려는 로장섭과 로동계급의 의사와 의견을 묵살하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가열로신설을 주장하고 내려먹인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당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대한 도전이며 강제 1 만톤을 더 생산할수 없게 하려는 악랄한 반혁명적 시도였다. 이를 위하여 그는 가열로개조도면설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신설도면을 작성하도록 강요한다. 로장섭이 이를 반대해나서자 배영달은 가열로를 개조하는것이 호미나 낫을 버리는 야장간을 허물고 짓는것인줄 아는가고 하면서 이것은 동무데집 부뚜막을 고치는것 하구는 다르다고 야유한다. 지어는 사고의 책임을 로장섭에게 넘겨써우려고 책동하며 애순이문제를 두고 도덕적으로 부화방탕하다고 비방하는것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로장섭은 배영달의 그 어떤 위협공갈앞에서도 추호도 동요하지 않을뿐아니라 도대체 당신은 9 만톤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는가, 방해하러 내려왔는가고 정면으로 맞선다.

로장섭은 가열로개조를 방해하는 배영달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다.

《부국장동진 수령님의 믿음을 간직한 우리 노동자들의 마음을 어찌지는 못할거요. 당신이 아무리 쏘라닥거려두 우린 가열로를 개조할테요.》

반당반혁명분자에 대한 로장섭의 이 날카로운 단죄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드는 한길에서 억년 드눌지 않는 그의 철의 신념이 힘있게 맥박치고있는것이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 배영달은 계급적 원쑤인 탁재구와의 결탁도 서슴지 않으며 마침내 우리 당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혁명의 배신자로서의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것이다.

배영달의 반혁명적 책동은 강철로동계급의 한결같은 반대와 규탄에 부딪치며 결국 단호한 징벌을 받고만다.

배영달의 이러한 형상은 우리 당의 반종파투쟁 경험으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며 우리 당의 일심단결의 전통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데서 실로 커다란 교양적 의의를 가진다.

배영달과 함께 적대적 갈등을 이루는 부정인물은 파괴압해분자 탁재구이다.

그는 안팎의 원수들과의 심각한 계급투쟁이 벌어지고있던 당시의 시대적 환경을 반영하고있다.

그는 《서북청년단》의 가담자이며 《치안대》대장으로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한 계급적 원쑤이다.

탁재구의 형상은 작품에서 비록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있지 않으나 계급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당시의 정세와 우리 당이 겪은 시련을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강제 1만톤을 더 생산하기 위한 로장섭과 로동계급의 투쟁은 시종일관 탁재구의 파괴압해책동파의 첨예한 갈등속에서 진행된다.

탁재구는 압력계를 물에 던져 로장섭에게 그들이 가게 하고 달구지바퀴의 썰기를 뽑아 발전기 운반을 방해하는가 하면 서근팔을 돈으로 꼬드겨 가열로개조에 필요한 특수용접봉을 없애버리려고도 한다. 나아가서 그는 랭각관을 터쳐 가열기를 시운전하는 결정적인 시각에 사고를 일으키며 유정심을 부상시킨다.

그리고도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탁재구는 마침내 로장섭을 살해하고 가열로를 폭파시키려는 음모까지 꾸몄다가 현장에서 체포되는것이다.

계급적 원쑤의 악랄성과 교활성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탁재구의 이러한 형상은 계급투쟁의 진리를 깨우치고 계급적 각성을 높이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뿐아니라 이러한 계급적 원수들과의 투쟁속에서 억세게 지켜낸 신념만이 참된 신념으로 된다는것을 생동한 생활로 보여준다.

작품은 이밖에도 신념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 소소유자적 근성을 버리지 못한 서근팔, 보수주의자인 생산부장 송학민, 소극성과 동요성을 보여주는 공정기사 김광준 등과 갈등과 그 개조과

정을 통하여 사람은 신념이 없을 때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수 없으며 수령에게 진정으로 충실할수 없다는 심오한 생의 진리를 밝혀준다.

한마디로 말하여 장편소설 《철의 신념》은 철의 신념을 간직한 사람들과 그것이 없거나 그것을 허물어버리려는 사람들과의 심각한 대결이며 철의 신념을 가진 인간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생활의 진리에 대한 참된 예술적 화폭이라고 말할수 있다.

장편소설 《철의 신념》의 중요한 사상예술적 특징의 하나는 박력있게 사건을 전진시키고 맺고 끊듯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짜임 구성미이며 묘사의 높은 속도감이다.

이것은 현시대의 요구에 응분의 해답을 주는것으로 그것을 요구한 종자의 형상적 구현인 동시에 강철로동계급으로서의 작가의 체취와 개성의 독특한 발현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우선 소설을 이루고있는 46 개의 장은 그 모두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꿰여지면서 종자의 요구를 풀어나가면서도 흥미있는 하나의 독자적 이야기로 되고있다.

바로 여기에 앞머리를 읽으면 뒤가 뻘드름하거나 몇십페이지 지어는 몇백페이지를 넘겨가도 이야기의 단락이 없어 이 두터운 책을 언제 다 읽나 하고 겁을 먹게 하는 소설과는 달리 독자들에게 읽을 맛을 주고 견인력을 주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레컨대 22장 물속에서의 결투나 23장 도적맞힌 도면 등이 그러하다.

또한 작품의 대개 장은 이처럼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어디까지나 이미 앞장에서 전개된 생활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되고있으며 동시에 다음장에 대한 필연적인 생활적 전제로 되고있다. 여기에 또한 작품이 인과관계로 맞물린 생활의 논리로 일관되어있을뿐아니라 작품의 박력과 속도를 주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이와 함께 작품의 묘사는 매우 가동적이고 솔직하며 그리고 생활적이고 생동하다.

이것으로 하여 작품은 속도감이 있고 묘사소재에서 약동하는 시대의 맥박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물론 묘사의 대상인 제강소의 로동계급과 그 벅찬 생활, 소극과 보수를 짓부시고 위력한 천리마운동의 시원을 이 땅우에 펼쳐놓은 생활의 특성에 원천한것이다.

이와 함께 이것 역시 사변적인 논리의 전개를 좋아하지 않는, 창작자체가 생활과 직접 잇닿아 있는 작가의 고유한 개성과 중요하게 관련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것은 현실체험과 창작, 생활과 작가라는 미학적 견지에서 볼 때 하나의 귀중한 경험이 아닐수 없다.

레컨대 소설은 작품에 그리 많지는 않으나 가장 빛나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인공을 접견해주시는 화폭을 정중하면서도 가식이 없이 매우 진실하고 소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생활그대로 잘 그리고있는것이다. 이러한 묘사정신으로 하여 소설은 독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며 생활그대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뜨겁게 불러일으키는것이다.

장편소설 《철의 신념》은 또한 형상을 고정격식화하거나 리상화함이 없이 산 인간의 산 생활을 기쁨진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여기에 소설이 이룩한 중요한 사상예술적 성과의 하나가 있다.

소설은 강재를 다루는 사람들, 그중에도 압연공들의 생활을 그리고있으나 바로 철을 다루는 이 사람들의 심장이 얼마나 뜨겁고 아름다운가를 참으로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다.

그러한것은 특히 주인공 로장섭을 중심으로 하고 그와 최갑동사이에 벌어지는 친형제와도 같은 뜨거운 동지애의 생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 희생된 참된 전우인 정찰병의 딸 애순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복잡한 심리세계, 어머니와 동생 춘섭에 대한 뜨거운 혈육의 정, 그리고 유정심에 대한 웅심깊고도 고상한 사랑의 세계...

그리고 최갑동과 서창실의 랑만적이고도 구김살 없는 사랑과 서근팔의 개조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생동한 생활 등이 그러하다.

주인공 로장섭과 열공학기사 유정심과의 사랑은 주인공의 성격에 인간적 매력을 주며 작품에 생활의 jump 향기를 주는 가장 아름다운 화폭의 하나를 이루고있다.

소설은 철의 신념을 지닌 주인공의 주도적 성격을 뚜렷이 부각하면서도 그것을 위해 인간적인 생활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진지하게 파고들어 참된 인간의 모습을 폭넓게 펼쳐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작가는 흔히 그러할수 있는것처럼 주인공의 사랑의 세계에 스스로 빠져들어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주인공의 주도적 성격을 흐리게 하지도 않았다.

주인공 로장섭은 혁명에 대해서처럼 사랑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을 지니고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단정하고 베절바른 유정심을 보는 순간 바로 그 처녀가 지나간 전화의 나날 자기가 중상당한 전우를 살려내려고 들었던 그 개인의사집의 딸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자기앞에 겁을 먹고 서서 감 세알을 주던 그 단발머리 처녀에 대한 회상은 잊을수 없는 추억을 가지고 그의 심장에 자리를 잡았다. 정심에 대한 로장섭의 사랑은 날과 더불어 깊어지고 뜨거워갔다.

그러나 로장섭은 부정할수 없는 현실로 자기의 심장에 찾아든 이 사랑을 웅심깊은 사나이의 가슴속에 그대로 묻어둔채 자기의 모든 열정을 오직 강재 1 만톤을 위하여 다 바쳐가며 자기 개인의 그 모든 아름다운 행복은 그 다음날로 미루는것이다.

그리고 강재 1 만톤을 위해서라면 그는 자신의 그 모든 귀중한 행복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었다.

만약 유정심이 가열로를 개조하려는 로장섭의 신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가열로신설도면설계에 매달렸더라면 그의 심장은 결코 그 녀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것이다.

로장섭은 또한 자기 개인의 사랑, 그것이 아무리 크고 귀중하다 하여도 그것을 혁명동지에 대한 사랑, 전우에 대한 의리와 바꾸지 않았다.

그러한것은 애순이를 둘러싸고 로장섭에 대한 갖가지 풍문이 돌아가는가운데 필경 유정심이라도 애순이를 자기의 딸이라고 생각할수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바로 그때문에 정심이 고민하여 사랑앞에 동요하고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애순이가 자기의 딸이 아니라 전우의 딸이라는것을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는데서 뚜렷이 엿볼수 있다.

주인공의 이 고상한 정신적 품모로 하여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강재 12 만톤을 생산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린 영광의 그날에 활짝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그토록 값높고 보람찬것이다.

이처럼 생활적이고 인간적이면서도 참된 인간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모든 생활, 사랑 그것까지도 어떻게 혁명을 위한 한길에서만 꽃피어나야 하는가를 진실하게 보여준데 소설을 참된 인간학으로 되게 한 중요한 요인이 있는것이다.

소설은 그와 대조하여 최갑동과 서창실의 밝고 랑만적인 사랑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특히 그들의 사랑은 개인리기주의자인 서창실의 아버지 서근팔로 인한 굴곡과 그 굴곡을 이겨내고 사랑을 성취할뿐아니라 그것을 서근팔자신의 개조과정에 밀착시킴으로써 역시 매우 교양적 의의가 있게 처리되고있다.

장편소설 《철의 신념》이 이룩한 이 모든 사상예술적 성과는 우리 당이 밝힌 독창적인 문예사상, 주체의 공산주의적 인간학과 소설형상리론을 훌륭히 구현한 귀중한 결실이다.

소설이 펼쳐보인 이야기는 벌써 30 여년전의 나날에 주인공들의 심장깊이 간직했던 그 역센 철의 신념은 오늘도 그리고 래일도 변함없이 우리 인민을 영원한 충성의 길로 고무할것이다.

해마다 봄이 오면

해마다 봄이 오면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건만
나라잃고 봄도 없는 우리들에겐
언제가면 가슴속에 꽃이 피려나

산에도 들에도 꽃은 피건만
이내 가슴속에는 설음뿐이네
아름다운 꽃송이를 안고가건만

마음속엔 방울방울 이슬맺혔네

눈물속에 꽃을 파는 어여쁜 처녀
송이송이 슬픈 사연 안고간다네
아름다운 꽃송이도 이슬에 젖어
깊고깊은 그 사연을 말해주는가

들어보자 그 이야기 눈물의 사연
어이하여 처녀는 꽃을 파는가

명가사평(제 7 회)

나라잃은 민족의 설음을 풍부한 서정으로 밝혀낸 세련된 시형상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 나오는 가사

《해마다 봄이 오면》에 대하여-

리병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가사의 생명은 의의있는 사상적 내용을 세련된 시형상으로 밝혀내는데 있다.

이 가사가 사람들의 가슴을 그토록 격동시키는 명가사로 될수 있는것은 당대의 사회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사상적 내용의 심오성과 함께 그것을 함축된 시어로 노래한 시형상의 세련성에 있다.

가사는 인간의 자주성이 여지없이 짓밟혀 상가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된 망국노의 고통과 슬픔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데 있다는것을 꽃분이의 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가사의 사상적 내용이 추상화되지 않고 구체적인 산 인간의 생활정서로,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애절한 서정으로 승화될수 있는 비결은 꽃분이의 비통한 생활감정을 시적으로 추구한 시형상의 특성에 있다.

가사의 시형상에 리용된 시적 형상수단들을 하나하나 따지고보면 그 어떤 신비한것들이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시어하나라도 다 귀에 익고 사

람들속에서 늘 쓰이는 말마디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꽃분이의 가공한 정상이 가슴에 사무쳐와 나라잃은 민족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뜨겁게 절감하게 된다.

가사는 시종일관 눈물의 꽃을 파는 꽃분이의 비통한 내면세계를 생활정서적으로 섬세하고도 깊이있게 파고들었다.

가사는 꽃분이의 내면세계를 시공간적으로 확대시키지 않고 눈물의 꽃을 파는 하나의 시점에서 서정을 심화시켰다.

1절부터 3절까지 가사의 내용전개에서 꽃을 파는 꽃분이의 비참한 모습을 정서적으로 심화강조하였을뿐 그의 생활경위에 대한 전개된 형상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격동시키는 명가사로 될수 있는것은 꽃분이의 가공한 정상에 초점을 두고 정서적으로 심화시킨 서정의 풍부성에 있다.

서정성발현의 진폭은 좁지만 생활정서적으로 섬세하게 파고들었기때문에 받아안은 충격도 크

고 시적 여운도 그만큼 강하다.

가사의 생활정서적 풍부성은 대구적 표현에 의하여 부각되었다.

대구법은 작품의 내용을 선명하고도 인상깊게 드러내보여주는 위력한 형상수단의 하나이다.

해마다 봄이 오면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건만
나라잃고 봄도 없는 우리들에겐
언제가면 가슴속에 꽃이 피려나

보는바와 같이 시구 1, 2는 3, 4와 서로 대구에 놓이면서 자연의 봄과 인생의 봄이 대조되었다.

해마다 봄은 어김없이 오는것이며 봄이 오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것은 자연의 리치이다.

허나 나라잃은 우리 민족에게는 인생의 봄이 올수 없으며 봄이 없는 인생의 가슴속에 꽃이 필수 없었다.

자연의 리치가 그러하듯이 인생의 봄도 응당히 와야 하며 생의 기쁨을 맛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도 행복의 꽃이 피어나야 한다. 그러나 우리 민족, 우리 인민에게는 봄도 없었고 꽃조차 필수 없었다.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탓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봄도 빼앗기고 꽃도 빼앗겼다.

1절에서 두줄대구로 시형상을 조직하였다면 2절에서는 한줄련속대구로 서정을 심화시켰다.

산에도 들에도 꽃은 피건만
이내 가슴속에는 설음뿐이네
아름다운 꽃송이를 안고가건만
마음속엔 방울방울 이슬맺혔네

산과 들에 자연의 꽃은 아름답게 피건만 꽃분이의 가슴속에는 설음만 더해갔고 꽃분이가 안고가는 자연의 꽃은 아름답지만 꽃분이의 마음속에는 피맺힌 원한의 눈물만 가득찼다.

이렇듯 산과 들에 곁에 피는 자연의 꽃과 꽃분이의 가슴속에 더해지는 설음, 꽃분이가 안고가는 아름다운 꽃송이와 그의 가슴속에 맺힌 원한

의 눈물은 감정정서적으로 서로 심각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1절에서 두줄대구로 펼쳐보인 서정은 2절에서 한줄련속대구로 심화되면서 나라잃은 민족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이 참을수 없는 절정의 세계에로 승화되었다

1, 2절에서 대구적 표현에 의하여 발현된 서정을 3절에서 짙은 생활정서적 표현으로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눈물속에 꽃을 파는 어여쁜 처녀
송이송이 슬픈 사연 안고간다네
아름다운 꽃송이도 이슬에 젖어
깊고깊은 그 사연을 말해주는가

3절에서 노래된 꽃분이의 가공한 모습이 가슴을 치며 절통하게 안겨오는것은 1, 2절에서 대구적 표현으로 승화시켜온 감정정서와 시적으로 잘 맞물려졌기때문이다.

가사의 매 절은 어휘표현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사상정서적 짙은 하나, 나라잃은 민족의 설음이 다.

가사는 매 절에서 서정을 밑에 깔아주었다가 후렴구에서 호소적 표현으로 탁 터쳐놓곤 함으로써 감정정서적 흐름의 단순성을 극복하고 기복이 있는 다양성을 보장하였다.

가사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명가사로 된것은 민족적 생활정서가 풍기는 고유어로 시형상을 창조한것과도 관련된다.

가장 적은 어휘를 가지고 크고도 많은것을 담은 문학형태는 가사이다. 그렇기때문에 가사의 어휘는 하나가 열백을 담당하는 형상표현적 기능을 놀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학창작에서 고유어를 귀중히 여기는것은 의미의 구체성과 정확성에서는 물론 민족적 생활정서까지 더해주는 풍부한 형상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가사 《해마다 봄이 오면》에 리용된 어휘들은 우리 인민들속에서 언제나 널리 쓰이고있는 생활적인 말마디들이다.

한자식표현은 전혀 없으며 고유한 말마디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발음이 순탄하여 까다롭지 않으며 생활적으로 친근하게 안겨오는 정서적 색깔이 짙은 주옥같은 어휘들이다.

가사에 리용된 어휘들가운데서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적 단어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반복되는 어휘까지 합치면 20 여개나 된다. 그가운데서 《꽃》은 일곱번이나 반복되며 《설음》, 《눈물》, 《이슬》, 《사연》과 같은 어휘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이것은 형상의 초점이 눈물의 꽃을 파는 꽃분이의 절통한 내면세계를 보여주는데 집중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형상의 초점을 꽃에 두면서도 꽃의 종류나 그 다양한 미적 속성에 대한 표현은 피하고 다만 《아름다운 꽃》이라는 극히 일반적인 미적 표상만을 주었다.

그러나 꽃과 관련된 동사적 어휘들은 다양하게 리용되었다.

《피어나건만》, 《꽃이 피려나》, 《꽃을 파는가》, 《꽃송이를 안고가건만》 《이슬에 젖어》와 같은 표현들이 말해주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꽃과 관련된 동사적 어휘가 많이 리용되었다는것은 시어가 꽃분이의 눈물겨운 생활을 밝혀낼수 있게 구사되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가사의 시적 언어형상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어휘사용의 비결은 그의 형상표현적 가치에 있다.

누구나 다 리해할수 있는 고유어를 리용하였다고 해서 결코 시가 되는것도 아니며 같은 어휘의 반복이 있다고 하여 시형상의 질이 떨어지는것도 아니다.

인민의 집체적 지혜에 의하여 다듬어진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여 시형상을 창조하되 형상의 초점에 맞아야 하며 같은 어휘의 무의미한 반복은

금물이지만 형상적 요구로부터 제기되는 경우에는 같은 말도 서로 다른 형상적 색깔을 가지고 효과있게 이바지한다는것을 창작실천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가사창작에서 시어선택이 중요하지만 그의 형상표현적 효과는 어휘들의 자리 맞물림에 의존된다.

가사의 형상적 의미는 어휘들의 맞물림관계에 의하여 실현된다.

《해마다 봄이 오면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건만》에서 《봄》과 《꽃》은 자연의 현상이지만 《나라잃고 봄도 없는 우리들에겐 언제가면 가슴속에 꽃이 피려나》에서 《봄》과 《꽃》은 사회적 의미를 담고있다.

이것은 같은 어휘들임에도 불구하고 형상표현적 기능이 다르다는것을 말해준다. 《봄》과 《꽃》은 그가 담고있는 사상정서적 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으로 하여 그 어떤 다른 어휘들도 대신할수 없는 형상표현적 몫을 담당하고있다.

이것은 자연현상으로서의 《봄》이나 《꽃》과 의미정서적인 조화속에서 부여된 표현적 질이다.

개별적 어휘들이 함축된 시형상을 창조하는 표현적 몫을 담당하게 하려면 형상적인 맞물림을 작품의 주제사상적 요구에 맞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가사는 감정정서적 흐름에 맞게 운률도 합리적으로 조성하였다. 이 가사에서 운률은 시의 형상적 의미와 서정의 흐름에 맞게 잘 조화되고있다.

가사 《해마다 봄이 오면》은 명가사창작에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사상리론을 시형상창조에 옮겨 구현하고있음으로 하여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작품으로 되었으며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걸작으로 될수 있었다.

평양축전에 참가해주십시오!

-혁명렬사릉에 모신 김철주동지의 반신상앞에서-

박세일

삼가 아뢰고싶은 소식이 있어
이렇게 때없이 찾아왔습니다
김철주동지이시여

정녕 그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며칠후 여기 평양 하늘엔
제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장엄한 봉화가 타오르게 됩니다
벌써부터 5 대륙의 젊은 벗들이
조선으로 평양으로 찾아오고있습니다

축전의 이름도 다름아닌
세계청년학생축전이기에
그것도 여기 주작봉에서
한눈에 굽어보는 평양
내 나라 수도에서 진행되는것이기에

이 소식을 아시면
누구보다 기뻐하실
김철주동지!

알려만 드린다면
기꺼이 웃으시며 승낙하실듯
마치 공청회의에 가실 때처럼
저기 5월 1 일경기장
축전의 개막식장을 향하여
헐헐 앞장서 걸으실듯

그처럼 예술을 즐기셨다는데
연예대활동에서 부르시던 노래며
그날의 그 《단심줄》무용
축전무대에 다시 펼칠수 있다면

소박한 그 생각에 떠밀려
간절한 그 마음에 이끌려
이렇게 때없이 찾아왔습니다

그처럼 연설이랑 잘하셨다는데
반일부대병사들의 심장을 울려준
그 다감하고 열정적인 목소리
축전연단에서 다시 들을수 있다면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
조선청년운동에 첫자욱을 남기신
그 땃땃한 자격으로

그리고 남달리 정의를 사랑하신
열아홉살-청춘의 그 모습
아, 저희들, 조선청년들을 대표하여
축전의 벗들앞에 나서실수 있다면

김철주동지이시여, 당신께서는
평양축전에 참가하셨습니다
벌써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양사람들의 모습

변홍영

《락원 1》호

고르로이 울리는 너의 동음소리
정다운 너의 숨결을 나는 듣는다
서른해전 그날처럼
오늘도 쉽없이 물을 푸고있는
《락원 1》호여

전후 빈터우에서
락원의 로동계급이 부어낸 그 모습
아버이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용선로의 쇠물처럼 타끓던
10 명당원들의 그 맥박을 안았기에
너의 숨결 그리도 높뛰는거냐

아버이사랑의 생명수를
저 풍요한 벌에 보내주는 공지를 안고
제 한몸보다 소중히 너를 다뤄온
기양사람들의 심장으로 고통치기에
너의 동음 그리도 멎을줄 모르는거냐

아, 수령님 지퍼주신
세월이 가도 꺼질줄 모를
자력갱생의 그 불속에서 태어났고
수령님께 바쳐가는

영원한 충성의 녀을 지니고 돌아가는
《락원 1》호

네 모습 안으면
용선로의 그 쇠물의 뜨거움이
상기도 식지 않고 단김을 내뿜는듯
네 숨결 새기면
기양사람들의 그 진정의 후더움이
내 가슴에 소용돌이치며 흘러드는듯

돌아라, 《락원 1》호
30년세월만이 아닌
먼 세기를 넘어
네가 돌아 적시며 가꿀 소중한것
다만 저 가없는 대지의 황금나락뿐이리

아니다, 《락원 1》호
천만후손들의 가슴을 적시며
락원의 그 정신, 기양의 그 일본새
조선의 로동계급만이
뿔뿔이 자부높이 후대에게 넘겨줄
고귀한 재부를 네가 안고있구나

크나큰 영광

그날도 여느날과 다름없는
보통날아침이었네
태성호로 가는 물길우엔 노을이 타고
기양관개 2 단양수장에선
《락원 1》호를 알뜰히 정비한 운전공이
새 교대에 기대를 인계하고있었네

그때 정문앞에
소리없이 벗어나는 승용차 한대
가슴 뜨거운 사연을 안고온
중앙의 한 일군이
양수장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섰네

통수식의 그 봄날에

락원의 로동계급이 만들어보낸 《락원 1》호
상기도 새것처럼 돌고있다니 알아보라고
아버이수령님 몸소 보내주셨다는 그 일군

꿈만 같았네, 그의 이야기...
《락원 1》호의 명판도 쏘어보고
소리좋은 동음도 가늠해보고 사진도 찍고
지나간 나날들을 물어보고 다시 확인하고
그 일군일행이 양수장을 떠나자
가슴이 꼭 메였네, 기양사람들

자기들이 다루는 양수기들을
우리 수령님 잊지 않고계신다는
그것만도 영광이었네, 그들에게

수령님 것처럼 늘 지켜보고계시는
그 한없는 사랑속에 살고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더없는 행복이였네

허나

《락원 1》호의 소식을 보고받으신
우리 수령님
그 언제나 못잊어 늘 회고하시는
락원의 10 명당원들곁에
오늘은 기양사람들을 나란히 세워 주셨나니

아, 이런 사랑 이런 믿음속에 안겨살기에
수령님과 당에 바친
전사의 가슴속 깨끗한 진정은
덧없는 세월도 싹고가지를 못하던가

정녕 그 누가 알았으랴
수로에 흐르는 물처럼 멀리 가버린
그 30 년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이처럼 크나큰 영광이 되어
자신들의 한생애 다시 돌아올줄을...

공무작업반에서

내 알겠구나, 《락원 1》호가
어떻게 오랜 세월 새것처럼 돌고있는지를
이미 수명이 끝났을 양수기가
활기넘친 동음을 오늘도 울리고있는지를

내 알겠구나, 수백가지 창고안으로
양수기에 새 숨결을 준 그 일숨씨를
나라에 작은 보탬이라도 주고싶어
그리고 애쓴 그 가룩한 마음들을

양수기의 축을 물고도는 저 대형선반이며
수차날개를 깔고있는 수직후라이스며
그 무엇이나 자체로 가공할수 있는
그쫄한 기대들이 늘어선 공무작업반

파철로 버려진 낡은 축이며 치차며
철판을 두드려 만들었다는 저 기대들
내 그앞에서 발걸음 못뚫겠구나
거기 어려있는 숨은 노력이 너무도 커서

나는 보았다, 조국땅 하많은곳에서

공업국의 위용을 자랑하는 기계바다들을
자력갱생이란 그 말의 참뜻도
나는 이미부터 알고있다

허나 나는 몰랐구나
허리띠를 졸라매며 공업강국을 일떠세운
이 나라의 기개높은 그 정신을
이 소박한 일터에서도 내 보게 될줄은

나는 소리높이 자랑하고싶다
새 기술로 날마다 젊어가는
《락원 1》호와 함께
여기 공무작업반의 크고작은 모든 기대들을
세상에 높이 들어올리고싶다

오, 세월이 간다고 결코 낡아질수 없는
조선이 지닌 그것을
내 어찌 자랑하지 않으랴
빈터우에서 솟구쳐오른 조선이
오늘도 높이 추켜들고 가는
제 힘을 믿는 그 정신의 위대함을-

배전반공처녀에게

네 나이 열아홉
한창 좋은 철에 좋은 일터를 택했구나
붉고 푸른 조종단추앞에서
한시도 눈길을 땄줄 모르는
그 모습이 사랑스럽다, 처녀야

너 락아소 요람가에 단꿈을 꿀 때
사랑의 젖품에 너를 안아키우듯
드넓은 벌 그 어느 이랑에도
생명수의 젖줄기를 물리며
어머니가 지켜셨던 자리

너 자라 학교로 오갈 때
 어머니 찾아 자주 들리면
 왜서인지 가슴이 자꾸 부풀고
 나래치는 꿈이 흰 물보라처럼
 네 마음을 휩싸안던것

 참 좋은곳에서 일한다고
 수령님 사랑의 생명수를 보내주는
 그 일이 얼마나 장한가고
 양수장에 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날에 하신 그 말씀
 어머니 한생을 지켜 살아왔더니

 더 커서 오늘 여기 섰구나
 어머니 세대가 서른해를 지켜왔고
 너의 세대가 또다시 지켜갈 배전반앞에
 스스로 자기 삶의 자리를 정했구나

 그 마음이 자랑겹다 처녀야
 친애하는 그이께서 안겨주신 믿음은

어머니 한생만을 이끌어준것 아니였구나
 너의 가슴에도 아름다운 꿈으로 피어났거니

 봄노을처럼 네 가슴에 타는 그 꿈을
 별가득 펼쳐놓으라
 어머니처럼 네가 바쳐가는 지성이
 양수기의 숨결로 넘쳐흐르면
 이랑이랑 그 꿈은 무르익어 설레리라

 네 나이 열아홉
 봄이다, 처녀야, 창문을 열어라
 너의 꿈이 날으는 저기 별 한끝에서
 온갖 들향기와 해빛과 새들의 지저귀이
 너의 배전반실로 날아든다

 아, 환희에 찬 이 봄날처럼
 아낌없는 우리 당의 축복속에
 한껏 피어날 너의 삶을
 약속된 좋은 앞날이 기다리고있어라

그 모습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평범하고 수수하다
 꿈 많던 20대 그 시절로부터
 희숙한 머리칼이 귀밑에 덮이도록
 양수기결에 조용히 살아온 그 모습들

세상이 들썩한 위훈으로
 경탄의 못시선을 끈적도 없다
 관개수 흘러가는 벌에 풍년이 들면
 가슴이 그득해오는 한생의 보람을
 양수기와 말없이 나눠왔을뿐이건만

어찌하여 수백수천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뜨거운 감사의 시선을 보내는것인가
 오늘의 세대와 후손들 앞에
 그 모습을 영원한 화면으로 남기려
 기록영화촬영가들도 렌즈를 맞추는것인가

아, 세상이 알지 못한 그 소박한 모습에서
 우리 수령님께서만은 기쁘게 찾아보셨구나
 우리 인민이 속깊이 간직한 티없는 량심을
 이 땅의 외진 산기슭에서도
 태양을 우러르는 꽃처럼 그 가슴에 꽃핀
 세월에도 지지 않는 전사들의 충정을,

한직장 한마을 사람들조차
 다는 몰랐던 그들의 수고에서
 자신들조차 평범한것으로 여겨온 그 생활속에서
 것처럼 고귀한것을 찾아보신
 수령님의 그 사랑

아, 오늘은 세상이 다 보라고
 그 사랑의 해빛속에
 수령님 내세워주신 그 모습이 소중해
 수천걸음들이 찾아오고 또 나도 왔다
 촬영기의 필름이 그대들앞에 돌아가고
 내 가슴속에선 격정의 파도가 일고 또 인다

보태지도 말고
 꾸미지도 말어라 그대들의 그 모습
 모든 시선들앞에 촬영기의 렌즈앞에
 어버이수령님 찾아주신
 한생의 그 모습 그대로 나서거라

저 《락원 1》호가
 언제나 새것처럼 돌고돌아
 수령님 사랑의 생명수로 벌을 적시면
 더 바랄것 없나니

세월이 머리위에 백발을 남겨두 좋고
한생을 남모르는 외진곳에서 보내도 좋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한마음으로 살아온 그 모습
봄가고 여름가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 한마음으로 살아갈

기양사람들의 그 모습

더 보래지도 말고 꾸미지도 말어라
수령님의 기억속에 영생할
조선로동계급의 모습이다
우리 당이 시대앞에 공지높이 내세워주는
숨은 영웅들의 참모습이다!

나의 평양

계 훈

내 어린 시절

여기 모란봉에 올라
평양이 다 보인다 기뻐했더니
대동강에 떠가는 흰돛을 보며
넓은 세상 다 가보고싶었더니

오늘은 그 세상이 다 여기에 모여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평양아
따사로운 해빛아래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이여!
세상을 향해 큰 문을 열어놓은
저 개선문너머 뻗어간 길들이여!

아름다운 저 거리들의 한끝에
세계의 도시들과 거리들이 안겨오고
강반을 적시는 저 맑은 물결에
대양의 파도가 밀려와 환희로 출렁이거니

나는 본다

축전도시 평양을 향해
대륙을 횡단하는 려객기의 은빛나래들을
역두들에 흐르는 기적소리
대표들을 바래며 설레이는 세계의 청춘들을

인간의 존엄과 슬기와 넉을

높이 추켜들고 솟아있는 주체사상탑
그 봉화아래
5대륙 청춘들이 대륙무를 펼칠 평양

물어보자, 모란봉아, 대동강아
그 언제 있었더니
온 세상 청춘들이
구름처럼 모여오는
이렇듯 크나큰 민족의 경사가

내 오늘 다시 모란봉에 올라

세계를 안고 설레이는 너의 모습을 보니
내 조국이 자랑스러워
이 가슴에 뜨거움이 차오르누나

아, 번영하는 로동당시대
흥하는 나라
자주세계의 푸른 하늘을 끝없이 펼쳐가는
축전의 도시 평양이여

여기서 가장 참되고 정의로운
반제련대성의 목소리 울리고
여기서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평화와 친선의 노래 흐르리

아, 평양!

너의 영광을 다 안아보며
너의 빛발에 휩싸여 감격에 젖으며
내 우러러보노라
창공높이 휘날리는
당중앙의 저 붉은 기발을

축포의 불빛 어릴 옛 성들을 쓰다듬으며
력사 반만년에
민족의 공지와 사랑을 이리도 빛내준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노라

번영하라, 누리에 빛나라
너의 이름을 부르며 세계가 흥성이는구나
얼마나 자랑스러운것이나
이 지구위에 우리 평양이 있다는것이
아, 내 사랑하는 평양아!

광복거리를 걸으며

홍문수

바라볼수록 눈부시구나
쳐다볼수록 화려하구나
가슴조차 시원히 열리는
광복거리 대통로를 나는 걸는다

해종일 걷고싶구나
봄빛이 흐르는 수억만 창문들을
마음의 손길로 어루만지며
화단에 고운 꽃씨를 뿌려가는
이름모를 저 처녀와 이야기도 나누며

청춘거리를 걸어보라
서산호텔을 둘러보라
어디를 걸어도
어디에 생각을 얹어도
마음 뜨거워지는 이 거리

떠나면 그리운것이
제집이기에
이제 벗들이 오면
축전의 나날을 뜻깊게 보내라고
춤추는 분수 우아한 장식등
저리도 눈부서라

어디나 춤노래 손잡고 펼치자고
거울같은 대리석 닦아 깔고도
그래도 황홀함을 보려고싶어
구슬인듯 무지갯듯 장식무늬 놓은곳은

내 조국에 찾아오는 귀중한 손님들
반체의 발구름을 더 높이 울리며
천선단결의 손을 더 굳게 잡으라고
일떠세운 이 거리

세계의 대축전장을 마련하려
아낌없이 베풀어준 우리 당의 그 은정
그 은정 그사랑
웅장함으로
화려함으로
넓이로 높이로 하늘땅을 짝 채우고
빛이 되어 향기 되어 찬란히 넘치나니

여기서 만나고싶구나
항쟁의 거리들을 비우지 않던
남녘의 청년학생들을
그립던 정 나누며
이 거리를 활보하고싶구나

다 만나고싶구나
대양건너 대륙넘어 찾아올
세계의 젊은 벗들을
다 만나 청춘의 푸른 꿈 푸른 리상을
가슴 헤쳐 말하고싶구나

아,
우리는 기다린다 세계의 벗들을
하나의 새 거리를 통채로 세워놓고
평양은 넓은 품을 한껏 벌리고...

평양에서 만나자

김석주

오래인 벗과 헤어지듯
모스크바축전의 마지막밤에
평양에서 만나자던 그날이 다가온다
아프리카청년아
다뉴브강변 처녀야

한번 다진 약속을 잊은적 없고
서로 나눈 이름과 주소도 잊지 않았다
남방초원의 농민청년아
아바나 대학생아

온 세상 벗들이 한자리에 모이자고

수백의 민족어가 하나로 부르던
정답고 친근한 그 이름
아, 평양
상봉의 도시여

정의와 진리로 불타는 화불아래
사랑과 우정이 꽃으로 피는곳
푸른 지구우에 희망의 별로 빛나는
아, 평양
벗들의 도시여

평양에서 만나자, 대서양의 섬처녀야
해초냄새 싱그러운
그 모습을 다시 보자

평양에서 만나자, 북쪽나라 젊은이야
무연한 밀밭의 설레임인양
흥겨운 노래춤 보고싶다

진실한 벗들의 만남은
한길을 가려는 뜨거운 마음의 상봉
우리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우랴
화목한 이웃처럼
다정한 형제처럼

다시 만나, 우리 다시 만나
노을 비낀 대동강반을 걸으며
꽃물결에 꿈과 리상을 실어보자
하늘높이 떠오르는 주체사상탑의 화불에
우리의 밝은 미래도 비쳐보자

평양에서 만나는 청춘들은
평화로운 인류의 벗이 되리
자주의 한길에서 헤여질줄 모르는
영원한 상봉의 도시
아, 평양에서 우리 만나자

아, 청춘거리여

박정애

온 세상 밝은 빛 여기로 쏠렸는가
화려한 건축물과 눈부신 창문가들
그 이름도 정다운 청춘거리에 들어서니
마냥 설레는구나 체육인 이내 가슴이...

경기장에선 아슬아슬한 득점의 순간
슛-폴잉! 우리와 같은 박수
경기판에선 얼굴색 다른 두 선수의 무승부라
와-하하! 유쾌한 웃음소리

친근하고 다정한 젊은 벗들이
대양을 건너
대륙을 넘어
희망과 기대 안고 달려온 거리

기다려 손꼽아 기다리던
축전의 오늘에는
우리 서로 마음속 진정들을 헤치고
억센 담력과 슬기 나누어라
불굴의 기상과 용맹 떨치여라

얼마나 환희로우나
평양의 하늘아래 펼쳐진 축전장은
그대로 열정과 랑만의 활무대
서로서로 어깨걸고 손에 손잡은
새 시대 주인들의 대회합장

아, 광휘로운 자주의 빛발속에
만세의 환호성 진감하는곳
친선과 단결의 노래 부르며
세계의 청춘들이 힘과 마음을 합치는 거리여

이 땅의 이름없는 체육인도
뜻깊은 오늘에는
금지에 넘쳐 웨치노라
미래는 정의로 뭉친 청년들것이라고
이 힘 당할자 세상에 없다고

누리에 더더욱 밝게 빛나라
시대의 거창한 숨결, 열렬한 지향 안고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의 대화폭으로
아, 영원한 청춘거리여

혁명궁전의 새벽

박원선

선명하고 깨끗한 달빛은 년줄년줄 흘러내려 바늘땀같은 소나무잎새들과 성난 고슴도치같은 가시선인장들 그리고 넉치같은 방울나무의 잎새들과 강인해보이는 굴나무의 진폴색 잎새들을 어루만지고 발그레 미소를 머금은 굴알들에 부드러운 뺨을 비비며 어리광부리고있다.

하스민꽃의 진한 향기 풍기는 아바나의 밤은 어디라없이 달빛의 속살거림으로 충만된듯하였다.

고즈넉한 정적과 암탉의 품속처럼 아늑함을 시샘하는듯 방파제를 치는 《썩-아 철썩 쉬쉬쉬...》은쟁반마냥 둥근달은 잠들지 못하는 파도에도 부드러운 미소를 뿌려주었는지 정적은 다시 이어지고 파도소리는 꿈속에서처럼 아슬푸레 멀어져갔다.

(아, 내가 어디로 가는것인가.)

윤광철은 정원 깊은곳까지 왔다는것을 비로소 깨달았던지 걸음을 우뚝 멈추고 달을 마중가듯 하늘높이 솟아오른 아름답리 플랑보양나무의 우듬지를 올려다보았다.

유정한 달은 나무잎새들짬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병글거리고있었다.

그는 되돌아서서 정원이녀으로 걸어나왔다.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이 빨간 차스민꽃과 수집음을 머금은 촌치녀와도 같이 희디흰 하스민꽃들이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정말 저 꽃들처럼 열렬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자고 발벗고 나선 꾸바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미제는 저들의 《고요한 뒤동산》이라고 떠들던 그 섬이 사회주의의 길을 택했다고 불을 만난 갈범처럼 날뛰고있다. 지금 또 놈들은 독재자의 압제를 털어버리고 자기 운명의 당당한 주인으로 된 꾸바인민의 수령 피델 가스프로 루쓰동지에게 유엔총회에 참가할 입국사증을 내주기를 거절하였고 꾸바문제를 비법적으로 제 17차 유엔총회에 상정시키려 하고있다. ...놈들의 음모는 좌절되어야 한다.)

광철은 얼마전 신문에 났던 피델의 담화문을 생각하였다.

《...나는 미국에 가자는것이 아니라 유엔에 가려고 한다. 정확히 말하여 유엔총회에 참가하려고 한다. 나는 피비린내 풍기는 해적들의 호텔이 아니라 유엔의 연단에서 발언하려고 한다. 그들이 입국사증을 거절한다면 나는 배낭을 지고 가

리브해를 헤엄쳐 건너서라도 갈 각오와 의지이다.

나는 꾸바인민의 자유와 정의, 존엄의 목소리를 세계사람들, 아니 세계의 량심에 전달하려고 한다. 량심에 자갈을 물릴수 있는가, 신기루를 잡을수 있는가, 누가 우리들이 택한 길을 가로막을수 있단말인가. ...조국이나 죽음이나. 우리는 승리할것이다. ...》

(그렇다. 량심에는 자갈을 물릴수 없다. 요람기의 꾸바를 어떤 힘으로도 교살할수는 없다.)

신임장봉정식때의 피델의 열정적인 음성이 다시금 고막을 두드리고 여유작작하던 그의 모습이 생생히 살아왔다.

《나는 김일성 동지를 모시고 교생하면서 투쟁한 당신이 대사로 우리 나라에 온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존경하는 형제이신 김일성 동지께 충심으로 부터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당신을 귀 당과 정부의 대사로가 아니라 김일성 동지의 특사로 생각합니다.

내 의견에 동의합니까?》

광철은 동감의 표시로서 고개를 약간 숙여보였다. 그런 다음 다시한번 피델이 장기간의 무장투쟁을 령도하여 혁명을 승리로 이끈데 대해서와 조선인민이 높은 존경심을 가지고 피델을 대하고있으며 사회주의혁명에서 반드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있다고 말하였다.

피델은 대단히 감사하다고 하면서 다가와 커다란 손을 내밀며 또 악수를 청하였다.

그런 다음 그를 숨가쁠 정도로 파악 포옹하고는 윤기흐르는 소담한 구레나룻을 비비는것이였다. ...

광철은 승리한 꾸바혁명을 놓고 감론을박하는 제국주의 전쟁사환군들의 면상에 철추를 안기는 심정으로 다부진 몸통을 흔들면서 집을 향해 걸었다.

달빛이 흘러내리는 마당가에서 아바나종합대학에 다니는 딸 지숙이가 기다리고있다가 퍼그나 늦었다고 걱정을 앞세우며 맞이하는데 그의 《딱 친구》인 열살난 막내아들 지혁이가 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니 거수경례를 붙이며 《영접보고》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동지, 전사 윤지혁 당신을 만날만 합니까? 해해해.》

광철은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막내의 벌같은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얼굴에 관자노리에 손을 올려 붙였다가 《쉬워하시오. 자식두 원》하며 그를 덥석 그리안아올랐다.

《와요, 이건 뭐야, 군대를 보구, 씨-》

광철은 군복차림을 한 아들을 품에서 놓아주고 어떻게 된 일인가고 딸에게 물었다. 그러나 지혁이가 제먼저 자랑을 하였다.

《우린 뽕부터 등산을 가요.》

《어대로!》

《어디겠나요. 씨에라 마에스트라산이지. 군사놀이두 한대나 뭐.》

《오-그래서 군복을 지어입었구나. 그 참 잘했다.》

《아버지, 씨에라 마에스트라산에선 피델총사령관이 싸웠대요. 꾸바에선 수염할아버지가 제일 쎈대지요.》

지혁은 엄지손가락을 짝 펴보이며 눈을 꺼벅거렸다.

《야, 수염할아버지가 뭐냐? 무엄하게스리... 개차반같은 자식.》

광철은 술진 눈섭을 쫓깃거리며 《딱친구》를 내려보았다.

《해해, 꾸바아이들은 수염할아버지가 제일 좋다는데 뭐.》

그바람에 광철도 지숙이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고말았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지혁아, 피델총사령관은 씨에라 마에스트라산에서 꾸바인민을 위하여 싸운 혁명가이다. 그러니 그곳에 등산을 가면 그러한 혁명정신을 배워야 해. 알겠냐?》

아버지의 근엄하면서도 절절한 이야기를 듣는 지혁은 순간 압전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한참을 못가서 본성대로 투정을 해대었다. 처음엔 아버지도 같이 가서 군사놀이를 하자고 하더니 지금 자기와 함께 에스감뿌라이에 가서 사과를 따먹자고 생떼질이었다. 지숙이가 사과를 가져다주어도 싫다고 뿌리치고나서 크고 빨간 사과를 제 손으로 직접 따먹어야 된다고 막무가내로 우겼다

《군복을 입은 병사가 그런 떤질을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광철이는 떤질하는 아들애를 애무에 찬 눈길로 바라보며 잔등을 두드려주고나서 지혁의 한쪽 어깨우에 손을 얹은채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총을 잡고 나섰던 항일전의 나날들이 그의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나도 알아, 원수님께서 배워주셨다는 노래.》
지혁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은한 노래소리는 하늘중천에서 맑은 샘줄기 같이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달빛을 타고 대동강물 푸르른 아름다운 평양,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들끓고있을 어머니조국으로 날아가고있었다.

조국을 떠나기전에 지숙이와 지혁을 데리고 백두산에 갔었던 그날 그 삼지연의 달밤에 광철은 바로 이 노래를 불렀었다. 아직은 조국이라는 크나큰 의미를 모르고있는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의 가슴속에도 조국이라는 순결하고 다정하며 거룩함을 심어주고 가꾸어주고싶었던것이다.

지숙이도 지혁이도 조용하면서도 그리움에 사무친 목소리로 아버지를 따라 노래를 불렀다.

《조국에 가고싶어요.》

지숙이가 벽에 걸린 백두산풍경그림에 눈길을 주며 이야기했다. 지혁이도 덩달아 《정말 평양에 가고파.》 하며 아버지의 목을 두팔로 열싸안았다.

《자렴, 래일 등산을 간다면서.》

그러나 《딱친구》는 자기도 군복견장에 피델총사령관처럼 《7월 26일별》을 새겨넣어야 된다고 하며 누이를 끌고 제 방으로 달려갔다.

(너석두 《7월 26일별》을 새긴다구...)

X

새벽이었다.

다급한 전화종소리에 윤광철은 용수철에 튕기듯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방금 꾸바외무성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어제 밤 미제가 꾸바섬을...》

《그래서?》

《모든 장거리미싸일들을 철수할 때까지 바다를 완전봉쇄하며 질식사킨다는 〈결정〉을 강압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에 대처하여 꾸바정부는 48시간 안으로 모든 대사관들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답니다.》

《강도결정때문에 철수결정을 내렸따구?》

광철은 전화를 거는 참사가 철수결정을 내린 당사자이거나 한것처럼 짹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하랍니까?》

《비상소집하시오. 가족들까지도 몽땅.》

참사가 전화를 끊었으나 광철은 송수화기를 총가목인양 틀어쥐고 푸름히 밝아오기 시작하는 창밖의 하늘과 어둠의 장막을 벗어던지며 가볍게 도리질을 시작한 숲우듬지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광철의 술진 눈섭과 관자노리의 피줄은 경련을 일으키듯 푸들푸들 떨었다.

문을 열어제끼며 나가던 그는 책 되돌아들어왔다. 런닝그에 잠옷바지채로인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었다. 어느사이 안해와 딸이 깨였는지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지숙이가 아버지에게 적위대복을 내밀었다.

《들었느냐?》

《예.》

《류학생기숙사로 달려가거라. 불집이 터질것 같다. 모두 대사관에 데려오너라.》

지숙이가 문을 떠박지르며 달려나갔다. 안해가 지혁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으며 광철의 눈치를 보았다.

《깨워야지 뭐하오. 당신은...》

베개에서 굴러난 지혁은 네할개를 펴고 무엇이 좋은지 싱글거리고있었다. 광철이가 허리를 굽혀 깨우려는데 《돌격!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만세-》하고 잠꼬대를 하는 것이었다.

광철은 어이가 없어 물끄러미 《딱친구》를 내려다보다가 엉치를 철썩 갈졌다.

《이겼다구. 이너석 다시 돌격하자.》

눈을 번쩍 뜬 지혁은 군복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망막에 비껴들자 발탁 일어나앉아 아버지도 군사놀이에 가려는가고 똥땀지같은 소리를 하였다.

《그래 진짜 군사놀이를 하자, 냉큼 옷을 입어라.》

광철은 지혁을 데리고 대사관으로 나왔다. 대사관성원들과 가족들이 회의실에 이미 모여있었고 지숙이가 류학생총각처녀들을 데리고 달려들어왔다.

다급한 전화소리가 접수실에서부터 울려왔다. 참사가 전화를 받으려 나가려고 하자 광철은 그를 만류하고 자신이 나갔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은 최대의 긴장감과 원쑤들에 대한 적의로 번뜩이고있었다.

《부관동지라고구. 예예, 준비하겠습니다. 비행기는 필요치 않을것 같습니다. 전투가 벌어져요... 예예, 전화로 알려겠습니다.》

광철은 온몸에 사람들의 시선을 따깝게 받으며 회의실에 돌아왔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류학생들의 애티흐르는 얼굴도 이 시각에는 연기를 쏘인 돌상들처럼 보였고 방안은 공기마저 없어진듯 고요가 깃들었다.

《자, 앉읍시다. 미체가 꾸바섬전체에 대한 해상봉쇄를 시작하였습니다. 해수육장근처에선 벌써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주재국정부에선 우리들더러 오늘중으로 철수하라는 통지입니다.》

누구도 앉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옆에 서있는 지혁이도 숨을 죽이고있었는데 이 몇분동안에 어른이 된듯하였다.

정적, 침묵, 정적.

끝없는 침묵을 깨뜨리며 《광》하는 폭발소리가 들려왔다. 광철은 눈을 홑뜨고 창밖으로 고개를 반쯤 돌렸다가 인차 단호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동무들, 우리가 철수해야 되겠습니까?... 항일혁명전쟁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이신 **김일성** 동지의 명령을 받은 세명의 대원들이 경찰임무를 받고 〈집단부락〉에 들어갔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중 그들은 그 만 매복에 걸려 두대원이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셋이 약속한 시간까지 사령부에 도착한다는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부상당한 두 동무의 간절한 청에 못이겨 한 동무가 먼저 사령부로 향하였습니다. 물론 두동무를 동굴에 눕혀놓고 떠났지요. 사령관동지께서는 혼자 돌아온 그 동무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혁명동지를 사지관에 남겨두고 발길이 떨어지던가. 동지라는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못배웠단 말인가?》

우리는 것처럼 노하신 사령관동지를 그때까지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 한개 중대가 피어린 전투를 벌려 부상당한 두 동무를 끝내 구원하여 돌아왔습니다. ...》

사람들은 윤광철의 눈빛에서 찬바람 부는 백두의 광야를 헤아려보며 숨을 죽이고있었다.

《나는 꾸바혁명군 총사령관인 피델동지가 ABC 기자와 나는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피델각하, 미국의 품에서 진정한 〈문명〉과 행복을 누리고있는 당신의 녀동생은 당신을 아메리카에서 청산해야 할 괴물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신은 어떤 대답을 줄수 있는지도고싶습니다.》

피델은 기자가 방금 제기한 질문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듯 흰갈기를 일으켜세우고 밀려드는 파도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앉아있었다. 얼핏 보면 사색의 심연에 빠져있는것만 같았다. 기자는 취재용 수첩과 원주필이 아니라 마이크를 그의 앞에 바투 가져다대고 록음기의 스위치를 꼭 눌렀다. 그러나 록음기에는 킁킁하는 갈매기들의 새된 울음소리와 방파제에 부딪쳐 분수처럼 솟구쳐올랐다가 흩어져내리는 파도의 소음만이 기록되고있었다. 기자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불을 뿜는듯 영채가 도는 피델의 서늘로운 눈과 불그레한 입술만을 올려다 보며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석상처럼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을 결심인듯 조용히 앉아있었다. 이윽고 그의 오른손이 군복 옷웃의 주머니에 꽂힌 따바꼬에 가닿았다. 다섯대의 따바꼬꼬트머리를 어린애를 애무하듯 다독거리다가 가운데의 따바꼬를 뽑아 입에 물고 라이타불을 켜대고 깊숙이 연기를 들이마시었다. 얼마나 힘차게 빨아들었는지 한참후에야 그의 코

와 입으로 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그의 눈길은 산개대형같이 밀려오는 파도멀기우가 아니라 수평선 저쪽끝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있는 그 북쪽에 가닿아있었고 표정은 상상밖으로 흥분의 추동에 물든 적의나 령소가 아니라 평온함과 인자함이 어리여있었다.

《대답이 궁해졌다고 인정해도 괜찮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기자가 참다 못해 한껏 익은 은행나무열매같은 눈을 반짝이며 야유조로 던지는 말이였다.

《기자선생은 아침밥을 설치고 나왔던가요?》

《전 아침도 점심만큼 많이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자는 대답은 하면서도 의아하여 팔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정말 점심시간이 다 되어오고있었다.

《시장하시다면 각하의 의견대로...》

《아니 난 당신이 시장하다면 식사후에 이야길 나눌가 하오.》

《연구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된다면야 허허.》

《식욕이 왕성한 당신이 초기라도 만나면 어떻게 한다?》

정색하여 말하는 그의 표정을 힐끔 쳐다본 기자는 그제서야 자신의 조급성을 두고 하는 말임을 깨닫는 순간 애써 자신을 다잡으며 쓸쓸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또다시 따바꼬에 불을 붙인 피델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방안을 오락가락하며 열변을 쏟기 시작하였다.

《나를 피물이라고 한 그는 자신이 암피물이라고 소개하였습니까?》

《뭇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빠가 피물이니 동생이라고 자처한 그 녀자도 응당 피물이 되어야 리치에 맞을게 아니겠습니까.》

《혈통으로 계산한다면 하지만 주의주장의 차이라고 보아야...》

피델은 걸음을 멈추고 기사를 던지시 바라보며 소리내어 웃다가 불시에 결연한 표정이 되어 말을 이었다.

《주의주장이라 미안합니다만 나에겐 그 녀자와 같은 형제가 없었고 또 있을수도 없다는것입니다. 나에게는 수백, 수천, 수만, 수억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형제들인가? 독재자들을 반대하여 몬까다병영을 습격했던 나의 동지들, 감옥에서도 혁명가요를 부르며 굴하지 않은 청년투사들, 나와 함께 그란마호를 타고 풍랑을 헤치며 오리엔떼주에 상륙했던 나의 전우들, 저 씨에라 마에스트라의 밀림속에서 나와 함께 싸운 동지들, 오늘 우리가 택한 사회주의의 길이 옳다고 박수를 보내주며 고무해주고있는 벗들, 우리 쿠바인민의 위업을 지지하여주고있는

행성우의 모든 진보적 량심들, 바로 그들이 모두 나의 형제들이요. 우리의 형제관, 나의 형제관은 부모와 피줄에 의해 계산되는 그런 류형의 것이 아니라 사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결합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류형의 것이라는것을 알아두면 고맙겠소. 만일 당신이 피물을 보기를 원한다면 라침판이 가리키는 북쪽방향으로 90 마일만 가시오. 거기에 피물들이 사는 나라 미국이 있소. 만족합니까?》

기자는 록음기의 스위치를 끌 생각도 다 잊어버린듯 긴 팔을 들어 미국을 가리키는 피델의 엄엄한 얼굴을 났을 잃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윤광철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철수하지 맙시다. 함께 싸웁시다. 미제침략자들을 타도하자.》라는 웨침소리가 터져나왔다.

《동지들, 나는 우리모두가 위협에 처한 조국을 지키는 판가리싸움에 나선 쿠바인민을 도와 손에 무장을 잡자는것을 제의합니다.》

크지 않은 회의실이 떠나갈듯 박수소리가 쏟아져나왔다. 지혁이도 어른들이 하는대로 박수를 쳤다. 《군사놀이》에 어른들도 모두 같이 가게 되어 겨드랑이에 날개라도 돋치는것 같은 기분인 상싶었다.

《나는 우리모두의 제의를 조국에 보고하겠소니다.》

대사관직원들과 류학생들은 물건들을 정리하여 포장도 하고 담가도 만들고 옷들을 갈아입으며 땡이처럼 돌아갔다.

《와르릉 와르릉》 쿠바혁명군의 땅크부대들과 포부대들이 이동하고 보병들이 노래를 부르며 혁명광장에서부터 바다가로 뻗은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구아바나와 신아바나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찼고 씩씩한 노래소리는 심장의 박동을 끊임으로 빠르게 하였다.

조조하게 기다리는 윤광철에게 무전수가 무전문을 들고 들어왔다.

《동지들의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결심을 잘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께서 보내신 지원병들으로써 형제적 쿠바혁명을 보위하는데서 국제주의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리라고 믿는다. 전투를 빈다.》

이리하여 윤광철을 대장으로 하여 조직된 《조선지원병》부대는 반나절동안만이라도 체식동작과 방어전투시 매개 병사의 의무와 행동규범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림자처럼 아버지의 뒤꼬리를 따라다니던 지혁은 그 누구도 자기를 아랑곳하지 않자 바빠맞아 아버지앞에 나서며 보고를 하였다.

《나도 아동단원들처럼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난 아버지 련락병 할래.》

긴장하게 훈련을 하던 사람들이 지혁이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자의대로 대오열에 달려간 지혁은 말로는 아동단원들처럼 싸우겠다고 하였어도 엎드렸다가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 묻은 모래를 털다보니 어른들이 네댓번 동작할 사이에 겨우 한번이나 동작을 하였다. 그것마저 힘들었던 지혁은 벌떡 일어서서 큼직하게 그려붙인 《7월 26일별》견장을 툭툭 치더니 허리에 팔을 짚고 서서 어른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담가를 만드느라 벽적대는 류학생들한테도 찾아갔고 식사준비를 하기에 서두르는 식당에도 기웃거려 사람들을 웃기었다.

그러던 지혁은 엉뚱하게도 정원에서 하스민꽃들을 꺾어 다발을 만들어가지고 피델동지에게 제출할 지원병명단을 작성하고있는 아버지한테로 쏘르르 달려갔다.

《대장동지, 연락병 꽃다발 준비하겠습니다.》

《딱친구》를 바라보던 광철은 소태를 씹은것만 치나 입이 쓰거워 미간을 찌프렸다.

《초상난 집에 가서 춤추기라더니. 이너석 당장 사라져.》

《왜 그래요. 전투에서 미국놈 많이 잡은 사람에겐 주려고 하는데. 용감한 사람에게만 줄래. 껍떡 거리는 사람에겐 안줘.》

어안이 병병하여 지혁을 바라보던 참사도 웃음을 터뜨렸다. 웃는 어른들의 모양이 뺨을 뒤틀리게 했던지 지혁은 책 돌아서서 눈을 찔 흘려보이고 제식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X

밤도와 준비를 끝낸 《지원병》들은 방금 동이트기 시작하는 새벽에 혁명궁전을 향해 행진해나아갔다. 늘 두드러개워도 일어나지 않아 광철이가 술있같은 턱수염으로 애리에리한 두불을 꼭꼭 찔러주어야 투정질하며 눈을 뜨던 응석받이 《연락병》도 포릿포릿한 눈망울로 앞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옆에서 부지런히 걸었다.

《업어줄가?》

광철이가 물었으나 대답도 하지 않고 종주먹을 부르짖더니 뉘다 뛰여 공화국기발대를 틀어잡고 선두에서 나아가는 참사의 팔소매를 잡는다.

지혁의 한쪽팔엔 하스민꽃다발이 안겨져있었다.

참사는 그것을 함께 들어다달라는 신호로 생각하여 그것을 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지혁은 도리질을 하며 자기도 기발대를 잡고 같이가려고 그런다고 하는것이였다. 참사는 기발대를 조금 낮추어 주고 그도 한손으로 기발대의 밑등을 잡도록 해주고는

그를 끼고 건다싶이하였다.

광철은 아직은 색조를 분간할수 없는 어둠속을

뚫고 공화국기발을 바라보며 혁명궁전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피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던 일을 생각하였다. 피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두 철수준비를 끝내고 차례로 떠나가는데 왜 조선사람들만 늦어지는가고 하면서 미국놈을 이기는 싸움에서 피를 이미 많이 흘린 벗들이 머리카락 한오리라도 다쳐서야 되겠는가고 뜨겁게 말하였다. 비행기가 기다리고있으니 빨리 떠나라고 몇번이고 당부하며 잘가라고 다시 만나자고 하였다. 광철은 고맙다는 말도 안떠나겠다는 말도 못하고 그저 감사하다고만 되풀이하였다.

그 순간에 광철은 동지들을 한사람, 한사람 모아 미제의 앞잡이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험난한 투쟁의 길을 헤쳐온 그의 로고를 생각하며 걱정애 파묻혀있었던것이였다.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일신상의 안락의 길도 단호히 버리고 혁명의 진두에서 영웅적으로 싸워왔었고 또 싸워나가는 피델, 자기 조국의 운명이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에 걸려 생사를 판가리하는 정황속에서도 벗들의 운명을 걱정하여 전화까지 걸어준 그의 국제주의적 인간애에 머리가 숙여지고 말문이 열리지 않았던것이다.

혁명궁전, 피델이 있는 총사령부로 가는 동지들의 발걸음은 날개돋친듯하였다.

지혁이가 먼저 불렀는지 류학생청년들이 선창을 떼었는지 지원병들이 부르는 《7월 26일행진곡》이 컴컴한 자태로 늘어선 망고나무와 종려수 나무들의 우듬지를 흔들었고 방파제를 치는 파도소리를 짓누르며 높이 울려퍼졌다.

동무들이 나아가자 하나의 리념 향해
평화와 정의 위한 우리 위업 필승하리니
우리모두 싸우자 자유를 위하여

이윽고 대렬은 아담하면서도 크지 않은 3층집, 구바공화국의 기발이 나뭇기는 혁명궁전을 저만치 바라보며 더욱 씩씩하게 정보로 걸어들어갔다.

어느덧 푸름한 미명이 궁전앞의 구바혁명군대원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조선기발을 알아본 군관이 혁명궁전의 층계로 달려들어가더니 보조장인듯한 중위가 대렬을 향해 마주 달려왔다.

조선식 군복들에 허리띠까지 매고 담가를 든 대렬을 일별하고난 중위는 어찌된 일인가고 물었다.

《우리는 피델총사령관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참사가 중위에게 대답하였다. 중위는 길을 열어 주라고 소리를 쳤다. 대렬은 다시 움직이며 노래를 불렀다. 구바혁명군들도 길양옆에 갈라서서 함께 노래를 불렀다.

꾸바의 산아들이 단결하여 앞으로
우리는 조국의 자유독립의 투사들
우리의 영웅주의 조국이 표창하리

대렬은 혁명궁전 앞마당에 2 렬형대로 정렬했다.

이윽고 군복차림의 후리후리한 피델 까스트로 루쓰가 군모도 쓰지 않은채 급한 걸음으로 대렬 앞에 나왔다.

윤광철은 차렷 구령을 주고 그의 앞으로 정보로 걸어나가 보고를 하였다.

《꾸바혁명군 총사령관인 피델 까스트로 루쓰 동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일성** 동지의 명령을 받은 〈조선지원병〉들은 꾸바혁명군과 함께 싸우기 위하여 도착하였습니다. 대렬책임자 윤광철》

광철은 췌췌 쇠소리가 나게 보고를 하고 군복 옷주머니에서 명단을 꺼내어 피델에게 제출하였다.

명단을 받아든 피델의 눈길은 한동안 종이우에서 움직일줄 몰랐다. 숙연히 고개를 든 그는 동녘하늘을 물들이는 자주빛노을을 바라보다가 꾸바혁명군대원들과 조선벗들의 얼굴마다에 시선을 멈추었다. 그는 다시 새벽미풍에 가벼이 휘날리는 공화국기발을 우러르더니 한손으로 기발대 밑등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꽃다발을 안고있는 지혁의 자그마한 몸집을 지켜보았다. 피델은 투격투격 지혁에게로 다가가 《7월 26일별》이 새겨진 전장을 눈여겨보고는 그우에 큼직한 손을 척 얹고서 군중들에게로 돌아섰다.

《동지들, 병사들, 친애하는 벗들!》

피델은 이렇게 서두를 떼였으나 뒤말을 잊지 못하고 걱정을 달래는듯 점차로 기세좋게 펄럭이기 시작하는 꾸바기발과 조선기발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조선의 동지들을 안전하게 귀국시키기 위하여 비행대를 준비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로 왔습니까. 정의와 진리, 꾸바혁명을 보위하기 위해 전투장으로 왔습니다. 나는 이들, 나의 형제이신 **김일성** 동지께서 보내주신 이 동지들을 지원병으로서가 아니라 조선이 보낸, 세계의 모든 량심과 계급적 의리의 대변자들로, 나의 군사교문들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보시오. 이 어린 소년의 어깨우에 빛나는 《7월 26일별》을 보시오. 우리의 형제, 진보적 인류의 미래의 상징인 이 어린이의 어깨우에 빛나는 혁명의 붉은 별을... 나는 우리모두의 미래인 이 아이를 자기 조국으로 귀국시키자는것을 제기합니다. 우리

꾸바사람들이 저 까리브해의 푸른 물속에 다 잠기게 된다하더라도 이 아이만은 우리의 성스러운 씨에라 마에스트라산처럼 영원히 솟아 빛을 뿌려야 할것입니다.》

꾸바혁명군대원들이 일시에 《피델! **김일성**! 피델, **김일성**!》 하며 환호를 보냈다.

피델은 새벽노을과 같은 미소를 담고 광철이쪽으로 몸을 돌리었다.

《대사동무, 우리 꾸바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입니다. 아이들을 보냅시다.》

광철은 차렷자세를 취하며 그의 말을 밀막았다.

《총사령관동지, 그 애의 손우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기발이 나뭇기고있습니다. 누가 그 기발에서 손을 떼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강철은 불길속에서만 단련되는 법이 아닙니까.》

피델은 광철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 흔들며 말하였다.

《**김일성** 동지의 전사들은 모두가 그렇습니까?》

윤광철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데 지혁이가 쏘르르 달려와 피델에게 보고하며 꽃다발을 드리었다.

《피델 동지, 이 꽃다발은 제일 용감한 사람에게 주려고 가져왔습니다.》

피델은 꽃다발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지혁이를 짹 그러안고 그 인상적인 수염을 볼에 비비더니 넉넉 안아올리고 말하였다.

《동지들과 벗들 형제들! 저 미국식인종들이 절대로 우리를 이길수 없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꽃다발이 있습니다. 저 노을을 보시오. 밤이 지새면 새날이 밝아오듯이 우리 꾸바는 저 새벽노을과도 같이 밝게 빛날것이며 저 기발들처럼 지구우에서 더욱 억세게 펄럭일것입니다. 조국이나, 죽음이나. 우리는 승리할것이다.》

3층집 회색건물-혁명궁전이 흔들거릴 정도로 《만세! 만세! 만세! -》하는 폭풍이 새벽하늘가에 오래오래 메아리쳐가는데 씩씩한 《7월 26일 행진곡》이 뒤따라 울려 퍼졌다.

우리들이 흘린 피 헛되지 하지 말라
쓰러진 전우들의 원한을 잊지 말라
우리모두 단결하여 싸워나가지

어둠은 벌써 새벽빛에 쫓겨 점차 밀려가고있었다. 꾸바혁명궁전의 하늘가에 타오르는 붉은 노을빛아래 피델의 형제들이 서있었다.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발전에 이바지할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은 현시기 중요한 문제

승경희

지금 기계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신심에 넘쳐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
는것은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을 발전시
켜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로봇트화하고 유연생산
체계를 널리 받아들이면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서
새로운 질적 비약이 일어나게 될것이며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근로자들의 세기적
인 념원이 실현되게 될것입니다.》**

우리 작가들은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
업을 발전시켜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로봇트화하
고 유연생산체계를 널리 받아들이면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서 새로운 질적 비약이 일어나게 되며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유족하
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근로자
들의 세기적인 념원과 숙망이 실현되게 된다는것
을 예술적으로 확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
시켜 인민경제의 전반적 기술장비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
있게 추진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결심이며 의도이
다.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문학작품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현시대는 전자, 자동화의 시대, 로
보트화의 시대이며 세계적으로 전자공업의 최신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공작기계의 수치조종화와
생산공정의 로봇트화가 얼마나 빠른속도로 추진
되고있는가를 인식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을
발전시켜 인민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고
자동화, 로봇트화, 전자계산기화하여야 제 3 차 7
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고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진을 실현할수 있다는
것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파묘여주어야 한다.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
시키는것이 오늘의 세계적 추세이며 새로운 발전
단계에로 비약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
의 절박한 요구라는것을 구체적인 생활로써 체득
하였을 때 우리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그것을 간직할것이며 무한한
충성심을 발휘하여 그 관철에서 새로운 위훈을
떨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당과 수령이 펼쳐준
새로운 구상따라 수치조종공작기계들과 로봇트생
산을 늘이기 위하여 창조적 지혜를 합치고 영웅
성을 발휘하고있는 공작기계공업부문 노동자, 기
술자, 과학자들의 투쟁과 생활속에 뛰어들어 현
실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깊이있게 형
상함으로써 그들의 심금을 울리고 광범한 대중을
새로운 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 전투적인 문학작
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또한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
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
치는 중요한 과업이며 생산공정의 자동화, 로봇
트화, 전자계산기화를 실현하여 일을 험하게 하
면서도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
활을 당의 구상대로 빨리 높이는것이 공작기계공
업과 전자, 자동화공업발전에 결정적으로 달려있
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히는데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떠난 기계공업의 발전과 현
대화란 생각할수 없다.

오늘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에 최첨
단기술이 적극 도입되고있는것은 세계적인 추세
이다.

우리 문학은 수치조종장치와 전자계산기, 집적
회로 생산을 늘이며 전자, 자동화공업의 자립성
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당과 수령에게 충성다하고있는 과학자, 기술자
들의 투쟁을 형상하는데 보다 큰 힘을 넣어야 한
다.

시대의 요구를 의무로 자각하고 당이 요구하는 문제를 푸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삶의 보람으로 간직하고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깡그리 바쳐 당과 수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고리들을 풀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 우리 문학은 새로운 경지를 열어나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문학은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의 빠른 발전을 위하여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 일군들의 전형도 훌륭히 창조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의 의도에 담겨진 본질적 내용을 똑똑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집행대책을 세우며 그 진수를 대중에게 철저히 인식시키고 대중과 한 덩어리가 되어 대답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는 시대적 성격을 창조하는것은 초미의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 사업이 복잡성과 함께 과학성을 동반하기때문이다.

우리 문학은 복잡한 사업들이 겹치고 애로와 난관이 막아서도 주저하지 않고 높은 혁명성과 전투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중도반단하는 일이 없이 마지막 결실을 볼 때까지 헌신분투하는 일군들의 참신한 형상을 창조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혁명적 현실속에서 시대정신을 체현한 시대의 전형은 새로운 인간문제를 안고있기마련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형상적으로 일반화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대에 대한 작가의 뜨거운 열정과 미학적 안목이 없이는 사회적 의의가 있는 참신한 인간문제를 밝혀낼수 없으며 우리 시대 인간의 높은 정신세계를 그려낼수 없다.

주체적인 우리 문학이 시대와 함께 전진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키기 위해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받아물고 그것을 형상으로 구현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작품들을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으로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자신들을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당이 어떤 문제에 선차적 힘을 넣고있으며 거기에서 무엇을 의도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가를 심장으로 체득하고 그를 창작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열정과 지혜를 다바쳐야 한다.

우리 시인들은 시대의 첨단에서 우렁찬 메아리를 힘있게 터뜨려야 한다.

시인들은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부문에서 일하고있는 우리 로동계급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일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슬기와 열정, 불굴의 투지와 신념을 안겨줄수 있는 생활적이며 철학적 깊이가 있는 전투적인 시와 가사를 창작하여야 한다.

전투적인 우리의 시와 가사는 정서적으로 승화된 감정의 폭발로써 약동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울려나오는 격정의 메아리되어 최선과학기술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더 재촉해야 한다.

우리의 소설가들은 확고한 창작적 주견과 대담성을 가지고 순간마다 영웅적 위훈으로 빛나는 혁명적 현실을 심장으로 체험하면서 의의있는 종자를 잡아줘야 하며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첨단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나아가는 사람들의 활동을 적극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 소설문학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활과 투쟁을 체현한 영웅적 성격의 전형들을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창조하며 수천수만의 새로운 영웅들을 키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생활에서의 대립과 투쟁을 반영하는 우리의 극문학은 극성으로 충만된 우리 시대 주류를 파헤치고 참신한 극적 성격을 창조하는데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야 하며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발전에 이바지할 극문학작품들을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한다.

아동문학작가들은 새로운 성과로서 흥성거리는 혁명적인 현실을 아동들의 정서심리세계에 굴절시켜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시대의 참다운 면모가 아동들의 가슴속에도 질게 비끼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관조자가 될것이 아니라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혁명적인 실천속에 몸을 푹 잠그고 전투적으로 생활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의 전환적 계선에 가까이 다가가고있는 력사적 시기에 살고있다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생활의 귀중한 순간순간을 사색으로 이어가고 창작적 열정을 불태워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는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대동강우에 핀 꽃송이

-축전전야의 5월 1일경기장을 찾아서-

김삼복

해빛 밝고 하늘도 푸른 여름날, 우리가 탄 취재용 승용차는 금릉동굴을 빠져나가 룡라다리우에 들어섰다. 그러자 왼쪽으로 대동강우에 떠있는 거대한 흰꽃송이와도 같고 하늘에서 방금 내려앉은 락하산갈기도 한 5월 1일경기장의 우아한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바라볼수록 신비롭게 느껴지는 우리 인민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수양버들이 우거지고 대동강의 맑은 물이 감도는 아름다운 섬 룡라도는 예로부터 평양의 자랑으로 여름 한철이면 찾아드는 사람들이 그치지 않는다. 서늘한 강바람과 짙은 록음, 새들의 노래소리와 천송이 만송이로 피어나는 갖가지 꽃들... 하지만 이것들은 매혹적인 자연에 불과하였다. 그 모든 자연의 조화를 종합하여 하나의 꽃으로 피어난듯싶은 세계 굴지의 5월 1일경기장이 룡라도에 자리잡게 됨으로써 오늘 이 섬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가진 궁지높은 섬으로 세상에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대경기장에서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바야흐로 막을 올리게 된다. 5대륙의 청년학생대표들이 룡라도의 화원속에 모여들게 된다. 봉화가 타오르고 비둘기가 날며 환호의 메아리가 청류벽에 부딪쳐 온 세상에 퍼져가게 된다. 온 세계가 이곳을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며 우리는 룡라도로 련결된 곡선을 이룬 지선다리를 타고내려 경기장으로 향하였다. 가까이에 이르자 경기장의 우아하고 웅장한 모습은 우리의 경탄을 더욱 자아내는 것이었다. 연 건축면적이 20만 7천여평방미터, 그러나 이 거대한 강철과 콘크리트의 건축물이 경쾌하고 부드러우며 우아한 감을 주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건축설계자들은 세계최대규모의 가장 훌륭한 경기장을 룡라도에 건설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5월 1일경기장 형성에서 현대 건축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는데 16개의 채양이 꽃잎처럼 서로 맞물린 락하산형의 지붕과 반원형 경사 아치로 독특하게 처리한것이 바로 그 실례이다. 세상에서 처음보는 이러한 예술적 형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당원돌격대의 전투원들과 기술자, 과학자들은 《락하산식 지붕골조확대조립시공법》, 《아치경사강보조립공법》 등의 공법을 착상하여 건설에서 기적을 낳았다. 그리고 이

지붕채양공사에서만도 무려 1만 1천톤의 강재가 리용되었다고 하니 5월 1일경기장은 건축형성에서뿐만아니라 그 건설과정을 통해서도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어느 나라에서나 또 아무나 이런 경기장을 건설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는 경기장관리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경기장안으로 들어갔다. 경기장의 내부전경을 다 둘러볼수 있는 잔디를 입힌 바닥에 들어가 쏘으나 경기장안이 너무도 넓고 또 높아서 그저 어리둥절해질뿐이다.

2층으로 된 관람석에서는 15만명이 앉아서 경기를 관람할수 있고 그밑에는 1천 3백여개의 크고 작은 방들이 있다고 관리일군은 설명한다. 경기장의 바닥면적만도 2만 2천 5백여평방미터이다. 온 세상의 청년학생들이 다 모여들어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경기장내부는 지금 축전개막을 앞두고 여러가지로 장식되었으며 명절전야의 흥성거림과 같은 분위기가 어디서나 느껴졌다. 분주하게 오고가는 준비성원들중에서 우리는 상설위원회 성원 한사람을 만날수 있었다.

개막이 박두했는데 준비정형이 어떤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그는 두팔을 벌려보이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번 축전의 개막과 폐막 행사가 어느 모로 보아도 손색이 없는 이 우아한 5월 1일경기장에서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그 성공은 벌써 의심할바 없는것으로 되였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축전국제준비위원회의 견지에서 본다면 이 경기장은 축전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크나큰 선물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그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뜨거우게 해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5만석의 경기장을 룡라도에 건설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 그때로부터 형성도안과 설계를 완성하고 시공을 진행하던 나날을 거쳐 준공을 선포하던 력사적인 그날까지 언제나 경기장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고 세심한 지도와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던것이다.

그리하여 5월 1일경기장은 축구경기를 비롯하여 룽상, 수영, 기계체조, 력기, 유술, 씨름, 권

투, 탁구, 바드민턴 등의 각종 체육경기를 할수 있는 체육시설물과 각종 매점, 청량음료시설 그리고 영화 및 텔레비존촬영실과 방송실, 텔레크실 등 편의봉사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춘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체육문화기지로 완성되었다.

우리는 5 월 1 일경기장 참관을 통하여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민족적 긍지를 더욱 깊이 느끼었다.

그렇다, 대동강의 룡라도에 솟아오른 이 80 년대의 기적적인 창조물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은정깊은 사랑과 위대한 령도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축전개막의 시각 경기장안에서 울려퍼질 열광적인 환호와 경쾌한 환영곡, 친선의 춤물결을 머리속에 그려보며 우리는 아름다운 룡라도를 떠났다.

사랑의 거리

김은숙

광복거리

한달음에 달려와

저 높은 집들앞에 서니

문득 눈굽은 뜨거워집니다

마음은 마냥 젖어옵니다

지금도 눈앞에 삼삼한것은

아, 잊을수 없는것은

방금 답사길에 올라 보았던

백두밀영의 고향집

그 키넛은 지붕과

저 층높은 지붕이 함께 안겨옵니다

그 작은 뽕창문과

저 눈부신 창문들이 안겨옵니다

인적없는 심심산골

원시림 짝어 쌓아올린 귀틀집

우리의 지도자동지 탄생하신 집은

처마 낮은 나지막한 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로 오는

그날의 눈비를 다 맞아준 집

우리에게로 오는 찬바람을

대신 다 막아준 집

그이께서 탄생하신

귀틀집의 노전은

저 층높은 집들의

해빛 뛰노는 요람으로 변하고

고향집 창밖에 울부짖던 눈보라

저 천만 창문가에 피어나는

우리 인민의 웃음

행복의 웃음소리로 피어났습니다

아, 광복거리 집집의 밝은 유리창

밀림의 뽕창문에 달아주고 싶습니다

광복거리 저 은빛지붕

밀영의 귀틀집 처마우에 덮어주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받으셔야 할 행복을

다 안고 솟아오른 집

그 집이 내가 살 집이랍니다

이 세상 가장 빛나는 사랑의 거리입니다

광복거리와 비둘기

조병하

나는 제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온 외국의 벗들을 안내하는 한 친구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외국의 벗은 축전분위기로 흥성거리는 광복 거리에 들어선 처음부터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이토록 웅장화려한 거리가 2년남짓한 기간에 일어섰다는데 놀랐고 학생소년궁전의 웅장함과 우아 함, 얼음과 물, 동물세계가 순식간에 엇바뀌어 펼쳐지는 교예극장의 신비함, 끝없는 광장과 같은 100미터 대도로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수십년력사를 가진 거리처럼 푸르청청하게 가지를 펼친 가로수에도 감탄을 연방 쏟아부었다. 그야말로 감탄사와 감탄사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그는 광복거리의 초고층집 창가들을 볼 때는 웬일인지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 이유를 묻자 외국인은 초고층살림집의 창가에 깃을 내린 비둘기를 가리키며 말했다고 한다. 비둘기란 원래 한번 자리잡은 집을 헛사리 바꾸지 않는 법인데 어떻게 축전과 함께 완공된 거리에 자리를 잡았는지 이해할수 없다고...

그 외국의 벗은 비둘기에 조예가 깊었던 모양으로 광복거리에 자리잡은 비둘기가 두살이나 세살쯤 되었으리라는것을 알아보았다.

사실 비둘기들은 한번 자리잡은 집을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으며 잊지도 않는다. 때문에 비둘기를 숨쉴있는 《통신원》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보면 외국인의 의문은 당연한것이였다.

광복거리의 비둘기라고 해서 류다른것은 아니다. 그 비둘기들은 벌써 광복거리가 착공의 첫 고고성을 터칠 때 여기에 깃을 내렸던것이였다.

광복거리 건설자들은 자기들의 숙소인 가설건물을 지을 때 비둘기들의 집도 같이 지었다. 비둘기들은 건설자들과 함께 광복거리에서 살았고 거리에 정들었다. 그 비둘기들의 집은 처음부터 바로 이 광복거리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외국인은 머리를 끄덕거리며 더 크게 감탄했다고 한다.

《그러니 조선청년들은 벌써 2~3년전부터 축전분위기에 살았다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였다. ...

그 외국인의 말은 인상적이였다. 2~3년전부터 축전분위기에 살았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

우리 광복거리 건설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을 때 벌써 이 거리에 흐르게 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과 함께 이 거리를 더욱 빛나게 해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우리 조국의 수도 평양에서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 건설자들은 얼마나 벅찬 흥분과 환희로써 맞이했던가.

나는 축전분위기로 설레이는 광복거리에서 초고층집창가에 깃을 내린 비둘기들을 보며 그 외국벗의 말을 생각해보았다. 2~3년전부터 벌써 축전분위기에 살았다! 허나 과연 돌이켜보면 우리가 반제, 자주, 평화 위업의 분위기에 살고 투쟁한것이 2~3년전부터였던가...

아니, 우리 인민은 세계력사에 등장한 첫날부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밑에 일관하게 반제, 평화위업에 충실하여왔다.

제국주의의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평화에 호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것, 그리고 모든 반제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 이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드림없는 리념이였다.

새 조선 건국의 나날에 벌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자기의 대표단을 보냈으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불비속에서도 변함없이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자기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새 령사를 창조하는 첫걸음부터 반제, 자주, 평화, 친선의 위업을 위하여 싸워왔다.

오늘 평양의 거리거리를 설레게 하는 반제, 친선, 평화를 위한 축전의 분위기는 우리 인민이 새 조선을 세우던 첫날부터 몸에 배고 자기의 숨결처럼 느껴오던것이다.

주체조선의 수도 평양에서 열리는 제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그것은 2~3년전부터 시작된것이 아니였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세계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이 반제, 평화, 친선의 위업을 위한 축전을 준비하여왔다.

때문에 광복거리 건설자들은 착공의 첫 삽을 박던 때 벌써 축전의 오늘을 생각하고 축전하늘을 장식할 비둘기까지 기른것이 아니겠는가!

광복거리의 푸른 하늘, 7월의 뜨거운 태양아래서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마크를 새기는듯 비둘기들이 훨훨 날고있었다. ...

내 마음속에 이어진 길

유영하

잘 있었느냐
평양-개성간 고속도로로여
병사인 내
표창휴가 마치고
이 아침 서둘러 돌아왔다

휴가길 떠날 땐
두고온 고향이 그리워
걸음에 앞서 달리던 마음
웬일인지
열흘도 되기전에 보고싶어
네가 보고싶어 돌아왔다

천막가에 달빛이 흘러들 때면
그리워 잠 못들며
마음속에 불러보던 어머니
하루밤만 더 목어가라고
따라서며 붙잡는
정깊은 그 눈길 뒤에 두고 떠나왔다

무엇때문이던가
고향의 고운 들꽃을
너의 길옆에 옮겨온것은
어머니결을 두고
어찌하여 내 마음
너에게로 자꾸만 끌렸던지

피끓는 청춘시절에
한천막속에 한숨결로 잠들던
나의 전우들
그들이 그리워서만이던가
나의 청춘시절을 빛내주는
그 땀방울이 스며있는곳
가장 힘든곳에 병사들을 불러준
그 믿음이 항상 뜨거운 여기

나를 낳은 어머니도 못준
소중한 그 모든것
병사의 가슴에
젖줄처럼 이어준 고속도로로여
네우에 고귀한 삶이 뿌리내리고
네우에 아름다운 희망이 꽃피여
나는 다시 왔다

오, 고속도로로여
너는 진정
길만을 이어놓지 않았구나
나의 가슴에 또 한줄기
마음의 길을 열어
고향과 나
나와 조국을 하나로 이어주었구나

땀의 무게

리 광

땀이란 무엇인가
그 한방울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가
그 한방울의 값은 또 얼마나 되는가

땀을 모르는 사람이야 있으랴만
아직 그 무게 알아본이 없으리
아직 그 값을 정해본이도 없으리

땀이란 로동에 바쳐지는것
재부의 창조로 력력히 빛나는것
누구인들 그 땀의 고귀함을 모르랴

하나 그 땀 경우에 따라

한방울이 천근무게를 가지기도 하고
천근값이 서푼늑거리로 변하기도 하나니

부디 명심하시라
자신을 위해 흘린 땀은
자신만이 겨우 알고 기억하지만

나라 위해 바친 땀은
인민이 알고 영원히 기억하게 됨을

아, 땀을 바치려거든
나라 위한 성스런 일에
아낌없이 바치시라 값높이 바치시라!

인간의 수업

리 화

1

총국장 채석준은 요즘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만 아들 정택이의 일로 하여 남모르게 속을 쓰고 있었다. 자식들의 교양문제때문에 골치를 앓는것이 무엇인지를 통 모르고 살아오던 그가 뜻밖의 《변고》를 당했기때문에 그에 대하여 남달리 관심을 쓰게 됐고 지어 당황하게까지 됐는지 몰랐다.

저물녘이었다. 채석준이 총국에서 퇴근한지 한 시간 종이 지났건만 정택이는 그때까지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안해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밖에서 나는 기척소리에 귀를 강구고있었다.

석준은 아침에 보지만 신문을 펼쳐놓고 말없이 들여다보고있었다. 원살이 넘었지만 아직도 밝은 불빛아래에선 안경을 끼지 않고도 깨알같은 글씨를 불편없이 보고있다. 머리카락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흰오리가 없지 않지만 곁뿔에는 새가 땅고 윤기조차 흐른다.

석준이 태연을 가장하고 아래목에 천연스레 앉아있긴하나 마음은 몹시 순편치 못했다. 그는 정택이가 남동체염소로 배치장을 받아온지 사흘이 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맏아들은 집에 들어와서 자기가 어디에 배치되었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고 표표해서 옷방에 올라가 있다가는 횡하니 밖으로 나가버리곤하는것이였다.

석준도 맏아들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상급 학교에 보내려고 작정하고있었다. 그러나 그 애는 머리가 나쁜것 같지 않은데 어찌된 일인지 공부에 열성을 내지 않았다. 무슨 말인들 안해보았으랴. 정택아, 피나게 배우는 사람만이 참된 인간이 될수 있는것이다. 현재까지는 애써 공부하지 않고도 그럭저럭 살아갈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큰 다음에는 그런 건달군이 배겨날 자리가 없다.

진정을 다해 아들의 자각성에 호소도 해보고 그래도 뜨끔조차 하지 않자 언지시 그의 자존심을 건드려보기도 했다.

《넌 부끄러운줄도 모르느냐. 너때문에 총국장의 체면이 여지없이 깎일 때가 드문하단말이다. 일전에 우리 총국초급당비서가 당회의 뒤끝에 처장이상 간부자제들의 학업성적을 통보했는데 너의 학기말성적을 제일 선참으루 부르는게 아니겠나.》

그때 정택이는 낮이 벌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는 다음에는 책상앞벽에 《자체학 습계획》이라는것까지 써붙이고 공부를 좀 하는것 같았지만 이내 열이 식어지고말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 애의 가슴에는 불이 없었다.

그런대로 단과대학이나 고등전문학교쯤은 추천을 받을수도 있었다. 그러나 채석준이 그것을 단호히 잘라버렸다. 그렇게 뜨뜨미지근하게 공부를 할바에는 보다 실력이 있고 열성이 있는 학생에게 양보하는것이 량심적인 태도라고 보았던것이다. 석준과 맏아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라고 할수 있었다.

맏아들은 못해도 전문학교쯤은 시험에 응시해 볼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고 설사 실력이 얼마간 딸린다고 해도 아버지가 도와주리라고 믿었던것 같다.

《난 상급학교시험두 쳐볼수 없단 말이에요? 됐어요. 더는 아버지 신세를 지지 않겠어요. 소금밭에 나가 소금농사나 지어먹겠단 말이에요.》

학교에 나갔다가 상급학교추천명단에 자기가 없다는걸 확인하고 돌아온 정택이는 원망에 차서 석준에게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석준은 자기가 맏아들에 대한 교양에서 실패했다는것을 뼈아프게 느끼었다. 어떻게 되여 총국장의 아들이 염전에서 소금을 내는 일을 막부득한 경우에 치르게 되는 부당한 희생처럼 생각하게 됐단 말인가. 채석준은 가슴아프긴 하지만 뒤늦게나마 단호한 결심을 내리기로 속다짐했던것이다.

자정이 가까와올무렵이었다.

《벌컥》 하고 바깥출입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잇달아 방문이 열리면서 정택이가 불쑥 들어섰다. 고개를 돌려 맏아들을 쳐다본 채석준은 아연하여 안색을 흐리었다.

술을 마신듯 벌거우리한 얼굴에 꼬깔 달린 दा우다직뎃저고리를 되는데로 걸친 정택이는 한쪽에 앉아있는 부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횡하니 아래방을 지나 《드르륵》 미닫이문을 열고 옷방으로 올라가는것이였다.

《애야, 저녁은 어떻게 했니?》

석준의 안해 리성희는 당황한 눈길로 아들의 뒤모습을 쫓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들은 대꾸도 하지 않고 미닫이문을 닫아버리는것이였다. 찬서리가 내린듯 방안에는 싸늘한 기운이 퍼돌았다. 숨마저 죽인채 옷방을 망연히 쳐다보던 성희는 소리없이 일어나 조용히 옷방으로 올

라갔다. 채석준은 뿔어오르는 격분을 지그시 누르며 까딱하지 않고 앉아있었다.

옷방에서는 애라는 심정을 깊숙이 잠재운 침착하면서도 부드러운 안해의 목소리가 파고들듯 끈지게 나직나직 울리는가싶더니 불현듯 정택이의 반발하는듯한 음성이 툭 튀어나왔다.

《동무들이 찾아서 갔댔어요. 안되나요? 난 며칠전에 로동과에서 남동엽전판 제염공으로 배치장을 받았어요.》

우정 엽전판이라는 말을 거칠게 뇌이는 큰 목소리였다. 아래방에 있는 아버지도 들으라는 소리같았다. 아래옷방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숨막힐듯한 정적이 흘렀다. 옷방에서는 울상을 하고 더욱 나직이 속삭이는 안해의 목소리가 났다. 아마도 안해는 제발 우물우물하지 말고 무슨 방도를 찾아보자고 안타까이 정택이를 달래이는것 같았다. 한데 또다시 그 모든 당부를 대번에 뿌리치는듯한 투정섞인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됐어요. 난 필요없어요. 매일 낮차루 떠나겠다 말이에요.》

석준은 널뛰듯하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아픈 마음으로 자기를 돌켜쳐보고있었다. 내가 어떻게 하여 저 애를 배운망덕한 투정군으로 만들었던 말인가. 내판에는 저 애를 대바르고 진실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왔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이런 예기치 못한 파탄이 왔는가.

석준은 큰머리를 두손으로 무겁게 받쳐든채 어둠이 깃든 창밖을 응시하고있었다. 《썩썩-》귀성역에서 막차를 단 증기기관차가 목갈린 소리를 지른다. 객차뒤에 화물방통을 주련이 단 저 혼합열차도 어김없이 제시간에 떠나는가보다. 꼬리를 물고 출발하는 열차마다에 소금을 그득그득 실은 차바곤을 달아보내지만 이해가 저물고 새해에 접어들어도 엽전마다에 산처럼 쌓아놓은 소금을 미처 다 실어내지 못하리라. 이해에는 소금생산 최성기가 끝나는 7 월초순경에 총국적으로 연간 소금생산 계획을 완수하였다. 정무원 부위원회에서 사업하는 동료들이 선망에 차서 말하듯이 그는 《복을 타고난》 총국장이였다... 그런데 가정사에서는 이런 해여날길 없는 곤경에 빠져있다는 것을 그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랴.

사실 채석준은 자녀교양에 대하여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도 아들딸들을 말썽없이 순조롭게 키우는 행복한 학부형에 속했다. 그는 항상 긍지감을 가지고 고등기계전문학교를 마치고 증기계공장에 가서 설계사업소 제도공으로 일하는 맏딸 정심이를 자랑하여마지 않는다.

그 어떤 부모들이나 첫자식에게는 각별히 정을 기울이고 품을 먹이는것이지만 맏딸 정심이야말로 그가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키운 첫산아라고 할수 있었다. 그 애는 애비가 총국장이라고 해서

어느 한때도 아버지의 덕을 보려는 기미를 꼬물만치 보이지 않았다.

중학교를 마친 다음에도 체실력으로 고등기계전문을 추천받아 제절로 차비해가지고가서 시험을 쳤고 입학시험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전문학교를 우등의 성적으로 졸업한 정심이는 제어머니가 그렇게도 집에 끼고있고싶어했지만 혼연히 자기 희망에 따라 큰기계공장으로 갔고 거기에 가서도 맡은 일을 착실히 하면서 공장대학에 다니고있었다.

한데 어찌서 정택이는 그가 기대했던 생활의 궤도에서 걸잡을수 없이 탈선하여버렸는가, 자녀교양때문에 애를 먹는 부모들은 흔히 사업에 분망하여 자식을 가르칠 사이가 없었다느니 그만 나쁜 아이들한테 섭쓸리는바람에 그렇게 됐다느니 하는 말들을 늘어놓기가 일쑤다.

《천만에, 문제는 절대로 시간이나 교양환경에만 있는것이 아니요...》

론의가 있을 때면 석준은 확신에 찬 어조로 우리의 아들딸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훈시나 가르침을 받고 자라기보다는 그들의 눈에 비쳐드는 부모들의 인격과 행동을 영양소처럼 받아들고 성장하는것이다. 안팎이 다른 아이들의 행동은 반드시 표리부동한 부모의 처사에 근원을 두고있는것이며 남의것에 욕심을 내는 아이의 집에는 의례히 정직한 물질생활이 결여되어있는 법이라고 언명했다.

그렇다. 리유를 불문하고 그리유를 불문하고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지 다른 존재로는 될수 없는것이다. 리유를 불문하고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지 다른 존재로는 될수 없는것이다. 그 아들이지 다른 존재로는 될수 없는것이다. 이번 일을 당하고보니 그가 아들의 정신상태를 적시에 낱알이 감득하고 일이 찌그러질세라 제때에 바로잡지 못한것은 두말할것 없고 자기자신의 생활에도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고있는 심각한 허점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된 점이였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채석준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있었다.

2

아들의 방에서 내려온 성희의 안색은 흐려있었다.

《여보! 한가지 묻고싶어요. 당신이 정택이를 남동엽전에 보내게 했지요?》

안해는 자신없이 묻고있었다. 스스로도 도저히 믿을수 없는 질문을 하고있다고 느꼈듯했다. 그러는 안해를 측은한 눈길로 내려다보던 석준은 놀랄 정도로 침착하게 응대했다.

《그렇소. 내가 그렇게 해줄걸 요구했소.》

안해의 두눈에는 눈물이 그렁했다.

《정택이 말이 옳았군요.》

그윽한 눈에 가득히 차있던 눈물은 상혈진 시

울을 넘어 주르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너무해요. 어쩌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석준을 직시하는 성희의 눈에는 참을길없는 원망의 빛이 서려있었다. 그것을 감축한 석준은 칼끝처럼 예리한것이 가슴을 후벼내는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는 어차피 당하고야말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미리 안해에게 숨김없이 터놓았어야 했다. 은연중 아들의 마음속에 부패균처럼 뿌리를 내린 의존심과 비열하게도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제 앞길을 열어보려는 태도를 뿌리채 뽑아던지기 위한 《수술칼》을 들어야 한다는것을 설득시켜야 했다. 허나 그는 소동이 일어날것을 두려워했다. 결국 때를 놓친 일은 회피할수 없는 무거운 짐을 덧치워놓고야말았다.

《여보! 나는 요새 정력이때문에 고민하고있소.》

《당신이지?》

안해가 눈을 치뜨자 확 살아오른 쌍까풀조차 격분으로 떨고있는듯했다. 매끈한 코잔등에는 잔주름이 잡히고 도톰한 입술언저리에는 쓰거운 미소가 땀돌았다.

《당신은 랭정해요. 그렇게 해야만 제자식을 바르게 키울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원칙적일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처사로서는 너무도 몰인정해요. 그래 허다못해 정력을 집에서 다닐수 있는 귀성염전에라도 내보내면 큰일이 나나요? 당신이 사람들앞에서 우리 책임일군들부터 제 자식들을 가장 멀고도 조건이 불리한 염전에 보냅시다. 나도 우리 만아들을 남동염전에 제염공으로 보내겠소라고 했지만 기술부국장네도 철남이를 거기엔 안보내겠대요. 당신이야 책임일군으로서의 자기체면이 있는데 정력을 다른데루 빼돌리겠나요? 자식보다두 그게 몇배루 더 귀중할텐대요.》

안해는 옷방에서 정력이가 부모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담아 들을수 있다는것조차 녀두에 두지 않았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면 더는 아들을 붙잡아둘수 없다고 생각한듯 결사적으로 나섰다.

《난 절대로 정력을 남동염전까지는 보내지 않겠어요.》

잠자리에 들었던 둘째아들 경력이가 부시시 깨어나 웬일인가 하여 두리번거리며 랭친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파르끄레한 빛조차 어린 경력의의 순결하고도 부드러운 눈동자와 눈길을 마주친 석준은 눈땀을 흘렸다.

《여보, 섭섭하구만. 거뿔 남동이 사람 못살고 장이기라도 하단 말이요? 거기는 내가 10 여년동안이나 제염로동을 한고장이요. 어쩐지 내게는 그 염전이 나서자란 고향 못지 않게 소중한곳으로 여겨진단 말이요.》

《알고도 남았어요. 그렇다해도 설마 제자식까

지 그 소금밭에서 단련시켜야만 하겠나요? 지금은 그때와는 사정이 달라요. 할수없으니 그렇지 그래 자식들을 키워서 보란듯이 주잔대학에 보내면 나쁘게 된가요?》

석준이 안해에 대하여 미타하게 여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때문에 그는 정력을 객지에 내보내는 중대사를 집의 사람과 의논하는것을 두려워하였다. 아니 그의 의견을 듣는것을 단념하고 자기의 결심대로 처리해버렸다.

채석준은 잘못이 어디에서 생겼는가를 비로소 깨달았다...

《당신은 몰라요. 요새는 애들한테두 나이론체 육복을 철따라 해입히는게 류행이에요.》

언젠가 정력에게 두번째로 새 나이론체육복을 해입히는걸 보고 너무 호강을 시키면 안된다고 했을 때 안해가 실통하여 대꾸한 말이다. 그 말이 아직도 가슴속에 박혀있는걸 보면 애한테 지나친 사랑을 기울이는것이 심히 못마땅했던게 확실하다.

《그건 또 뭐요?》

애옷때문에 언성을 높였던 불쾌한 일이 잊혀질번했을 때 석준은 또다시 화를 내지 않을수 없었다. 학교에서 숨뒀거고리며 교복, 샤쯔, 신발들을 선물로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안해가 그에게 새로 공급된 천으로 정력에게 새 형의 덧저고리를 해입혔던것이다.

《왜 쓸데없이 아이한테 남다른 특전을 베푸는거요?》

석준은 아무래도 안해가 아들에게 허영심과 의존심을 조장시키고있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것을 그닥 중시하지 않았고 그저 주의하라는 뜻으로 지나가는 말처럼 뇌이고 말았다. 허나 그때 증얼거린 서뿌른 그의 말은 정력의 기분을 덧쳐놓는 결과밖에 가져다준것이 없었다.

깡깡이걸음으로는 멀리 갈수가 없는 법이다. 정력에 대한 랭친의 견해의 불일치는 웅당한 결과를 빚어내고야 말았던것이다.

3

중국에는 마침 남동제염소지배인 안병모가 와 있었다. 오전 한겨동안 석준의 방안에서는 산하 제염소 지배인들의 협의회가 있었는데 모임이 끝나자 안병모는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낮차로 떠나겠습니다.》

《그-레-》

석준은 말마디를 길게 끌며 불깃불깃한 얼굴에 정력이 넘치는 병모의 다부진 체구를 조용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남동지배인이 타고가는 그 기차편에 그의 아들도 배치지로 떠난다는것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병모는 십년전 석준이 남동제염소 지배인을 할 때 군대에서 제대되어 제염공을 하다가 석준의 추천으로 작업반장이 되었고 그후 지령원으로 끌

어울려 곁에 두고 일을 시키다가 인민경제대학에 보낸 사람이다.

그에게 정택이에 대하여 한마디만 비치면 친자 식처럼 돌봐줄것이다. 그러나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에 잠겼던 자신을 스스로 비웃듯이 쓰거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가게.》

그전날 그가 이 사람을 귀애한것은 그 어떤 남다른 인정관계가 있었기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병모자신이 로동에서 헌신적이였기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고 지배인의 눈에도 띄었던것이다. 석준 역시 안병모가 정택이를 자기가 그를 대해줬던것처럼 공정하게 원칙적으로 대해주길 바랐던것이다.

《뭐 당부할건 없습니까?》

넌지시 묻는 병모의 질문이다. 순간 석준의 뇌리에는 지배인들의 협의회때 병모옆에 앉아있던 부국장의 모습이 스쳐지났다. 그는 오늘 석준과 눈길을 마주치길 두려워했다. 아마도 정택이와 같이 남동으로 자기 아들도 떠나보내겠다고 했다가 그만둔때문인듯했다. 그의 아들은 갑자기 감기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가 편도선까지 수술하고 나온후에 슬며시 가까이에 있는 제염연구소 실험공장에 입직시켜버렸다. 무엇을 나무랄수 있으랴. 사람들의 눈밖에 남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한데 그가 혹시 병모에게 총국장의 아들이 남동에 배치되어 간다고 넌지시 귀뜸할수 있지 않은가. 그는 안될듯말듯 안색을 흐리였으나 《할말은 다 했네. 그저 명년도생산준비를 단단히 틀어쥐고 나가게.》라고 했을뿐이다.

석준은 점심 한끼는 늘 총국구내식당에서 먹곤 했다. 그러나 낮차로 떠나는 아들을 배래워주려고 승용차에 몸을 싣고 집으로 향했다. 그는 역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아들을 전송하려고 마음 먹었다.

흔들리는 차에 몸을 맡긴 석준은 두눈을 지그시 감고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끝내 맏아들과 흥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어보지 못한채 이렇게 헤어져야 한단 말인가.》

아침일찍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아들과 서로의 의향을 사나이답게 토로해보자고 미닫이문을 열고 옷방으로 올라갔다. 정택은 이불을 폭 뒤집어쓴채 침대에 엎드려 자고있었다.

석준은 책상맡에 밀어놓은 의자를 소리나지 않게 들어내놓고 그우에 앉아 아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이 옷방은 석준의 서재이자 침실이였다. 그러나 정택이 중학교상급학년이 되자 석준은 이 방을 맏아들의 학습실로 맡기였다. 벽에 걸친 기타며 방한꾸구석의 함통에 가득차있는 반도체소자며 축전지와 납덩이들, 이 방에서는 한동안 시끄러울 정도로 기타를 뜯는 소리가 울려나왔고 그것이 줌즈해지자 매캐한 송진내와 찌르

룩거리는 라디오의 소음이 그칠새없이 울리였다.

저 애는 장차 무엇이 될가, 아들의 장래를 그려보는 석준의 얼굴에는 달콤한 꿈의 세계가 펼쳐질 때도 있었다. 어찌 석준인들 제자식이 남다른 훌륭한 일군이 되길 바라지 않았으랴. 아니 더놓고 말하여 자식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 누구에게도 비길수 없을 정도로 류다르고 지어 애잡 짬한 정회로 엮힌것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였는가. 그자신이 맡아들을 서해북변의 외진바다가에 자리잡고있는 소금밭으로 떠밀어보내고있지 않은가...

집앞 현관곁에 정택이와 몸이 실한 부국장의 아들이 마주 서있었다. 승용차의 경적소리를 들은 그들은 황급히 헤어졌다. 아들애의 손에는 부국장의 아들 경찰이 쥐여준듯싶은 자그마한 종이 꾸레미가 들려있었다. 주경철은 황급히 인사를 하고는 고개를 폭 숙인채 길모퉁이로 사라졌다.

석준은 못본체하고 아들의 뒤를 따라 묵묵히 집안으로 들어갔다. 방안가운데는 아들이 먼저 먹고난 점심상이 그대로 있었다. 밥을 몇술 뜨지 않았다는게 눈에 띄였다.

《왜 점심을 그렇게 설치느냐?》

석준은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하고는 옷방으로 올라갔다. 옷방에는 뜻밖에도 중기계에 가있는 만팔 점심이가 와있었다. 그 애는 불살이 좀 빠지긴 했으나 영채론 두눈을 밝게 빛내이며 인사를 했다.

《아버지! 앓지 않았어요?》

《앓긴?!》

석준은 며칠새 처음으로 밝은 웃음을 지었다.

《전화를 받고 급히 왔어요.》

정심이는 꽃보자기에 쓴 보따리를 눈으로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다. 정심이가 가져온 보자기에는 그 무슨 책들이며 학습장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명랑한 미소를 뿌리며 껌싼 솜씨로 정택이가 가져갈 짐을 손질하던 정심이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있는 제어머니에게 말했다.

《이런 모포같은건 필요없어요. 거긴 뭐 합숙이 없나요? 이 가족장화는 가지구가면 겨울에 추운 소금판에서 일하기 좋겠지만 남들이 뭐라겠나요? 로보물자루 내주는 솜신을 타신게 좋을거예요. 아버지 그렇지요.》

석준은 씩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문학교를 다니느라고 3년나마 기숙사생활을 한데다가 그후에도 계속하여 공장에서 합숙생활을 하는 정심이는 객지생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선배연하며 활기있는 어조로 정택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말하는데 <소금바람>에는 돌두 막소화된다구 하시더군요. 맨밑에 어머니가 집에서 만든 빵이 들어있어. 출출할 땐 참지 말고 두들들하구 나눠먹어.》

정식은 마치나도 어머니를 대신하여 오랍남동생의 원족차비라도 해주는듯 쾌활했다. 누이의 명랑한 기분에 어쩔수없이 젖어든 정력은 불안하고 어수선한 기분을 어지간히 가신 기색으로 침대한쪽에 앉아있었다.

낮차가 떠나는 시간까지는 역으로 나갈 시간을 내놓고도 아직 한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석준은 정력과 한침대에 나란히 걸터앉았다. 그는 아들에게 할말이 많았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사나이라고 작별의 시각에만은 대범한 기색을 짓느라고 애쓰는것 같았으나 정력의 얼굴에는 불우한 수난자와 같은 비통한 표정이 어려있었다.

이런 정신상태에 빠져있는 자식에게 아무리 신중한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의 가슴속에는 말아들이 사회에 나갈 때 들려주려고 소중히 간직해 놓은 이야기가 그들먹이 차있었다. 그는 자기의 뒤를 이을 아들이 자기자신처럼 아니 자기보다 낫 게 사고하고 행동해주길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것이라.

더우구나 정력은 30 년전 석준이 배치되었었던 조국땅 한끝 외진 소금밭으로 가게 된것이다.

그는 정력이 오래전에 자신이 겪은 고민과 오유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랐다. 부디 그의 아들만은 그가 헛되이 헤맨 《지름길》에서 헤매이지 말았으면 했다. 그러나 아들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갈 자그마한 틈새조차 찾을수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제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을가, 총국장이라는 큰 직책에 앉아있으면서도 제자식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염전중에서도 마지막염전의 제염공으로 떠밀어보내는 아버지를 뵈속깊이 원망하고있는가. 과연 이제는 낯선 염전으로 달려가 보란듯이 큰일을 하고 제집으로 돌아올 꿈을 꿀수 없단말인가...

끝내 채석준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과 화해하는 말을 찾을수 없었다. 정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석준도 따라 일어섰다. 그는 문밖까지 따라나가다가 마당어귀에서 아들을 불러세웠다.

《정력아.》

침중한 표정으로 석준을 쳐다본 말아들은 불현듯 고개를 떨구었다. 막상 작별의 시각이 되고보니 부친에게 너무 모질게 대했다는 자책감이 든 때문인지, 분명 그런것 같다. 그가 정녕 아버지의 진정을 모를수는 없지 않는가.

《여기서 헤어지자.》

석준은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버지의 큰 손에 아직 여물지 못한 손을 맡긴 정력의 눈가에 그 무엇인가가 번쩍하고 스쳐지나는것 같다. 석준은 아들의 손을 꼭 친채 말했다.

《가서 일잘해라. 너도 이제 자립적인 생활의 길에 들어섰다. 너의 아버지도 이렇게 사회생활

을 시작했다는것을 명심해주시 바란다.》

정력은 고개를 돌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려는듯 입술을 움찔했으나 부친의 손을 맥없이 잡았다놓고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바삐 걸어갔다.

4

정력이 남동제염소로 떠난지 달포가 되었으나 그한테서는 아직 편지 한장 없었다. 창밖에서는 첫눈이 부슬부슬 내리고있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중 년로자들을 내놓고는 아직 숨뎛저고리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별로 찾을수가 없다. 그러나 소금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벌써 누비숨바지저고리에 솜신으로 든든히 차비하고 일터로 나가고있었다. 여기 양지바른 산밑에는 따뜻한 해별이 장글장글 하지만 저기 염전두렁의 룼박이 어슴푸레 내다보는 벌에는 찬바람이 불어치고있었다.

게다가 남동염전은 압록강을 지척에 둔, 위도 상으로도 평남도해안지대보다 훨씬 북쪽지대이다.

거기에는 더 맵짠 바람이 일것이다. 채석준은 그것을 온몸의 피부로 느끼고있었다. 그자신이 거기에서 여름에는 땀별을 고스란히 받고 겨울에는 찬바람을 다 맞으며 10 년동안이나 일했던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살을 어이는 칼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맞받아 힘차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지못해 찬바람부는 벌가운데에 나선 사람에게는 순한 바람결에도 진저리를 치며 흐느끼는 법이다.

석준은 가끔 남동에서 걸려오는 사업상 전화를 받거나 자재인수때문에 총국자재상사에 들렀다가 찾아온 남동공급소지도원을 띠여볼 때에도 문득 정력에 대한 불길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겠나 하여 마음을 쓰게 되는것을 어찌지 못했다.

《멀뚱스러운 녀석같으니라구. 제에미가 눈이 까매서 기다린다는 생각조차 못한단 말인가.》

석준은 집떠난 아들생각으로 속을 태우는 안해를 볼 때마다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것을 꼭 참곤 했다. 새달초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석준이 남동제염소에 나가보게 되어있었으나 그는 이 사업을 생산부국장에게 넘겨버렸다.

그날저녁 밤늦어 집에 들어가 밥상을 물리고났는데 안해가 말없이 편지 한장을 내놓았다.

《실은 어제 온 편지인데 당신 기분이 언짢은것 같아서.》

안해는 뒤말을 여물구지 못했다. 석준은 말없이 편지를 집어들었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그러게 마련이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데 정력은 다심한 어머니를 더 따르는것이 다.

《...남동염전사무실은 〈늪섬〉 마을이라는곳에 자리를 잡고있어요. 나도 이 늪섬끝에 있는 제염소합숙 5 호실에 들었지요. 창문밖에는 시퍼런 염

전저수지가 출렁거리구 그 너머에는 킁킁한 염전이 누워있어요. 첫날 로동과에 나가니까 종업원 카트를 작성하더군요. 전 부친의 직업이 무엇인가고 묻는 말에 귀성제염소 로동자라구 대답했어요. 혹시 어머니는 노여워하실수 있겠지만 저는 달리 할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렇게 하는게 아버지한테두 좋을게구 저한테두 맘편해요. 피차가 다 웅색한 처지를 면할수 있지요. 전 그날 아버지의 덕을 입는것은 가장 큰 수치라는것을 똑똑히 깨달았거든요...

저는 지금 3구 1호라는 작업반에 배치되어 일하고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직장을 구라구 하구 작업반을 호라구 해요. 작업반장은 김중화라는 공훈제염공이며 키는 전 보대만 큼 크구 몸은 호리호리한게 영 볼품이 없는 <아바이> 예요. 제가 배치장을 내보였더니 말없이 받아 보구는 씩 웃더군요. 그게 반갑다는 표식이라나요.

그다음 박치화라는 어머니가 있어요. 남편없이 아들 며느리하구 사는 어머니인데 코가 빨갧게 생겼어요. 올해 쉰넷 이라니까 년로보장나이가 거지반 된데다가 아들 며느리가 다 염전에서 일을 하고있지요. 그렇지만 집에 들어앉아 손자시중이나 들기에는 아직 힘이 남아돌아간다면 소금관관리공을 하고있어요. 나는 치화어머니 밑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한테서 소금관관리하는 법을 배워 치화어머니가 아주 일을 그만두면 그대신 소금관을 맡아보라는거겠지요... 이렇게 나는 <소금농사군> 이 됐습니다. 어제는 종일 짬뽕담아두는 해자의 감탕을 저나르는 일을 했어요. 저녁밥을 먹고는 피곤하여 웃도 벳지 못한채 침대에 뚫아떨어집니다...》

용렬한 녀석같으니라구. 아직도 아버지의 처사에 의견을 가지고 속이 꼬부장해있구나. 편지를 다 읽고난 그는 불안한 생각을 금치 못하면서도 흥분된 가슴을 진정하지 못했다.

잊지 못할 3구 1호. 그가 다년간 일하던 정든 작업반에서 아들이 또다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 디딘것이 아닌가, 그는 정택이를 남동으로 전송하면서도 이런 우연한 일치가 생기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이제라도 총국장사업을 집어던지고 옛작업반으로 찾아가 모든것을 새롭게 시작하고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힐길이 없었다.

아, 정녕 내가 정택이 나이로 되돌아가 제염공으로부터 인간수업을 다시 할수는 없단 말인가. 그렇게 할수만 있다면 나는 그 얼마나 행복한 사람으로 될수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일을 목적의식적으로 할수있겠는가.

숨이 가쁠지경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무리 간절하게 바라도 가버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이다. 오로지 가능할길은 그의 아들이 더는 후회없이 아버지의 옛일터에서 참다운 일군이

되도록 도와주는 길이 있을뿐이 아닌가.

《당신 좀 생각되는데 없어요?》

성희는 뚫어지게 남편을 응시하며 물었다.

《뭘말이요?》

동문서답격이 되고말자 성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다.

《그 애는 감탕을 저나르고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인가야 당신이 잘 알잖나요. 난 더는 참지 못하겠어요. 남동지배인동무한테 편지를 쓰겠단 말이에요.》

석준은 격하여 부르짖듯이 뇌이는 안해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안해의 두눈에서 쏜 분노의 빛을 보고 그가 실지로 그렇게 할수 있다는것을 알았다. 섭섭하기 그지없었다. 그의 안해는 석준이 다년간 염전에서 로동을 하면서 얻은것이 무엇이라는것을 몰랐다. 그에게 자기가 소금밭에서 체험한 생활을 한두번만 들려준것이 아니였던단 사람이란 어디까지나 자기가 몸으로 겪어보지 않은 일을 제일처럼 여기기는 어려운 듯하였다.

언젠가 한고향에서 온 부친의 막역한 친구인 중앙방송의 공훈기자는 석준을 조용히 앉혀놓고 단단히 이르는것이였다.

《...장가는 나이가 좀 들더라도 착실한 직업을 가진 다음에 가도록 하는게 좋겠다.》

석준은 풍부한 인생체험을 지닌 그 공훈기자의 말을 의미심장하게 새겨들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때이르게 장가를 들어 마음고생을 하는 동료들의 생활을 넘겨다보면서 관록있는 그 공훈기자의 말에 거역할수 없는 진리가 있다고 보았던것이다.

그래서 그는 로총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사업에만 몰두하다가 지배인이 된후에 맞춤형 대상을 만나 결혼을 했다. 신중하게 택한 대상인 리성희는 그때 원산경제대학을 졸업하고 군산업은행에서 파장사업을 하고있었다. 《서로 지체에 어울리는 상대들 고른셈이였다.

성희의 부친도 해방직후부터 내내 정권기관에서 간부로 일해왔는데 그들이 결혼할 당시에는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사업을 하였다. 말하자면 인민의 총복으로 한생을 살아온분이다. 그는 당조직에서 퇴비를 군중적 운동으로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줄데 대한 지시가 내려오면 이른아침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다니면서 진거름을 한삼태기씩 주어서 집모퉁이에 쌓아놓고야 인민위원회로 출근하곤했다. 그런데 그의 딸은 제자식이 감탕짐을 진다고 분개하여 원망에 찬 눈길로 그를 쏘아보는것이였다.

채석준은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분한 감정을 지그시 가라앉힌 연후에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정택이한테 편지를 쓰겠소.》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방으로 올라갔다. 부모들이 이러쿵저러쿵해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들의 운명은 아들 자신이 결정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책상앞에 다가앉아 탁상등을 켜놓고 아들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정택아, 너를 집앞에서 바래올 때 내 몸도 너와 함께 남동으로 떠나가는 심정이였다. 너는 작별의 분위기를 흐리우게 하지 않으려고 짐짓 굳센 표정을 지어보이였지.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남동제염소루 배치되어갔던 나의 심정도 너처럼 그렇게 불만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을 상상할수조차 없겠지. 떠나는날 아침 네가 하도 마뜩잖아하는 기색을 하기때문에 아버지는 끝내 너와 조용히 마주앉아 진지하게 나누고싶던 그 이야기를 끝내 터놓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네가 3구 1호에 제염공으로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금 나는 너는 더는 그 말을 뒤로 미룰수 없구나!

정택아, 군대에서 제대되어 룡성고기가공공장장에서 제관공으로 일하던 내가 갑자기 남동염전으로 조동되게 되었을 때의 심정은 집을 떠나는 너의 마음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었다. 아니 어떤면에서는 너의 심정보다 더 착잡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때 제염소와 고기가공장은 같은 경공업생산단 식료공업처에 속해있었는데 고기가공장에는 로력이 남아돌아가는 반면에 제염소에는 로력이 없어서 낸 소금도 미처 거두지 못하는 형편이었던다. 그런데 나같은 신입로동자를 공장에 불러두고 유능한 기능공들을 뽑아서 염전으로 보낼수 있었겠니? 그적에 내가 제염소로 떠나는 청장년들의 명단에 오른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심히 부당한 처사로 받아들였다. 나의 부모들은 남반부에서 미제와 리승만피뢰도당들을 반대하여 싸우다가 희생되었다. 나 역시 어린몸으로 군대를 따라 후퇴하여 혁명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인민군대에 나가 분계선초소에서 복무하다가 제대되었다. 그런데 어째서 부디 나같은 사람을 뽑아서 그런 험한 로동판으로 보낸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억울함이 끓어오른 나는 너는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 빠스를 타고 평양시내로 들어갔다. 상술집에서 꼬치안주에 술 몇고뿌를 마시고 열근한 김에 시인민위원회에서 처장사업을 하는 아버지의 친구한테 찾아갔구나. 류 아무개라고 하는 그 사람은 50년 서울해방이후 우리 강화군에서 면당위원장사업을 했었다. 나는 마침 퇴근하여 집에 들어와있는 그한테 찾아가 성품이를 해냈구나. 네가 남동염전으로 파견장을 받아가지고 성이 나서 동무들과 술까지 나눠마시고 집에 들어와 어머니에게 분풀이를 하는 소리를 들

었을 때 나는 너를 나무래기전에 자기자신의 지난날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마치나도 자기의 운명이 끝장나기라도 한듯이 네가 어머니에게 <됐어요. 난 래일 낮차루...> 라고 올려대듯이 말할 때 나는 두눈을 지그시 감고 그 류아저씨한테 원성을 터뜨리던 자기자신을 보고있었다.

<아저씨 량심이 있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놈들에게 학살되지 않고 살아계셨다면 이 아들이 소금판으로 가서 일하는걸 그냥 보구만 있었겠나요.>

홍분하여 분별마저 잃은 나는 감히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진 부친의 성스러운 이름까지 내뱉드리며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다.

정택아, 지금도 이 애비가 농안에 소중히 간직하고있는 너희 친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렬사중이란 자기자식에게 공짜로 험한 직업을 마련해주는 그런 녹거리증표였겠니.

그런데 그 류아저씨는 아무말도 안하고 나를 옷방침대에 자리를 펴고 채우더니 이튿날아침 조용히 앉혀놓구 묻는 것이였다.

<석준아, 네가 하고싶은 일이 무엇이냐?> 나는 인차 대꾸를 할수 없었다. 그러자 류아저씨는 천천히 뒤말을 이었다.

<그러니 아직은 이렇다할 지망이 없는것 같구나. 그런데 제 1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선 나라살림에는 소금이 딸리게 되었다. 각 곳에 화학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게 되자 거기에 만도 소금이 굉장하게 들어가게 됐거든. 그래서 당에서는 각 부문에서 로력예비를 찾아 제염소들에 보내주도록 조치를 취한것이다.

그리고보면 소금을 내는것도 중요한 혁명사업이 아니냐. 너는 나보구 혁명전우에 대한 의리와 량심에 대해서 말했다만 우선 나는 혁명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네 아버지가 생존해계셨더라면 이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했겠는가고 너에게 묻고싶다.>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꾸도 할수 없었다. 얼마나 론리정연하고 지당한 말이였겠느냐. 그러나 나의 감정은 뽕철한 그의 론거를 인정이라고는 손톱눈만큼도 없는 매정한 처사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그의 말을 고깝게 생각한 나는 두번 다시 이 집에 찾아오지 않겠다고 속다짐을 했다.

그 집을 나설 때 류아저씨는 정색하고 나에게 말했다.

《나는 네가 이번에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혁명가의 아들이라는것을 어엿이 보여주기를 바란다.》

의미심장한 그의 말에는 가슴 찢리는데가 있었지만 그때 내 귀에는 그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너를 남동제염소루 보내는 이 애비의 처사를
네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반발
심을 가진것처럼 나 역시 그를 인정머리라구는
한 꼬투리도 없는 팽담한 인간이라고 치부해버렸
던것이다.

요즘 일부 젊은이들은 우리가 지난날 간고분투
하며 전후복구건설을 하던 때 있던 일을 얘기할
라 치면 <새로운 말은 없구 늘 듣던 그 소리군요.
지금은 그때하구 달라요.> 라고 대꾸질하기가 일
쭉이다. 세상일이란 그런것이지. 지나간 일은 다
헐해 보이는 법이거든.

그러나 우리가 보건대 지난날의 간고한 로동에
비해볼 때 오늘의 로동은 흥타령을 부르는 노라
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필을 들자 가슴속에는 격랑처럼 일어번지
는 감정의 격류를 녹작힐길이 없었다. 석준은 자
기 아들에게 가장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싶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정택이가 자기자신처럼 사고하
고 행동하기를 갈구하여마지 않았다. 그런데 자
기의 요구성에 비해볼 때 아들이 너무도 먼거리
에 머물러있는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그는
만아들이 아버지가 생각하는것뿐만아니라 그가
념원하고 바라는것까지도 자기자신의 일로 심장
에 새기고 살았으면 한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갈망하고있는가. 그가 이
제 한생을 총화질 때가 되면 곁에 지켜앉아있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말할수 있겠는가. 남반부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그도 할말은
오직 하나, 통일된 남녘땅 강화도에 이 애비를
대신하여 네가 꼭 가다오... 그리고 나의 일가친
척들에게 이 애비가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속에서 책임적인 국가정책을 지
니고 보람차게 살았노라고 그네들도 조국과 인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달라고 당부했을것이다.

그러기에 석준은 정택이에게 너는 남들과 달라
남녘땅 그 어디에 백골이 묻혔는지 알수도 없는
친할아버지, 할머니의 여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도 그렇고 통일된 그날에 고향땅에 가서 해야 할
많은 사업을 위해서도 백배천배를 다하여 자기
를 준비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그런
데 그 애는 먼 앞날은 고사하고 오늘의 일도 눈
에 차게 하지 못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때문에 그는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절절한 목
소리를 다하여 먼곳에 있는 아들에게 참으로 할
말이 많았다. 석준은 앞질러 떠오르는 가지가지
의 생각들을 머리에 차근차근 정돈하며 아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여 진정 그 애의 가슴을 사
정없이 흔들어깨울 말마디를 고르기 위해 애썼
다.

5

그는 계속하여 편지를 써내려갔다.

《...나는 그때 힘겨운 소금밭일을 도저히 감당

해 낼것 같지 못했다. 어느날 저녁이었다. 복서
풍을 알맞춤히 맞은 소금판에는 왕소금이 허영게
깔리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여 한창 소금을
거둬내는데 갑자기 시꺼먼 구름이 몰려들면서 비
가 짹짹 쏟아지지 않겠니. 게다가 바람이 태질하
듯 불어치면서 뜬때기를 휴지조박처럼 날려 전선
줄에 걸어 놓군했다. 순식간에 전기줄은 끊어져
나가구 야간 작업등은 눈을 감아버렸다.

사위는 먹물을 갈아부은듯이 캄캄한데 . 염판
에 허영게 깔린것을 어림짐작으로 가늠하구 소금
을 거두는수밖에 없었다. 치화아주머니, 의섬어
머니, 우치너아주머니들은 그속에서도 소금을 거
두어 참대손으로 삼태기에 소금을 긁어담아서 광
주리에 채워주지 않겠니. 그러면 (지금은 확소리
공동묘지에 묻힌) 변영진아바이가 멜채의 량쪽에
소금광주리를 걸구 찌국찌국소리를 내며 해자쪽
으로 달려가는것이였다.

번개가 번쩍 하늘을 가르구 천둥소리가 하늘땅
을 뒤흔드는데 <걸씨걸씨 하자!> 변아바이는 거
신 목청으루 소래기를 지르며 소금이 철철 넘치
는 광주리를 메고 갈범처럼 날과람있게 달려다니
는것이였다. 나는 그래도 남자꼬부랭이라고 멜채
에 광주리를 메고 소금을 나르느라구 뛰여다녔다.

두령길은 왜 그렇게두 미끄러운지 기름을 들부
은것 같이 매끄러워서 소금광주리를 메고서는 걸
음을 내디디기는 고사하고 발을 붙이기도 어려웠
다. 소금을 나르는것보다 떨어지고 자빠지면서서
쏟아내치는것이 더 많았다.

소금을 다 거두고 허리를 펴는데 밤 12시 고동
이 <우-오> 하고 나더라. 비물과 소금물, 감탕
으로 뒤범벅이 된 몸뚱이는 와들와들 떨리었다.
그러나 반원들은 비가 멎지 않은 밤날씨를 걱정
하며 뜬때기를 아름으루 안아다가 소금무지들을
덜기 시작했다. 나는 더는 한발자국도 걸음을 내
디딜수가 없었다. 그러나 안간힘을 다하여 뜬때
기를 안고 비칠거리며 몇발자국 내디디다가 발끝
이 물고에 걸려 도랑창에 곤두박혔다. 풍덩 소금
물에 전신이 송두리채 빠져 정신없이 허우적거리
던 나는 간신히 두령우에 나앉았다.

<이젠 다야 다- 더는 이 짬판에서 헤여날수가
없어. 난 망했다.>

나는 절망에 빠져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석준이저그니- 석준이저그니>

치화아주머니가 헤엄치며 찾는 소리가 들려왔
다. 그제서야 나는 몸을 일으키여 뜬때기를 좇어
안고 비칠거리며 가까이에 있는 소금무지로 걸어
갔다. 나는 무슨 힘으로 늪섬합숙까지 걸어갔으
며 어떻게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고 호실까지 찾
아가 침대에 쓰러졌는지 모르겠다. 처마끝을 울
리는 하늬바람소리에 깨여났다. 아니 한방에서
생활하는 고기가공공장에서 같이 온 동무인 전공
이 내 몸을 밀대처럼 흔들며 깨워줬던것 같다.

〈어서 일어나. 일어나라는데, 하늬바람이 터졌어. 소금관이 탄다구 염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날뛴기전에 나갔어.〉

〈뭐 소금관이 탄다구? 밤새도록 염판에서 헤맸는데 눈짜개지자 또 나가야 한다구? 나가, 어서들 나가라구. 난 더는 못견디겠어.〉

나는 아침밥두 안먹구 이불을 꼭 뒤집어쓴채 침대에 곤드라졌다가 해낮이 되어서야 부시시 깨여났다. 〈웅웅...〉 하늬바람은 제법 문풍지를 울리고 전선줄을 흔들면서 우렁찬 노래를 부르는게 아니겠니? 합숙식모가 밥을 가져다 원탁우에 놓고 나가더라. 그때에야 나는 자기가 돌이킬수 없는 큰 실책을 범했다는걸 느꼈다. 지금이야 수령님의 배려루 작업반마다 수십대의 소형 수직양수기를 놓구 스위치만 넣으면 잔물을 눈깜짝할새에 퍼چه끼지만 그때야 어디 그랬니? 너무 〈농민영웅〉이라는 영화를 보았으니 알겠지만 거기에서 해자의 물을 수차루 푸는걸 보았겠지? 비온 이틀날이면 염판에서두 수차에다 장대기를 켜서 메구 다니며 해자를 차있는 소금물을 퍼내군했다.

현재는 소금관마다 타일을 깔아놔서 아무일두 없지만 그때는 소금거두는 판이 연자돌루 다진 개흙판이었다. 비온 이틀날 해퍼지기전에 소금물을 제때에 퍼내지 못하면 염판이 거북등처럼 갈라지면서 흙이 부슬부슬해진다. 이걸 소금발사람들은 염판이 탄다구 말한다. 그렇게 되면 큰 야단이다. 타진 염판에 소금물을 대면 바닥흙이 죽처럼 후룩 후룩해진다. 그러니 죽탕속에서 소금을 거뒀내야 만하거든.

그런데 나는 하늬바람이 왕왕 불어치는데 소금이 죽이 되겠으면 되구 누룽지가 되겠으면 되구 될대로 되라는듯이 침대에 쓰러져 자반뒤지기를 하고있었거든.

이날밤 늦어서 치화아주머니랑 의성이머니, 우치녀아주머니들이 국수를 말아가지고 합숙에 찾아 오지 않았겠니. 〈어서 좀 들랴요. 이런 일을 처음 해보니 오죽이나 힘들겠이여〉 〈원 저런 입술이 다 터지구 피가 졌구만.〉

〈빨리 좀 들어. 오늘 저녁에두 소금이 많이 났어. 저그니가 없으니깐 어찌나두 섭섭하던지〉

그들의 진정에 나는 눈굽이 화끈해났다. 불행한 녀인들, 그래도 그들은 내가 맥을 놓을가봐 애들한테 대수간 먹을걸 들려주구는 약속이나 한듯이 합숙호실에 문안을 오지 않았겠니.

아들딸 오뉘를 데리고 혼자사는 치화아주머니는 더 말할것 없고 의섭어머니두 약한 몸으루 아들형제에 딸형제를 데리고 사는데 남편은 미국놈들의 폭격에 폭사했다고 한다.

우치녀아주머니두 그렇다. 결혼하여 아들하나를 낳고 단란하게 살다가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때 남편이 죽자 시삼촌을 따라 남동에 와서 로동을 하는 몸이다. 그러나 얼마나 강인하고 아름다

운 녀인들이냐, 나는 몇달동안 같이 일해왔지만 그들이 손땀을 놓구 주저앉는걸 보지 못했다. 때로 남모르게 한숨을 내쉬며 파부살이 푸념을 할때가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군말없이 비가 온다고 하면 꼭두새벽이라도 염판으로 달려나와 비설것이를 했고 이렇게 종일 일에 지친 몸들이어도 합숙호실에 꼬꾸라진 나를 부추겨주려고 황황히 찾아와 힘이 될만한 말들을 해주는게 아니겠니?

이때 나는 불현듯 평양에서 나를 바래워주면서 류아저씨가 들려주던 말이 새삼스레 돌이켜지더구나.

〈나는 네가 이번에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혁명가의 아들이라는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때 나는 비로소 본연의 자기를 되찾을수 있었다. 더는 그렇게 남의 부축임을 받으며 마치 못해 끌려다니는 신세를 지속시킬수는 없었다. 나도 무엇인가 한없이 근면하고 성실한 그 녀인들을 도와주고싶었다. 그걸에 내가 처음으로 시작한 일은 자그마한 앓은뱅이책상을 하나 짜가지고 우치녀아주머니네 집으로 찾아간 일이였다.

〈아주머니, 오늘부터 나하구 인민학교공부를 합시다.〉

그 아주머니는 우리 말도 겨우 뜯어보고있었다.

머리가 굳어진 사람에게 글눈을 띄워주기란 쉽지 않았다. 너무도 안타까와 하던 일을 집어던지고싶은 생각이 하루저녁에도 몇번씩 들군했다. 그러나 나는 끝내 우치녀아주머니가 〈정치지식〉이며 〈로동자잡지〉를 팔팔 읽을수 있게 만들고야 말았다.

소문이 나자 눅섬바닥에서 글눈이 밝지 못한 합숙식모아주머니며 이웃작업반 로친네들이 우치녀아주머니네 집에 모여들었다. 아마 이때 창문밑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이든 녀인들을 앓혀놓구 참을성있게 우리 말이며 산수를 가르치는 이 광경을 넌지시 들여다보았다면 자못 불만했을것이다.

실제로 우치녀아주머니네 창밑으로 난 길로 지나가던 사람들중에서 나의 소행에 남다른 관심을 돌리던 한 일군이 있었다.

그는 한쪽눈이 좀 별스럽게 생긴 장치세란 사람이었다. 제염소양성지도원사업을 맡아보면서 사무세포위원장을 했는데 못사람들에게는 까다롭고 말쑥한 일군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얼마 안있어 작업반직맹초급단체위원장으로 선거된 나는 강선의 진응원천리마작업반과 평양제사공장 길확실천리마작업반, 리현리 리신자붉은선동원의 모범을 따라 작업반을 천리마작업반쟁취운동에 결기하도록 했다. 이듬해 여름에는 우리 작업반이 제염소적으로 선참(군적으로는 맨처음 그물공장 청년작업반이 천리마작업반을 쟁취했고 두번째로 우리 작업반이 천리마작업반이

되었다.) 천리마작업반의 영예를 지니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신문에 난 대학생모집요강을 들고 양성지도원을 찾아가 함흥화학공대를 통신으로 다니고싶다는 의향을 표시했다. 한데 그가 얼마나 나를 반색하며 맞아주었겠니. 남몰래 당이 하자고 하는 일을 해낸 좋은 동무라면서 훌륭한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니. 내 수험번호가 삼천몇백번쯤 되었던것 같다. 구름처럼 모여든 수험생들속에 끼여 입학시험을 치르게 된 나는 나같은 얼뜨기가 시험에 합격하리라는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두 나한테 함흥화학공대 제염공학부에 대학통신으로 입학했다는 통지서가 날아들지 않았겠니.

생소한 고장에서의 몸매 젖지 않은 제염로동은 수월치 않았지만 생활은 나에게 참으로 많은것을 가르쳐주었다. 힘겨운 로동속에서 인생의 한 목표를 가지게 되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하루일을 끝마치고 합숙으로 들어오면 밥짓도록 책상앞에 앉아 대학에서 과제로 준 필독문헌들을 읽었으며 검열해답서를 작성하여 대몽한 편지를 대학 통신교무부로 보내곤했다.

남들처럼 새로 나온 영화를 보러 문화회관에도 자주 갈수 없었고 출추려 무도회장에도 갈새가 없었지만 생활은 벌써 그전처럼 무뎡하고 막연한 그런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자주 애수에 잠겨 흐트란 눈길로 지나는 생활을 더듬어볼 때면 자신이 부당한 처사에 의하여 부당한 고생을 당하고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그때 아버지의 친구가 조금만 힘써 주었더라면 내가 이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남들처럼 살아갈수 있었으리란 막연한 기대를 버릴수가 없었다. 이러한 심리는 내가 일하면서 화학공대를 마치고 제염공학기사가 된뒤에도 좀체로 가슴속에서 가셔지지 않았다.

정력아, 내가 당의 신임에 의하여 한개 염전의 지배인으로 사업하게 되고 총국장의 중책까지 지게 된 오늘에 와서야 나는 자신이 소금밭에서 10년 동안이나 제염공으로 일한것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것이였는가를 옳바로 평가할수 있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가끔 사람들로부터 《제염공총국장》이라는 말을 듣곤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의 심장을 잘 알아주는 지도일군이라는 뜻인것 같다. 로동자, 농민의 나라인 우리 나라에서 로동자들로부터 이런 평을 받는 일군처럼 버젓한 일군이 어데 있겠니.

솔직히 말하여 나에게 그러한 제염공생활이 없었다면 현재의 총국장사업이 무의미했으리란 생각조차 든다. 한때에는 그렇게도 나를 괴롭히고 천부당만부당하게만 여겨지던 그 생활이 오늘에는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나의 귀중한 밑천이

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와서야 나는 제염공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참된 충복이 되기 위해서는 제염공생활을 하는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든다. 나는 나 자신의 산 체험을 통하여 이것을 열렬히 주장한다.

너도 잘 알고있겠지만 조국에 개선하신 아버지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 어느날 광량만제염소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무연한 염전벌의 여기 저기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소금야적더미들을 바라보시면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한줌의 소금때문에 피를 흘리던 일을 회고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몸소 소금판을 찾으시여 참대곰배로 소금을 거두시고 두손으로 젖은 소금을 집어드시며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금입니다.》

그리고 제염공들이 사철 한지에서 일하느라 땀 흘렸다고 하시면서 솜동복이며 장갑과 장화를 친히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단다.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참인간답게 성장하는 수업과정은 책이나 학교 교육과 같은것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겠지만 그중에서도 결정적인것은 인간이 실생활을 통하여 심장으로 체득하는 진리일것이다. 생각해보아라. 고난의 행군을 하시며 마지막 한줌의 소금마저 떨어져 졸라병에 걸린 대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갖은 고생을 다하신 우리 수령님이 아니시고야 어찌 한줌의 소금을 손수 거두어드시고 그것을 금이라고 말씀하실수 있겠니,

나는 말로써 만사가 다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네가 내 편지를 받고 그 즉석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탄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할수는 없구나! 그러나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써놓고도 너에게 하고싶은 얘기의 반에 반도 하지 못한듯만 싶은 아쉬운 감정에 잠겨있는 이 아버지의 심정만은 리해해주시라고 믿는다. 수고해라.

※나 역시 네가 여느 로동자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제염공구실을 제대로 할 때까지는 너의 부친이 무슨 직책에 있다는것을 사람들이 몰랐으면 한다. 그래서 네 어머니의 주소를 빌어 이 편지를 보낸다. ...》

석준은 시뻘해서 아래목에 앉아 새로 나온 소설책을 뒤적이고있는 안해에게 아들에게 보내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내밀며 말했다.

《당신두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더 써넣어서 래일 아침 출근하는길에 부쳐주요.》

6

그러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부칠 필요가 없었다.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에 모포를 펴는데 바깥문 여는 소리가 나는것 같더니 복도로 달려나간 안해의 나직한 부르짖음소리가 울리였다.

《아니 네가 어떻게.》

《돌아왔지요.》

기여드는 음성으로 대꾸하는것은 틀림없이 정택이의 목소리였다. 흠칠 놀란 석준은 저도 모르게 미닫이문을 열고 아래방으로 내려갔다. 사이문이 비그시 열리면서 정택이 고개를 푹 숙이고 방으로 들어서는것이였다. 아들의 트렁크를 들고 따라들어온 성희는 겁에 질린 눈초리로 석준을 바라보았다. 허둥거리는 그의 눈에는 제발 성을 내지 말아달라는 절절한 애원의 빛이 얼른거리고 있었다. 여보, 잘났건 못났건 피를 나눠준 내 새끼가 아니냐요. 어찌했어요. 큰 맘먹구 받아주자요. 예?! 애절한 그의 속삭임이 웅웅 고막을 두드리는것 같았다. 손맥이 탁 풀려 말을 걸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선채로 잠자코 아들을 내려다보던 그는 통명스레 물었다.

《도망쳐 왔느냐?》

《도망은 왜요? 보내줘서 왔어요. 작업반장학교에...》

정택이는 말꼬리를 흐리마리해버렸다. 아들 역시 달포만에 만나는 부친에게 첫마디부터 반발하는투로 대답하려고는 생각지 않았던 모양이다. 허나 그가 이 자리에서 곰살궂게 군다고 석준의 마음이 너누룩해질수 있었겠는가.

《앉아라.》

역이 막혀 숨조차 내쉬기 가뻔지만 석준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먼저 앉았다. 뒤따라 털썩 문지방앞에 주저앉은 정택은 턱을 쳐들긴 했으나

부친과 눈길을 마주칠가봐 두려운듯 몸을 반쯤 돌리고 방구석쪽을 노려보고있었다. 미루어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었다. 기술부국장이 회의를 마치고 내려가는 안병모에게 총국장아들이 남동에 배치되어가니 잘 돌봐달라고 슬쩍 귀뜸을 해주었으리라. 그래도 병모 그 사람은 맏아들을 자기한테는 일언반구도 없이 제염소로동자로 내려보낸 총국장의 심중을 깊이헤아리고 3구 1호제염공으로 배치했던것이다. 한데 일은 어떻게 번져졌는가. 채석준은 아무리 큰 마음을 먹고 관용을 베풀려고 해도 도저히 가만있을수가 없었다.

《그래 넌 끝내 그만한 일조차 감당해낼수 없었던 말이나?》

말소리를 죽이려고 모지름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엄청나게 높았다.

《난 내절루 그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게 아니예요! 난 한사코 그 일을 계속 하겠다고 했었어요.》

항의하듯이 뇌이였으나 정택의 어조에는 맥이 없었다.

《그래서 마지못해 승낙했던 말이지. 그렇다구 하자. 한데 넌 그 학교에 어떤 사람이 추천되어올라오는지 알기나 하느냐?》

《...》

《왜 대답을 못하느냐?》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내다보는 정택이는 눈살

이 콧끗하여 거친 숨을 내쉬기만 했다.

《그 학교는 다년간 소금밭에서 로동을 한 사람들중에서 생산경험두 있고 통솔력도 있는 견실한 젊은이들만을 불러다가 한 1년씩 공부를 시켜 작업반장으루 보내내는곳이다. 난 전번기에 올라온 학생명단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지 2년밖에 안된 청년이 끼워있기에 좀더 로동속에서 단련시킨 다음에 보내라고 그어버렸다. 그게 누구의 아들이였는지 아니? 후에 알고보니 그 젊은이는 예전에 나를 대학통신에 가도록 추천서를 써준 남동제염소의 이전 양성지도원 장치세란 사람의 아들이였다. 한데 그 사람은 올봄에 내 거기에 갔을 때 자기집에 청하여 저녁을 대접하면서 내가 총국장이 된걸 제일처럼 기뻐하면서 아들 문제는 한마디두 비치지 않지 않겠니.》

한데 이 채석준총국장이란 사람은 제 아들이 염판에 나가 달포도 되기전에 작업반장학교루 끌어 올린단 말이지. 그 달포동안조차 너는 어떻게 일했니? 너는 더운 물에도 손이 시려하는 부엌데기처럼 마지못해 한발은 방안에 들여놓았지만 다른 한발은 문밖에서 땀냄을 하지 않고 염전일을 했던말이다. 그꼴을 차마 눈뜨고 볼수 없어 안병모지배인이랑 나의 옛작업반원들이 이 총국장의 체면을 생각해서 전례없는 일이지만 너를 작업반장학교에 보내준것이다. 아니, 반장학교가 아니라 쓸모없는 자식이라구 애비의 품으루 되돌려보낸것이란 말이다.

내 아무리 철면피하기로서니 무슨 낮으루 남동제염소에 지도사업을 나가며 나의 생활의 스승들인 옛작업반원들과 장치세지도원을 만날수 있겠니?》

남동은 예서 천여리나 떨어져있는곳이다. 그러나 채석준은 눈앞에서 그들이 자기를 지켜보고있기라도 한듯 확 달아오른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물은 이미 었질러진셈이니 무슨 말로 성실한 사람들에게 속죄를 애걸해볼수 있겠는가.

그는 번열에 타는 가슴을 식혀보려는듯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행길에는 서둘지 않고 천천히 오가는 사람들이 두꺼비 떼처럼 어디러없이 고잠지군하였다. 다만

불빛이 환한 집집의 창문들에서 깊은 명상에 잠기기라도 한듯 은은한 불빛이 고요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불현듯 그는 전자음악소리가 흘러나오는

한 창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기술부국장네 집이였다. 석준은 숙인 머리를 알릴듯말듯 흔들면서 그 자리를 떠버렸다. 부국장네 막내아들은 아무 소리없이 일을 다니고있다. 변함없이 조용히 몇해 지내보다 실속이 있다고 여긴 회계원양성소나 재단사학교같은데로 뽑아올릴수도 있을것이다. 령리한 아버지께 그처럼 빈틈없는 아들이니까, 총국장네 아들도 소금밭에서 빼내여 학교로 끌어올렸는데 무슨 걱정이라.

언젠가 쓰련의 저명한 작가이며 교육자인 마까렌코가 쓴 《부모를 위한 책》을 본 기억이 났다.

거기에는 외독자를 키우는 가정에서 산생될수 있는 지나친 사랑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신중하게 이르기를 《당신의 외아들을 구원하려거든 꼭 남의 아이를 하나 데려다 기르시오. 그러되 그 아이에게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 달려온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데려다 기르시오.》라고 했다.

십분 이해되는 말이긴 하나 우리의 생활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것은 아니다. 그 교육자는 외독자일 때에는 가정에서 《독재자》로 될수 있지만 둘일 경우에는 벌써 집단을 이루는 조건에서 그런 기형적인 환경에서 구출될수 있다고 보았던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거의 모든 자녀들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는 조건에서 사랑을 독차지할 기회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부모가 일정한 지위에 있는 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결코 간과할수 없는 교양적 환경에 처해있다고 볼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석준은 이점을 전혀 념두에 두지 않았으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부모가 성실하고 참되게 살기만하면 자식들은 등탈없이 그것을 고스란히 따를것이라고만 소박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자신이 남다른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너무도 단순하게 여기고 속단해버린 그때문에 일이 생겼던것이다. 그는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녔으며 어떤 때에는 출근할 때에 아들이 달려와 타고가겠다고 떼질을 쓰면 너그럽게 응낙하기도 했다. 몇해전에 장모가 사망했을 때에는 온 가족이 그 승용차를 타고 처가집으로 갔었다. 사위를 끔찍이도 귀하게 여긴 고인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에 잠긴 석준은 그날이 철없는 정택이에겐 명절같이 기쁜날이었으며, 외가집농촌마을에 당도해서는 오구구 모여든 농장 아이들이 보란듯이 제가 총국장이거나 한것처럼 승용차돌레를 틀스럽게 뺨돌아치며 우쭐대던 날이었다는데 대해서 주의를 돌릴수가 없었다. 그가 말아들의 성장 변화과정을 바로 보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여 제때에 바로잡지 못한 일은 이뿐이 아니었다.

이런 일을 당하고보니 새롭게 돌이켜지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인민학교 전기간 10 점최우등을 하던 정택이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오자 갑자기 우등생으로 떨어졌다. 담임선생이 아들애의 성적을 편지로 집에 통보해온것을 보고야 그렇다는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교육수준이 대단히 높아져 중학교 2학년에서만도 전에 3, 4학년에서 배워주던 방정식이며 안갈기식을 가르쳐주고있

다.

인식의 순차성을 무시하고 사고의 비약을 요구하는 수학, 물리 문제들이 허다하다.

수학교과서를 펼쳐놓고 눈에 띄는 몇가지 문제를 물어보았더니 엉터리였다. 아이의 학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수물학습의 기초에 만회할수 없는 허점이 나타나리란것을 간파한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퇴근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하는일 없이 사무실에 앉아있으면서 아래일군들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던 버릇을 걷어치우고 제때에 퇴근하여 아들애의 복습을 지도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불행은 항상 왕창같은데서 생각지 않던 데로부터 달려들었다. 그날 공교롭게도 광량만제염소 부지배인이 곁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아들의 성적통보서를 보게 되었다. 석준은 너무 한심하여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부지배인에게 이런 꼬락서니를 좀 보란듯이 웃목에 앉은 아들도 자극이 되라고 그것을 보여주었는데 어리무리한 부지배인은 남의 속내는 알지두 못하면서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군요. 아무려면 총국장의 아들이 달리 될수 없겠지요.》라고 하는것이였다.

도대체 그가 총국장아들다운데가 무엇이 있던 말인가? 그런데도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하는 부지배인도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멧적은 미소를 짓던 아들애의 모습이 더욱 가관이였다. 쑥스러운줄은 알면서도 추어주는 말을 응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것이다.

그때는 그것을 그저 스쳐버리고 말았는데 무슨 일이든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그의 태도가 결국은 무슨 일을 저질러놓았는가.

그러기에 책임적인 직책에 있는 적지 않은 간부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들딸들이 고등중학교를 마치면 곧장 상급학교에 보내지 않고 로동현장이나 인민군대에 내보내여 2~3년 생활시키다가 대학이나 전문학교시험을 치르도록 하고있다.

그런데 보라. 총국장이 파견장까지 떼여 아들을 소금밭에 내려보냈는데 아래에서는 현장에 내려보내여 일을 시키는척하다가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 작업반장학교에 공부시키려 올려보내지 않는가. 과연 여기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안된다, 가슴이 아프더라도 이를 묵인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는 내 자식 하나의 문제이기전에 간부들을 지켜보는 대중들을 기만우롱하고 우리 당이 세워놓은 사회적 공정성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용납할수 없는 범죄로 된다. 만약 내가 아들을 납득시킬수 없다면 나자신이라도 다시 옛 작업반으로 돌아가 한생을 제염공으로 사는 그들처럼 머리를 숙이고 소금을 내야 한다. 아직까지는 나에게 그렇게 할만한 힘이 있지 않은가.

인민의 신임을 저버린 총국장의 직무가 과연 누구에게 소용된단 말인가. 비장한 결심을 가다

들은 채석준은 침중한 기색이 가서지진 않았지만 한결 엄숙해진 얼굴로 집을 향해 걸어갔다.

7

방안으로 들어선 석준은 안해에게 저절로 눈길이 갔다. 쌍꺼핀 눈언저리가 벌거우리했다. 고개를 숙일사한 자세로 말없이 어둠이 내린 창문쪽을 바라보는 그의 동그스름한 고운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비껴있었다.

불을 켜 옷방에서는 이따금씩 의자 삐걱이는 소리가 났다. 석준은 자리를 펴고 누웠다. 불을 끈 고즈넉한 방안에는 벽시계가 쉬임없이 걸음발을 채고있는 소리만이 단조롭게 울리고있었다. 돌아누운 안해가 이불깃을 턱밑으로 끌어당기며 나직이 내쉬는 한숨소리가 가슴에 마쳐왔다.

밖은 차츰 흰해지고 은은한 달빛이 고요히 창문으로 흘러들었다. 가까운 농가에서 울려나오는 첫 닭의 울음소리에 이어 여기저기에서 울려나오는 닭의 울음소리가 사위를 흔들어놓고있었다.

옷방에서는 종이장 번지는 소리, 조심스런 기척소리가 몇지 않았다. 미닫이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한줄기의 날카로운 불빛이 굴곡진 이불우에 떨어져 어룡거리고있었다.

깜박 잠이 든 석준은 인기척을 느끼고 깨여났다. 《어머니.》정택이가 안해를 가볍게 흔들고있었다. 《왜 그러니, 자지 않고.》 짐짓 잠기어린 늘어진 안해의 목소리에 이어 한동안 숨막힐듯한 침묵이 흐르더니 꺼지는듯한 음성이 또박또박 울리었다.

《전 아침차루 떠나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겁에 질린 목소리,

《지배인동지가 저에게 작업반장학교에 가보지 않겠는가고 말을 비치긴 했지만 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시드라니 불쑥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실은 겨울내의랑 숨다우다직이랑 가지러 왔어요.》

《그게 정말이야?》

《예.》

《호오-》 하고 안해는 안도의 숨을 내신다이블 밖으로 손을 내밀어 말없이 차디찬 아들의 손을 잡은채 따뜻해질 때까지 놓지 않는것 같다. 석준의 눈가에 스르르 이슬이 맺혀 흘렀다. 목구멍을 꼭 메우는 뜨거운것을 꿀꺽 삼키었다...

《여보!》

조심스레 깨우는 안해의 목소리에 툇듯 눈을 떴다. 창문이 휘영하다. 석준은 황급히 일어나있었다.

《애가 아침차루 떠나겠대요.》

피로와 시름이 엷어진 갈린 음성이다.

《밤차루 왔다가 갑자기 어데루 간단 말이요?》

자못 놀라는 기색으로 물었다.

《어디긴 어데겠어요 남동으로...》

안해는 말꼬리를 얼버무린다. 석준은 응대하지

않고 어슴푸레한 새벽빛에 우렁이 드러나는 안해의 얼굴을 보기만했다.

《아버지!》

아들은 여전히 석준을 마주보기 두려워하며 옷목에 서있었다.

《무슨 소릴 하느냐?》

런민의 정이 아린 눈길로 이윽도록 아들을 올려다보던 석준은 힘주어 말했다.

《간다구 해두 이왕 왔던김에 이삼일 놀다가 가려무나.》

《안요.》

아들애는 맺고 끊는 어조로 명확히 뇌이고는 트렁크를 집어드는것이였다.

《인다우.》

석준은 숨뚱저고리를 입고 트렁크를 당겨쥐며 먼저 밖으로 나섰다. 잠시후 뒤따라나온 정택이는 빠른 걸음으로 마당을 벗어났다. 석준은 뒤를 돌아보았다. 문설주에 기대어 선 안해는 쳐들던 손을 허공에 멈춘채 앞을 내다보고있었다. 그의 눈길은 석준의 어깨를 스쳐 희연히 트이는 푸름한 하늘가를 더듬고있었다.

저만침 앞선 아들을 따라잡으려는듯 석준은 힘있게 걸음을 내짚었다.

8

정택은 다시 남동으로 내려간후 석달이 지나도록 소식 한장 보내오지 않았다. 아들한테서 그 무슨 기별이 있지 않을까 하여 매일같이 기다리는 안해를 보기도 딱했지만 우선 석준자신이 더는 참아낼수가 없었다.

염전들중에서 제일 북쪽에 위치하고있는 남동에서 총국적으로 선참 2월 16일을 계기로 헛소금을 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간겨울에 병모네가 얼음밑으로 잔물을 뽑아내어 계단식으로 열거여 잔물 만들기를 해낸다고 하더니 새해에는 이른봄부터 장훈이를 불러대는것이였다.

남동과의 지령전화가 끝나가자 석준은 그 전화를 끊지 말고 자기방에 련결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신호종소리가 울렸다. 수화기를 집어들자 저쪽에서 귀에 익은 지령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배인이 있으면 바꾸어달라고 당부했다. 경쾌한 대꾸에 이어 수화기에서는 가벼운 웅소리만이 났다. 이어 서글서글하면서도 담담한 병모지배인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채석준이요. 난 거기 보낸 아들에때문에 전화하오. 어드레스 이젠 그 애가?》

《우리 제염소에 총국장동지의 아들이 와있단 말인가요?》

능청스런 대꾸다. 하긴 이런 빈정거림을 듣게도 뻘었다. 병모자신이 그의 아들이 남동으로 가는 걸 녀두에 두고 부탁할것이 없느냐구 물을 때 그는 아닌보살하고 딱 잡아땀지. 가서 이듬해 생산준비나 잘하라구, 눈감구 아옹하는격이 아니였을

가. 아무러면 그의 아들이 남동으로 가는걸 병모 지배인이 모를수가 없었거든. 허심하게 툭 터놓고 친자식처럼 엄하게 신칙해달라고 부탁할걸 그랬는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든 석준은 허거프게 웃으며 말했다.

《여보게. 병모, 난 지금 자네하구 통말할 겨를이 없네. 그 애때문에 내 안해는 속이 다 타버렸네.》

《충국장동지.》

《이런 때 그 무슨 똥판지같이 충국장소린가. 그저 석준이라고 부르게. 방금 내 공연히 안해를 거들었네만 내 심정도 그와 마찬가지로.》

채석준은 속을 툭 터놓았다.

《알만합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하실게지요. 저도 아버지걸요. 만아들이 금년에 중학을 마치고 댁섬직장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지요.》

《그랬됐구만. 댁섬직장이면 현장합숙에 나가 있을게 아닌가》

《그저 남들처럼 일하지요. 정력이두 일을 하고 있습니다. 3구 1호에서 말입니다. 생각나시겠지요?》

《생각나구말구. 어찌 그 생활을 잊을수가 있겠나.》

《잊을수가 없지요. 재미있는건 며칠전에 정력이가 로동과에 찾아와서 종업원카드의 아버지직업란에 귀성제염소 로동자라구 써넣었던걸 지우구 충국장이라고 사실대루 밝혔다는점입니다.》

《충국장의 아들이라구?》

《예, 어제저녁 작업반장회의 뒤끝에 김중화반장이 나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정력이가 자기한테 찾아와서두 제가 채석준의 아들이라구 말하더랍니다.》

《흠 알만하네. 난 내 아들을 남동제염소에 맡겼네...》

전화가 끝난지도 한참이 되었지만 석준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수화기를 손에 든채 말없이 앉아있었다.

잇달아 정력이가 아버지앞으로 편지를 보내어왔다. 석준이 퇴근하여 집에 들어서자 안해가 그 편지를 내놓았다. 안해는 점심때 받은 편지를 뜯어 보지 않고 간수했다가 내놓는것이였다.

《이젠 아버지한테만 편지를 보내는군요.》

안해의 말이였다. 그리고는 곁에 바투 다가와야 초조한 눈길로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내길 기다리였다. 석준은 안해와 함께 편지를 읽었다.

《...아버지,

저를 너그럽게 이해해주십시오. 성미가 못돼먹어서 그렇지 전 아버지를 그 누구보다도 존경해요. 남동에 와서도 어떤 경우에조차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일만은 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것만은 마음을 놓으셔도 될거예요.

전번에 집에 갔다가 아버지가 저한테 보내려고

써놓으신 편지를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말로써 만사가 다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일생동안 아버지가 당부하신 그 생활의 교훈을 명심하리라 굳게 속다짐 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곧 실천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다. 정작 타고장에 와서 생소한 일에 부닥치고보니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가 하는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버지가 놀라실줄 압니다. 그러나 실지로 있는 사실을 숨기는것이 량심적일수는 없지 않아요.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생활하려고 해도 어떤날 저녁에는 까닭없이 마음이 울적하여 호실에 혼자앉아 서정적인 저음가요만을 기타로 무겁게 타군했지요. 그럴 때면 녀성호실에서 생활하는 애된 기상관측소 무전수처녀가 눈같이 흰 나이론적삼에 꽃치마를 입고 찾아오군했습니다. 그 처녀는 침대모서리에 조심스레 앉으며 묻군했지요.

《여기 좀 앉아있어두 돼요?》 그리고는 방긋 웃는것이였습니다. 얼마나 다정하고 명랑한 웃음이였겠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정서가 짙은 곡을 탔지요. 이어 처녀가 요구하는 곡목을 타군했습니다. 그럴 때면 처녀는 부드러운 목청으로 조용조용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처녀는 무척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군소재지에 있는 그의 집에는 커다란 전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나라 명곡을 다 들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동무는 영화음악을 좋아하는것 같군요. 난 정음악을 좋아해요...》

처녀는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귀에 레시바를 끼고 시간맞춰 고속도로 송신해오는 예보자료를 받아서 기록하는데 뜻도 의미도 없는 메마른 수자를 끝없이 적고 또 적자니 생활이 무미건조하다는것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관측원이며 예보원들은 모두 무뚝뚝한 아바이들이여서 말동무조차 없다는것이였습니다. 나는 그와 문화회관에 영화구경도 같이가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군했지요.

어느 휴일날에는 그 동무와 함께 군소재지에 있는 그의 집에 놀러가기도 했습니다. 샅샅하고 인정있는 처녀의 어머니는 제가 객지에 나와서 고생한다고 반갑게 맞아주군했습니다.

《정력아, 너 예보소무전수처녀하고 친했니?》

어느새 박치화어머니가 알고 묻는것이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동무던?》

치화어머니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원참 어머니두.》

나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자 치화

어머니는 정색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생활을 넘치지 넘겨다보느라니 오래전에 도시에 있는 큰 공장에서 일하다가 우리 작업반에 와서 일하던 한 총각생각이 나는구나. 그 총각두 일을 하다가는 자주 멍하니 산너머 먼 곳을 바라보겠지. 그리구 합숙에서 생활하던 염전중학교 녀선생을 짝사랑하지 않겠니, 녀선생은 그 총각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데말이다. 그후 언젠가는 그 녀선생한테 사랑을 고백한 모양이드라만 그만 퇴자를 맞았지. 쑥스러워두 하구 고민두 하드라만 이내 잊고말더구나.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는 모양이지?!〉

〈그 총각은 지금 어데 갔나요?〉

내가 다우쳐물자 치화어머니는 생각에 잠겨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홀룡한 일군이 됐지. 어느 총국에서 책임적인 사업을 하는가보더라.〉

나는 그 총각이 다름아닌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다는 걸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걸 용서해주십시오. 저는 치화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때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보며 어떻게 되어 제가 이곳에 와서 예보소치녀를 첫째가는 동무로 사귀게 됐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비록 몸은 소금밭에 잠그고있고 여느사람들과 섞여 일도 같이하고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부모의 슬하에서 애무를 받던 그때를 잊지 못해하고있었거든요. 사내대장부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이랬어요. 이러한 심정은 난생처음 집을 떠나있게 되면 그 누구나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감성적이고 예민한 기질을 타고난

제게는 그런 심리상태가 더욱 오래 계속된 것 같아요. 이제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은 아직 숭고한 의미를 담은 첫사랑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보다는 정들지 않은 낯선 새 생활속에서 산산이 부서지고있던 나약한 심정의 한조박을 저도 모르게 그 처녀에게 의탁해왔던 것 같습니다.

얼마후 저는 합숙에서 집을 꾸러가지고 나와 소금밭한가운데 있는 작업반휴게실에서 자취를 하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원들이 모두 퇴근한 다음에는 저 혼자 남아 잠간사이에 밥을 해먹고 조용한 휴게실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자기전에는 밖에 나가 소금야적터이며 염판을 한바퀴 빙 돌아 보지요. 요새 저한테는 〈염부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소금밭에는 그전부터 작업반마다 살림집이 한 채씩 있어가지고 〈염부장〉이 그 집에서 살림살이를 하며 밤낮으로 염판관리를 했답니다.

이른봄에 전 독감에 걸렸었어요. 고열이 나면서 정신없이 앓았지요. 그때 누가 저의 머리맡에 지켜앉아있었는지 아세요? 기화어머니와 우쳐녀

어머니였어요. 중화반장아바이는 집에서 계란을 한 꾸레미 가져다가 아무말없이 머리맡에 놔두고 나가더군요. 그분은 늘 그렇게 말이 없어요.

지난해에도 우리 작업반이 제염소적으로 제일 소금을 많이 냈지요. 반장아바이는 종일가야 말 몇마디 하는 법이라곤 없어요. 하지만 소금내는 물체는 어찌나두 환한지 혼자서 세뭇네뭇하면서 두 별루 일을 하는 것 같지 않게 척척 해내곤 해요.

아마 아버지가 이제 저를 보신다면 놀라실거예요. 상은 새까맣게 탔지만 집에 있을 때보다 키두 크구 몸두 났으니까요.

얼마전에야 저는 속으로 수태 바재이다가 중화반장아바이보구 제가 몇십년전에 이 작업반에서 일하던 채석준의 아들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화아바이는 씩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난 네가 우리 작업반에 처음 배치되었을 때부터 그렇다는 걸 알았노.〉

〈어떻게요?〉 제가 몰라서 물으니까 〈신통히두 네 모습이 젊었을 때 네 아버지의 모상을 닮았으니까.〉라고 하더군요. 같이 일하는 치화어머니두 그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총국장의 아들이라는 건 온 염전이 다 알고있었다. 그런데 네가 도망치듯이 집으로 달아나버리자 얼마나 실망했겠니. 우리 작업반이 다 무참한 창피를 당한 것 같았다. 그렇지만 상심하여 서로 마주볼 뿐 아무 말도 못했지. 그런데 네가 겨울내의랑 숨겨져 고리를 배낭에 가득 넣어가지고 와서 그간의 사연은 뻔한 일이었지만 월동차비를 해가지고 오느라고 잠간 집에 다녀왔다고 말하자 우리가 얼마나 눈물이 나도록 기뻐했는지 아니.〉

그런데 그때 제가 아주 작업반장학교루 올라와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해도 모닥불을 들썩듯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몸둘바를 모르겠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더는 제 걱정을 마세요.》

그런데 어떻게 객지에 자식을 내놓은 부모가 전혀 자식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9

그때로부터 몇년이 지난 6월말 어느 날이었다. 채석준총국장은 모처럼 남동제염소에 내려갔다. 그는 승용차를 제염소 화학분공장마당에 세워놓고 작업복차림으로 낮익은 수로둑을 따라 한참 걸다가 공무직장앞을 지나 자그마한 나무다리를 건너서 3직장염전 한가운데로 뻗은 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감개무량한 심정을 금치 못하며 1 작업반 병관(염전작업반은 세계의 소금관을 가지고있는데 그것을 구분하기 좋게 갑관, 을관, 병관으로 부른다)으로 들어섰다. 제염공때 그가 말아보던 손때 묻은 염판이었다. 네모반듯한 염판에는 소금꽃이 하얗게 떠있었다. 간기가 보얗게 내뿜힌 두렁을

따라 앞으로 걸어나가던 그는 오뚝한 양수장결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안을 기웃이 들여다보니 널판자를 깔아놓은 자리에는 노전을 깔았는데 한쪽구석에는 개여놓은 보닐론모포가 한장 놓여 있었다. 지금도 밤에 비가 내릴 때에는 양수장에서 눈을 붙이며 비설것이를 하는 모양이다. 그 역시 비내리는 야밤삼경 저 나무침대에 누워 통신교재를 읽다가는 역수로에 고인 소금물을 해자에 퍼넣고는 또 저기에 걸터앉아 기타를 타며 그리운 사람들을 눈앞에 그려 보기도 했지. 눈에 띄는것마다 깊은 감회와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반원들은 물안개가 가물가물 피어오르는 저 옷쪽 짚물판에서 곰배질을 하며 물이끼를 거뭇내고 있었다.

석준은 잊지 못할 중화반장이며 치화아주머니, 우치너아주머니들을 한시바빠 만나고싶은 생각을 지그시 누르고 삭도바가지에 소금을 퍼담아 나르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옛생활을 한껏 맛보고 느낄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었다.

삽질도, 좁은 두령을 따라 소금길은 나무통을 밀고가는것도 손에 설긴 했지만 그전날의 숨씨를 잊지는 않았다. 한두번 달라보고는 제법 와르릉 소리를 내며 삭도통을 밀고 내달렸다. 숨이 가빠오르고 이마에서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바이!》

옆에서 쟁쟁하게 울리는 처녀의 목소리에 석준은 삭도통에서 손을 떼고 멈추어섰다. 탄력있는 늘씬한 몸매에 얼굴이 감실감실한 처녀가 이쪽을 주의깊은 눈초리로 바라보고있었다.

《누구시나요? 왜 남의 소금판에 맘대루 들어와서 소금을 날라요?》

처녀는 량손을 허리에 얹고 주인행세를 하려고 든다.

《지나가든 길손이웨다. 소금이 하두많이 쌓였길래 날라주고싶은 생각이 나서 일손을 잡았다우. 좀 도와주는것두 안되겠소?》

《안되긴 왜 안되겠어요. 그런데 아바이 일손이 서툴구만요. 그렇게 넘치게 담으면 소금을 흘리게 돼요.》

처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쾌활하게 말하고는 가르르 웃었다. 그러나 석준은 웃지 않았다. 이윽고 그는 정색하고 물었다.

《처녀동무, 한데 어째서 김중화반장동무가 보이지 않소?》

《우리 반장아바이를 잘 아시나요?》

처녀는 두눈을 반짝이였다.

《공훈제염공아바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데 있겠다구. 그리구 박치화아주머니랑 우치너아주머니두 눈에 띄지 않는구만.》

재미있는 아바이를 만났다는듯 두눈을 삼박이던 처녀는 안색을 흐리우며 말했다.

《반장아바이는 전로부터 앓던 기관지염이 도져서 치료를 받으려구 료양소에 갔어요. 치화아머니랑 우치너아머니는 아주 년로보장으루 넘어갔구요.》

《흠 그렇게 되였는가.》

석준은 정다운 모습들을 옛일터에서 만나보지 못하는것이 서운하기 그지없었다. 한데 어째서 그렇다는걸 편지로라도 알려주지 못하는가. 녀석 두 원 참, 아들을 나무래보기도 했다. 그런데 그럴 마음만 있었더라면야 자기자신인들 왜 알아보지 못했던 말인가. 소금생산을 위하여 거치른 소금밭에서 한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위하여 당과 국가가 기울여주는 배려가 좀더 제때에 미치도록 도와줄수도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김중화반장이 군료양소에 가있다면 돌아가는 길에 들러서 병문안이라도 하 고 가자, 치화아주머니며 우치너아주머니들의 집에 들러서 《옛이야기》도 해야지. 다심한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언지시 말머리를 돌렸다.

《그럼 그동안 반장사업은 누가 보나?》

《채정택이라는 젊은 동무가요.》

웬일인지 처녀는 귀밑을 살짝 붉혔다.

《어떤 동문지 잠시동안이라도 제염소적으로 소금 내는데서 관록있는 유명한 작업반을 제대루 이끌어 나갈수 있을가.》

석준은 고개를 기웃 거렸다. 《글쎄요》 처녀는 불현듯 장난긋은 총각에같은 표정을 지었다가 입가에 미소를 띠우면서 속을 드러내보였다.

《대학생제염공인데 왜 못해내겠나요. 너무 일욕심을 부려서 야단인걸요.》

처녀는 무엇인가 더 말하고싶지만 지나가다 우연히 들렸다고 하는 길손에게 수다스럽게 말을 하는것 같애선지 곧 입을 다물어버렸다. 석준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이 직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일하면서 함흥화학공대 통신수업을 하고있는 정택을 대학생제염공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였다.

이때 짚물판에서 높직한 배수로뚝을 따라 한 청년이 성큼성큼 이쪽으로 걸어왔다. 석준은 그가 정택이라는것을 멀찍이서도 인차 알아보았다.

양수장을 에돌아 가까이 다가선 그를 띠여보자 처녀는 쟁쟁한 목소리로 《〈반장〉 동무, 이 아바이가 말이예요...》 하고 웨치다가 말을 툇 끊으며 두사람을 번갈아보았다.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기미를 눈치챈듯싶었다.

《안녕하셔어요.》

어른이 다 된 사나이답게 의젓한 몸가짐을 한 정택은 북받치는 기쁨을 애써 누르며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그동안 잘 있었니.》

자못 대견한 아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응대하는 석준의 목소리도 이름할수 없는 감동에 젖어있었다. 그들을 예민한 눈초리로 바

라보던 처녀의 눈동자에 환희의 빛이 반짝였다. 그는 석준의 두손을 와락 부여잡고 흔들었다.

《우리 정택동무의 아버지시지요?! 야 난 그런 걸 총국장동지두 정말 엉뚱하시던데요. <내 길가던 나그네웨다> 라구 하시면서...》

《허허 그런데 이 처녀의 말이 네가 림시반장을 하면서 벌써부터 판로주의를 부린다구 의견이 대단하더구나.》

《어마나 아바인 정말.》

처녀는 얼굴을 확 붉혔다. 두눈을 습벅이며 그 모양을 지그시 바라보던 정택은 희뽀게 웅수했다.

《의견이 많을거예요. 냅다내미니까요.》

그리고는 호탕하게 웃었다. 처녀는 정택이와 눈길을 마주치며 명랑하게 웃었다.

《어서 말씀들 하세요. 전 소금관 댢물을 주어야겠어요.》

처녀는 석준에게 상냥한 미소를 보내고는 가볍고 탄력있는 걸음걸이로 자리를 뜨는것이였다. 싱싱한 젊음이 넘쳐나는 몸가짐도 그렇지만 저쪽 염판으로 건너가 물고망치를 켜싸게 두드리며 춤추듯이 돌아가는 처녀의 물동적인 동작은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시원스러운가. 그러나 그 처녀의 뒤모습을 류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을 엿보는것이 더욱 마음흐뭇하였다.

오래간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은 작업반소금관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해자쪽에 나란히 앉았다.

《힘들지 않느냐?》

《괜찮아요. 시간이 모자라는게 안타까울뿐이에요.》

《그래.》

대꾸는 하지만 두눈은 잠시도 아들의 자태에서 땔수가 없었다.

《무엇이 그리도 바쁘냐?》

《대학공부도 그렇지만 하고싶은 일이 많아요. 최성기나 지나면 우선 물관리를 자동화하려고 그래요. 제염연구소에도 알아봤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정택은 흥분에 겨워 어머니와 누이의 안부를 묻기도전에 염전로동을 자동화하고 정당 300 톤의 소금을 생산하려는 환상같은 자기의 구상을 터놓는것이였다. 석준은 연방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아들의 말을 새겨듣노라면 그 애는 아주 남동땅에 뿌리를 박고 살면서 일을 해댈 잡도리다.

《넌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냐?》

석준은 의아하여 자기를 뵈히 쳐다보는 아들에게서 응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저으기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막내까지 군대에 나가고보니 어머니가 집이 텅 빈것 같다구 하면서 네 소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단다.》

안해의 말을 거들긴 했으나 석준의 마음 또한 그와 별반 다름이 없었다. 그의 머리카락도 어느새 희스희스해지기 시작했다. 이왕이면 딸딸 정심이라도 가까이에 두고 자주 오가며 지내고싶었다. 그런데 마침 딸애가 중학교동창생인 제염연구소 연구사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길래 잘되였다 싶어 성례를 치르어주고 귀성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출가 외인이라고 그 애에게는 이제 분명한 자기의 생활이 있지 않는가.

고개를 꼭 숙이고 한동안 묵묵히 앉아있던 정택은련민의 정이 어린 뜨거운 눈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알겠어요. 그러나 썩 후날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기 사람들과 오래동안 같이 일하고싶어요. 정이 들었다 할가, 아니, 그것만이 아닌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채석준은 한순간 아쉬움에 가슴이 알찌근했다.

그러나 천천히 고개를 든 그의 굴곡진 낮에는 홍조가 확 피여났다. 암 그래야 하구말구, 너는 기한부로 남동에 머물러있다가 때가 되면 아무 미련없이 돌아올 품팔이군이 아니라 당과 혁명을 위하여 여기에 자기의 뜨거운 심장을 바쳐왔지. 석준은 자기가 더는 아들과 헤어져있고싶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정작 아들이 이 생활을 버릴것을 원했다면 더없이 서글프고 분했으리라는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그는 그 어느때보다도 현현히 말했다.

《생각 잘했다. 난 네가 그럴줄 알았다. 이 생활을 풍요하게 가꿔야 하구말구. 하지만 금년엔 소금을 다 낸다음 휴가를 받구 집에 와있다 가거라. 그때면 아버지두 오래간만에 휴가를 받아 너 하구 같이 온탕에두 자주 드나들구 네 좋아하는 음악두 마음껏 감상하자구나. 아무리 일이 바빠두 아주 영 우리를 잊지 말아다우.》

《원 아버지두 걱정 마세요. 금년 겨울엔 휴가를 받구 집에 가서 얼음장을 까구 미꾸라지를 가득 잡아서 아버지 좋아하는 추어탕을 끓이자요. 추어탕은 남녘땅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잊지 않았구나.》

석준의 두눈에 뜨거운것이 번뜩이였다.

이날저녁 채석준은 아들과 함께 치화아주먼네 집에 찾아가 밤늦도록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숙으로 돌아와 아들의 호실에서 아들의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누운 부자간에는 참으로 할말이 많았다. ...

표창

박병주

사람들은 레사로운 생활속에서도 뜻밖에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있다.

나는 얼마전에 통강화강석광산을 찾아갔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일에서 큰몫을 담당하고있는 이곳 광부들의 생활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그날은 휴식날이었다.

광부들을 어서 빨리 만나고싶어하는 나의 마음을 대뜸 헤아린 광산 초급당비서동무는 마을의 한 혁신자가정으로 안내하였다.

오랜 연공으로 일해왔다는 그 집 주인은 반갑게 나를 맞아들였다.

취재수첩을 펼쳐들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나는 제일 밝고 깨끗한 벽 한편에 나란히 모신 다섯상의 큰 사진에 시선을 보내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사진들이었다.

《참, 연공아바인 대단한데요!》

나는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 다섯식구가 한날한시에 받아안은 영광의 표창이지요.》

그는 다섯상의 사진에 깃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해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완공된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렬사릉을 돌아보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에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못내 만족해하신데 대하여 매우 기뻐하시면서 당원돌격대원모두에게 기념사진을 촬영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이렇게 되어 연공인 아버지, 취사원으로 일하는 어머니, 박로공으로 일하는 만딸, 돌가공수들인 쌍둥이형제 다섯식구가 돌광산려대 전투원들과 함께 평양에 가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는 더없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던것이다.

아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던 영광의 그날을 그려보는듯 깊은 생각에 잠겼던 연공아바이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지난날 저의 부모들은 돌을 다루는 석공인타

에 사회의 최하층에서 온갖 수모와 천대를 받으며 가난에 쪼들려 살다나니 자식들에게 백날사진 한장 남겨주지 못했지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들을 대기념비 건설자로 어엿이 내세워주시고 크게 한일도 없는 우리들에게 온 세상사람들이 그토록 우러러 흠모하는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게 하여주시였으니...

세상에 행복이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고 영광이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이 세상 가장 높은 표창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며 충성으로 보답할 그 한마음속에 살며 일합니다.》

연공아바이의 말에 어머니도, 만이도, 쌍둥이형제도 북받치는 감격으로 눈굽을 적시는것이였다.

나는 뜨거워오르는 가슴을 억제하지 못하며 아버지수령님을 모신 사랑의 기념사진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단 한번만이라도 몸 가까이 모시고싶어하는 가슴속 그 소원을 다 헤아리시여 크나큰 영광의 표창으로 안겨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이 넘치는 기념사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이보다 더 높은 표창이 어디 또 있으랴!

하늘에 태양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듯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함께 모시였기에 오늘의 행복이 있고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당과 수령을 우러러모시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있어 주체의 기치따라 조국은 영원토록 번영할것이 아닌가.

세월은 흘러 강산이 변하고 그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연공아바이의 가족들의 모습도 달라질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은 저 영광의 모습은 천만년 한모습으로 빛날것이다.

잊지 못하여라 외 1 편

황승명

탄부들은 한결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봉락이 두려우랴
막아서지 말라고 큰소리치더니
바투 다가서며 이제는
로동안전원을 설복하려 접어드네

기름진 탄발이 앞에 있다고
뜨겁게 울리는 그 목소리
쇠동발밑에서도 위험하다면
그전날엔 어떻게
동발도 없이 탄을 켜느냐고...

근엄히 빛나던
안전원아바이의 눈빛에 미소가 어리네
젊은 이 친구들도
탄부의 지난날을 모르지 않기에...

피땀으로 반죽이 되던
그 석탄이었다
솔깡불을 입에 물고 질통을 지고
감독놈의 채찍을 등허리에 받으며
기어서 오르내리던 죽음의 마구리...

나는 알아보네
탄광마을 그 어디서나
첫눈에
탄부의 안해들을

나이와 성미는 서로 달라도
하나같이 언제나 바쁜 그 걸음
오늘도 어제처럼 빨래감을 안고
수도가에 나섰네

갱구가 활짝 열린 앞남산을
버릇처럼 바라보는 그 모습
다정한 남편의 속삭임인듯
가슴에 새기는 발파소리 발파소리...

남들이 무심히 밟고 가는 버럭도

그렇게 죽어간
그 아버지의 아들들아
노예살이 막장이 눈앞에 어려
아침저녁 레사로이 인차에 몸을 싣고도
눈시울이 뜨거운 우리가 아니냐

눈부신 갱도여 태양등 불빛이여
하고싶은 그 많은 말을
누가 다 할수 있으랴
한 생명을 위하여 아낌없이
몇만금의 돈도 바쳐지는 내 나라

아끼고 보살펴준
그 은혜에 목메여
교대와 교대를 하나로 이으며
보답할 일념으로 불타는 가슴들아

지난날을 우리 어찌 잊으랴
마침내 마음은
마음으로 통하고
서로 마주보며 들먹이는 가슴들에
하나로 잇닿은
새 길이 열리네

탄부의 안해

허리 굽혀 만져보네
천길 땅속에서 안아올린
그 《검은금》이 아닌가

저탄장에 높이 쌓인 석탄도
자꾸만 바라보네
제 손으로 한덩이이라도
더 보태고싶은 마음

아, 그 마음이
가파로운 산벼랑을 오르내리며
동발목을 섬기고
맛좋은 산나물로
탄부들의 입맛을 돋구거니
쩍 벌어진 앞가슴들에
영예의 훈장이 빛날 때

어찌 함께 빛나지 않으랴
그 수고가

방송야회 그 높은 연단에도
남편들과 나란히 함께 오르거니

부끄러움 잘 타는 새색시처럼
다소곳이 머리 숙여도
아, 탄부의 안해는
온 나라에 뚝뚝 떠받들린
자랑스러운 맘머느리여라

금강의 팔담

백 하

이리도 조용한가
가벼이 뜬 송이구름밑에
수집은듯 미소짓는
팔담의 맑은 못들

우뢰치는 구룡폭포
그 기개 하도 장하여
거세찬 그 원천 보고저
내 구룡대에 올랐건만

신기하도록 고요해라
아름다운 진주못들
폴안은 우뢰의 나라더니
이우엔 빛나는 진주의 나라

천만의 은구슬이
거울속에 설레는듯
밟고도 깨끗한 수정물
이 가슴속을 다 비치여라

금강의 수정물로

천만년을 씻고 씻은
정가로운 팔담
절승의 팔담

네 그리도 깨끗하고 순결해
너 그리도 고결하고 아름다워
절벽끝에도 서슴없이
한몸 던지는게 아니냐

천길 만길 떨어져
억만 조각으로 부서져도
조국의 대지우에
맑은 웃음 뿌리는게 아니냐

아, 조선의 명승
팔담이 아니교서야
어떻게 구룡폭포의
그 장한 기상을 떨치랴

-구룡대에서-

철은 흑색이 아니다

리종덕

여느때는 흑색으로 보이던 선철
전기로속에 끓을 때는
눈부시도록 빛나는 주홍빛 쇠물
금빛도 이보다 더 아름다울것이나

철속에 끼여있던 온갖 찌꺼기들
슬라크로 되어 밀려나지만
고열로 끓을수록
백광을 뿌리는 쇠물

오, 보통생활속에선
평범하게 보이다도
철의 의지속에서는
금강석처럼 빛나는 시대의 영웅들처럼

철이여 너는 흑색이 아니구나
뜨거운 로속에서만
비로소 볼수 있는 너의 본색은
금빛에도 비길수 없는 아름다운것이구나

대답

오광호

1

한달전 어느 저녁이었다.

창밖에서는 이해의 첫 봄비가 내리고있었다.

지도원들과 젊은 두 부비서까지 다 보내고 사무실 긴 쏘파에 홀로 앉은 나는 최근에 받은 《새기술통보》를 펼쳐들었으나 글줄이 전혀 눈에 들지 않았다. 이름할수 없는 불안으로 시중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지금 이 시각도 현장에서는 조립을 비롯한 중요생산공정 전반을 로봇트화하기 위한 고심참담한 탐구가 계속될것이었다. 지배인과 기사장도 그곳에 가있을것이고.

돌이켜보면 내가 이곳 베어링공장에 제대배낭을 벗어놓은지도 30년, 당사업을 시작한것만도 20년나마 되지만 이번 로봇트도입처럼 힘들어보기는 처음이다.

나는 벌써 며칠째 자신에게 묻고있다.

무엇인가? ...무엇때문에 오는 불안인가? 나는 이미 필요한 모든 대책을 다 취하지 않았는가! ... 사람선발, 정치사업, 조건보장 그리고 사람들과의 담화...

나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또 한번 그동안 해놓은 사업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았다. 며칠전엔 로봇트도입문제 하나만 가지고 무려 세시간이나 간부회의에서 중간총화를 지었다. 뒤따라 현장협의회도 조직하고, 오늘도 나는 오후 한것을 도입장에서 보냈다. 사람들도 여러명 만나고... 그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집행하는 기사장 김우정은 《비서동무, 너무 격정마시오. 뵙니다.》 하며 나를 진심으로 고무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딘가 막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었다. ...

그때문에 오는 불안인가?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차츰 비발이 굵어지는듯 유리창에 뿌리우는 물방울소리가 가락맞게 울렸다.

지배인 역시 요즘 생각이 많아진듯 여느때와는 달리 그늘이 진 얼굴로 다녔다. 어제도 그는 어두운 얼굴로 여기 내방에 들어와 무엇인가 말할듯 한참이나 머뭇거리다가 그대로 돌아서 나갔다. 이즈음 그는 여러번 이렇게 와 앉았다가는 그대로 나가군했다.

그럼 그때문에 오는 불안인가?

나는 습관처럼 또 한번 자신에게 물었다.

무엇인가? 어디서 오는 불안인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금이라도 다시 현

장에 가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수는 없었다.

똑 부러질만한 도움도 없이 자신의 불안이나 해소하기 위해 당비서가 그곳에 나타나는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수 있었다. 독촉, 초조감, 이것은 금물이다.

나는 애써 마음을 녹잡히며 수화기를 들고 그들에 대한 후방사업정형을 한번 더 료해하고 강조하는것으로 자신을 위안했다. 내가 다시 쏘파에 가앉았을 때였다. 전화종이 가볍게 울렸다.

《예, 박창민입니다.》

《제 강주혁입니다.》

지배인의 굵은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무척 피곤한것 같았다. 목소리가 쉬여있었다.

《어떻게요?... 지배인동무, 이젠 좀 들어가 쉬지요.》

《혼자 있습니까?》

《예.》

《내 이제 그 방에 가지요.》

지배인은 현장에서 올라와 자기 방에서 전화를 거는듯싶었다.

《예...》

나는 전화가 끝났으나 수화기를 전채 잠시 그 자리에 서있었다. 그 어떤 료감에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다. 드디어 울것이 왔구나 하는 예감이였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비방울소리가 더 커졌다.

이윽고 복도 저쪽끝에서부터 지배인의 빠르고 묵직한 발걸음소리가 가까와오고있었다.

《어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니 여기가 좋습니다.》

지배인은 내가 권하는 긴 쏘파를 마다하고 책상앞 딱딱한 나무의자에 가앉았다. 이것은 그와 나의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는 소리였다.

나도 자기 자리에 가앉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속에 앉아있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듯싶었다.

나는 눈을 들어 지배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크고 둥실한 얼굴은 꺼렇게 색이 변해있었고 충혈이 진 검은 두눈엔 심각한 고뇌의 빛이 흐르고있었다.

나는 지배인과 오랜기간 사업해오지만 그의 이런 모습은 별로 본 일이 없었다. 누가 말한것처럼 그야말로 땅크같은 사람이였다. 매사에 단호하고 일단 결심만 하면 멈추어설줄 몰랐다.

그리고 덩치가 큰만치 일욕심도 컸고 자존심도 강했다. 손탁이 세고 요구성도 높았다.

그런데 그가 지금 왜서인지 섣뜻 입을 열지 못하고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야기하십시오. 저녁식산 했습니까?》

지배인이 눈을 들었다. 그는 류달리 번뜩이는 눈으로 나를 한동안 지켜보다가 시선을 떼지 않은채 이렇게 물었다.

《비서동문 이번 로보트도입이 잘 안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순간 나는 가슴이 뜨끔했다. 바로 내가 예감했던 그 문제를 지배인이 꺼낸것이였다.

나는 눈길을 돌렸다. 이 며칠간 까닭모를 불안 속에 모대졌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밝혀내지 못한 나였다.

《물론 나도...》 지배인이 피로운듯 좀 가라앉은 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사이 우리가 취한 조치를 다 부인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린 가장 중요한걸...그렇지요. 우리가 아니라 나지요. 사실 난 전년 간부회의에서까지 자신을 속였습니다.》

《?...》

《그래 비서동무도 조직사업이나 조건보장에 걸려있다고 봅니까? 우린 벌써 반년이나 앉아뭇개고있습니다. 시운전만도 수십차례 했지요. 오늘도 또 실패했습니다.》

담배갑을 끄당겨가는 지배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종시 그는 뽑아든 담배가치를 도로 놓고야 말았다.

《문제는...》 그의 목소리는 다시 가라앉았다.

《사실 난 이 문젠 벌써 1년전부터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차마 내 입으로는 그에 대하여 말할수 없기에... 하지만 이번 로보트도입까지 계속 지연되는 조건에서...우린 이제 본격적으로 첨단 기술을 받아들여 생산공정을 전부 로보트화, 자동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배인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비서동무, 비서동문 우리 기사장을 어떻게 봅니까?》

《예?!》

나는 놀랐다. 그가 기사장에 대해 물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것이였다.

《그럼 지배인동문 기사장동무에게?...》

《물론 기사장동문 경험이 있고 그 누구와 비교할수 없을만치 자기 직무에 성실하자고 애씁니다. 그리고 나인 있지만 아직 몇년은 더 일할수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구요. 하지만 그 것만 가지고 됩니까?》

지배인은 머리를 흔들었다.

《지금은 자동화가 전면에 나선 전자공업의 시

태입니다. 더우기 우리 공장은 그 시대의 앞장에 서야 할 무거운 과업을 지고있구요. 물론 70년대나 80년대 중엽까지만해도 그의 기술을 가지고 공장을 이끌수 있었습니다. 허지만 우린 순간도 한자리에 머물러있을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말을 댔 지배인은 단숨에 쏘아놓았다.

《그래서요?》

《...》

나는 자신의 마음이 싸늘해짐을 느꼈다. 나도 물론 기사장의 능력은 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거기에 정말 문제가 있겠는가?!...지난해 기사장은 시범적으로 진행한 반제품참고 로보트화를 끝내 자기가 책임지고 해냈다. 물론 그때도 일부 아래사람들속에서 기사장의 기술지도문제가 제기되였었다. 허지만 그때는 지배인 자신이 그 의견을 거부하지 않았던가!.

《무슨 소릴 하오. 일이 안되는 원인을 우에 미는것도 요령주의요.》

이것은 그때 지배인이 아래사람들에게 한 말이였다. 그런데 오늘은 왜?...

나는 지배인을 보았다. 그는 더 말을 잊지 않았다. 방안에 납덩이같은 침묵이 떠돌았다. 기사장 김우정동무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흰머리, 좁은 어깨, 가냘프다고 할 정도의 작은 체구...아까 낮에도 그는 어딘가 막연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나를 고무하며 이번 로보트도입만 성공하게 되면 당중앙위원회 제 6기 제 14 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서 큼직한 돌파구가 뿜린다고

30 분나마 이야기했었다. 흥분한듯 얼굴은 물론 벗어진 이마까지 붉게 물들어있었다.

그래서인지 남들보다 별스레 일찌기 센 그 맑지 않은 머리가 더 깨끗하고 품위있어 보였었다.

나는 다시 지배인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비록 그가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무엇을 제기하고있는지 그 의미는 명백했다. 나는 그 어떤 의문이나 섭섭함보다 불쾌감이 더 앞섰다. 이제야 나는 지배인이 요즘 무엇을 생각하고있었는가를 깨달았다. 그럴수록 나는 내앞에서 기사장문제를 제기하고있는 이 사람이 다름아닌 강주혁지배인이라는 그자체가 믿어지지 않았다. 거의 한생을 함께 지내오는 두사람의 지난 생활이 일시에 떠올랐다.

기사장 김우정, 그는 지배인 강주혁을 키우다 싫이 이끌어준 사람이였다. 나는 마치 나 자신이 그 누구에게 배반당한듯싶었다. 허지만 나는 그의 체의를 리유없이 목살하거나 덮어둘 권리가 없었다. 그는 지배인이고 나는 당비서였다.

그리고 우리 두사람은 다 같이 공장당 집행위원이였다.

《잘 알았습니다. 나도 좀 생각해보지요...》

나는 혼자 있고싶었다.

《한가지 더 말할게 있습니다.》

지배인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먼저 난…기사장동무가 로보트도입만이라
도… 짧은 판 동무에게…그래서…》

지배인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일부러 그러듯 나를 면바로 보며 《그것만은 기사장동무에게도 권고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예?!…》

나는 섬찟했다. 모욕받은 기사장의 얼굴이 얼핏 눈앞을 스쳐지났다. 문제가 복잡해지리라는 예감으로 가슴이 조였다. 나의 이런 심정을 들어 다본듯 지배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난 그렇게 하는게 기사장동무에게도 유익한 일이라는걸 비서동무가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

털어놓고 말하여 나는 이 말의 의미를 이 순간에는 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 중시하지 않았다는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나는 지배인이 방을 나간후에도 오래도록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비소리가 멎었다.

2

기사장 김우정…

공장신문 《베어링》 주필은 그를 《공장의 산 력사》라고 부른다. 사실이 그렇다. 1959년 내가 천연초소에서 이곳 단조직장에 배치되어 왔을 때 그는 벌써 현장기사, 직공장을 거쳐 기사장으로 사업하고있었다. 지배인은 아직 공업대학 강실에

앉아 주에 한번씩 그 대학 초빙강사였던 기사장의 강의를 반군하였다. 그때 이미 기사장은 그 해박한 지식과 성실성으로 지배인의 존경을 받았고 지배인은 또 그대로 왕성한 정력과 남다른 학구열로 기사장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졸업론문도 기사장

의 지도밑에 여기 공장에 와 집필했었다…

하나, 둘 그때 일들을 돌이켜보며 로보트도입장으로 가는 나의 마음은 무거웠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습습한 비내가 깊숙이 폐부로 흘러들었다.

비가 왔어도 밤대기는 푸근하였다. 나는 기사장을 생각했다.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 혹은 짧은 기사에게 그 기간 사업을 인계할수도 있었다. 물론 기사장은 그 한가지 사업만 보는게 아니고 또 내가 우려하는것처럼 지배인의 권고를 모욕적인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수도 있다.

그럼?...아니...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나는 그를 잘 안다. 지배인은 분명 애들지 않고 생각하는바를 그대로

말했을것이다. 그는 본시 그런 사람이다. 방금전 내앞에 와 앉아있던 지배인의 그 무뚝뚝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면서도 또 생활에서 놀랄만치 인정이 무른 사람이 바로 지배인이다. 너자들, 병약한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지배인만 찾아가면 요구하는바를 다 해결받을수 있었다. 그것으로 하여 늘 경리부장과 로동과장의 불만을 사는 지배인이었다.

그런데 한톤 함마소리가 왜 저런가? 압축공기가 약한가? ...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식쿵, 식쿵...

지심을 울리는 둔중한 음향에 구내등 불빛이 흔들렸다. 그 불빛에 비에 젖은 도로가 기름을 바른듯 번들거렸다. 강재를 실은 화차들이 들어오는지 인입선쑈에서 디젤기관차의 《뽕》하는 기적소리가 긴 여운을 남기며 멀리 도시상공으로 날아갔다.

나는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지배인...기사장...지금까지 두사람은 말그대로 한몸이 되어 일해왔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도움중의 하나였다.

문득 나의 머리속에는 15 년전에 있던 일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때 아직 나는 당학교를 마치고 방금 돌아와 부비서로 사업하였고 지배인은 공정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사장은 두달전에 소환되어 간 전 지배인을 대신하여 공장전반사업을 주관하고 있었다. 그 풍부한 경험, 오랜 사업년한 그리고 누구나 머리를 숙여야 할 놀랄만한 성실성... 앞으로 그가 지배인으로 임명되리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기정사실로 생각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비서동무와 내가 방금 주간사업토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막 일어섰을 때였다.

《똑똑똑》

누군가 조용히 출입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예, 들어오시오.》

비서동무의 이 대답에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외출복차림의 기사장이었다.

비서동무와 나는 약속이나 한듯 서로 마주보고 웃었다. 언제, 어느 방에 가나 이렇게 행동하는 그였다.

나는 티끌 하나 묻지 않은 기사장의 모습을 보며 또한번 속으로 혀를 찼다. 머리오리 하나 흠어져 있지 않았다. 1년 열두달 그가 넥타이를 매지 않는 날은 거의 없다. 현장에 나가도 꼭 다림발이 선 작업복을 입고 다녔다.

《베어링, 그건 정밀도를 요구하는 제품이요!》

이것은 그가 누구에게나 하는 말이었다.

비서동무가 자리를 권하며 나무리듯 말했다.

《왜 또 나왔습니까? 폭 쉬지...》

《예, 공업전람관에 내보낸 우리 제품들에 대한 반응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것참, 의의있는 걸음입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노력해야지요. 그런데 비서동무...》

기사장은 더이상 그 말은 하고싶지 않은듯 말머리를 돌렸다. 그리고는 나와 비서동무를 한번 번갈아보고 이렇게 말했다.

《제 오늘 당조직에 한가지 제기할게 있어 찾아 왔습니다.》

《?...》

내가 나가려 하자 《아니 부비서동무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하며 기사장이 만류했다.

우리는 모두 자리에 앉았다. 기사장이 입을 열었다.

《지배인 후임문제는...》

《...》

《...》

비서동무와 나는 마주보았다. 기사장이 이런 문제를 들고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우리였다.

《제가 이런 제기를 하는게 혹시 당치 않은 일인지?...》

《무슨 그런 소릴 합니까. 어서 말씀하십시오.》

비서동무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예...》

기사장은 겸손한 미소를 짓고 말을 이었다.

《사실 전 많은걸 생각해보았습니다. 능력, 사람됨, 그리고 또 원칙성, 조직력과 전개력도 있어야지요. 지배인이 아닙니까. 그래 전 그 적임자를...》

그는 또 한번 나와 비서동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하나 확신에 넘친 어조로 《공정기사 강주혁동무를 제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누구요?!...》

비서동무가 가볍게 놀라며 반문했다.

《강동무 말입니다.》

나는 비서동무를 보았다. 강주혁이야말로 그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이었다.

우리들의 이런 심정을 느낀듯 기사장이 계속했다.

《전 그 동무를 잘 압니다. 그래서...혹 주관일 수도 있겠지요. 하나 전 그 동무가 지배인 사업을 맡으면 앞으로 우리 공장이 당에 기쁨을 드리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공장으로 될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요?...》

비서동무가 가볍게 머리를 끄덕였다.

《하긴 그 동무가 충실한 사람인건 틀림없습니

다.》

비서동무는 이렇게 긍정하고도 무엇인가 믿음이 안가는듯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딱했다. 아직은 아무런 견해도 표현할수 없는 나였다.

너무도 뜻밖의 제기고 또 책임적인 대답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비서동무가 또 물었다.

《그런데 거 너무 어리지 않을까요?》

《그럴수도 있지요. 이자 서른여덟이니까요.

하나 지금 당에서는 모든 일을 대담하게 통이 크고, 패기있게 벌릴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면 응당 그런 동무들이... 그리구...》

기사장은 비서동무와 나를 겸손하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젊은거야... 제가 있지 않습니다.》

《...》

《...》

비서동무와 나는 덤덤히 앉아있었다. 그의 진정에 뭐라고 선뜻 입을 열수가 없었다.

이윽고 비서동무가 소탈하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기사장동무, 고맙습니다. 우리도 연구해보고 또 상급당에도 제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방을 나간후에도 여전히 그에 대하여 생각했다. 참으로 잊을수 없는 일이었다.

그후 강주혁은 지배인으로 임명받았고 오늘까지 15년동안 자기 직무를 훌륭히 감당해왔다.

그가 그토록 자기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게 된 그 리면엔 기사장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많았다.

그런데 오늘 그 강주혁이 기사장 문제를 제기하다니?!...

나는 로보트도입장에 들어섰으나 기사장을 볼수 없었다. 집으로 들어간것이였다.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서 사무실로 천천히 되돌아오던 나는 불이 환히 켜진 지배인방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이밤 그 역시 선뜻 자리를 뜨지 못하고있었다.

3

며칠이 지났다.

지배인과 기사장 문제는 내가 예상했던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해졌다. 항시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지내던 두사람사이가 눈에 띄리만큼 어성버성해지고 멀어졌다. 두사람 다 고민하고있었다. 기사장보다 지배인쪽이 오히려 더한듯싶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침통한 얼굴로 다녔고 묻는 말에나 겨우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서로 어차피 마주앉는 경우에는 될수록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대하려고 애썼다.

지배인은 더 부드럽고, 친절하게, 기사장은 더 무게있고, 정중하게, 오히려 그것이 더 옆에서 보기에 어색했다.

그제 아침만 해도 그렇다.

월생산총화를 하면서 지배인은 응당 기사장이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설비상태들에 대한 료해사업을 《아무래도 이 문제는 기사장동무가 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부탁하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기사장은 또 그대로 《알겠습니다. 지배인동무 지시대로 집행하겠습니다.》라고 깍듯이 대답했다.

순간 방안엔 어색한 분위기가 떠돌았었다.

바로 그들의 이런 태도로 하여 지금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지배인이 기사장을 돌려놓았다는 좋지 못한 소리가 돌고있었다. 예측이지만 개중에는 벌써 해임제기를 했을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방금전에도 내 방에 들어왔던 기술준비실장은 자못 격분하여 이렇게 말했었다.

《량심이 없지요. 어떻게 그럴수 있습니까. 이젠 교만해지던나머지 스승도 몰라본단 말입니다.》

《...》

《비서동무도 잘 알겠지만 나와 지배인은 기사장에게서 배우지 않았습니까》라고 실장은 자기 말을 한번 더 강조했다.

나는 넓적한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다.

《동문 지배인이 정말 기사장을 해임하자고 제기할것 같소?》

사실 이것은 나 자신에게 한 질문이기도 하였다. 그날 밤 나는 지배인의 제기를 직접 받은사람이었지만 좀처럼 믿을수가 없었다. 물론 그의 입에서 해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바로 그것을 제기했던것이다.

《그럼요. 충분히 그럴수 있는 사람입니다.》

《뭘 보고 동문 그렇게 확신하오?》

실장은 흘금 나를 올려다보고 그거야 불보듯 뻔하지 않느냐 하는듯 거침없이 대답했다.

《교만이지요. 그는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독단... 거만...》

나는 실망했다. 그의 독설엔 삭이지 못한 분노가 풍기고있었다.

지난해 지배인은 공장의 모든 과장, 실장들의 생활비를 사정하면서 유독 그만은 제외시켰다. 리유는 간단했다. 기술준비실이 몇년째 자기앞에 맡겨진 중요기술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동무와 나는 그 과제를 해결하기전엔 사정받을수 없소.》

그때 로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실장에게 지배인이 한 말이였다.

《교만이라...》

나는 나도 모르게 기술준비실장의 말을 되뇌이고 있었다. 실장은 마치 이젠 할 말은 다했으나 생각할수록 지배인의 처사가 분하다는듯 덩딩한

얼굴로 앉아있었다. 그러던 그는 무엇인가 불안을 느낀듯 흘금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그것이 더 불쾌했다. 분명 그는 지금 자신의 불공정성을 느끼고있었다. 순간 나는 얼굴이 화끈해났다. 마치 나 자신이 누구를 속인듯 그를 보기가 거북했다. 무겁고 따분한 침묵만 흘렀다.

《으흠...》

실장은 주먹을 입에 가져다대고 마른 기침을 한번 한다음 자못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물론 기사장동무에게도 부족점이 있지요. 뭐라고 할가?...한마디로 이젠 뒤떨어졌지요. 사실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난 지배인이 왜 우리같은 오랜 사람들을...》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저도 모르게 또 자신의 문제로 되돌아간것이였다. 회전목마... 달리는 행동할수 없는 그였다.

《그만합시다.》

뒤흔 나눈 내심을 숨기려 했지만 어조에 담긴 랭기는 어쩔수 없었다.

실장이 당황하여 엉거주춤 일어섰으나 나는 그가 방을 나갈 때까지 눈길을 들지 않았었다. ...

물론 나는 그렇게 랭동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나 역시 인간이 아닌가!...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느덧 시간은 퍼그나 흘러 정문으로 낮교대자들이 몰밀듯이 밀려나가고있었다. 불그레한 저녁 햇빛이 부드럽게 그들을 감싸안았다. 나는 묵묵히 그들의 모습에 시선을 주었다. 최근에 처너들의 옷차림이 또 달라졌다. 해가 다르고 달이 다르다.

역시 멈춤을 모르고 전진하는것이 생활이다. 그렇다. 생활을 창조하는것은 인간이지만 때로는 그 생활을 따라가지 못해 모순속에 모대기는것도 인간이다. 문득 기술준비실장의 말이 상기되였다.

《난 지배인이 왜 우리같은 오랜 사람들을...》

《아니...》

나는 속으로 부정했다. 지배인은 결코 오랜 사람들이라고 해서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돌려놓은것이 아니다. 나는 그날밤 그의 제기를 받은후 오늘까지 기사장사업을 료해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옳다는 생각에서 점점 더벗어날수가 없다. 그렇다. 기사장은 이미 본인의 주관적 욕망과는 달리 공장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원만히 하지 못하고있다. 기술지식에서, 방법에서 모든 면에서 그는 저도 모르게 뒤떨어져있었다. 더우기 첨단기술인 이번 로보트도입과 같은 사업은 거의나 일반적 강조와 호소로 그 지도를 대치고있다.

하기에 내가 만난 기사장과 직장장들은 인간 김우정에 대해서는 모두가 존경하고 따랐지만 기

사장으로서의 김우정에 대해서는 《글쎄요...》 《뭘 별루》 하며 할수 없다는식으로 마치 못해 이야기했다. 문득 나의 귀전에는 지금은 전자공업의 시대며 70년대나 80년대 중엽까지만 해도라고 하던 지배인의 말이 다시금 쟁쟁히 울렸다.

그럼?... 나의 생각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지배인 역시 기사장에 대한 인간적 감정은 여전히 변함없을것이었다. 바로 그래서 그는 몇번이나 내 방에 왔다가는 돌아가고 돌아갔다는 또 왔던것이다. 하지만 그는 끝내 기사장에 대한 자기 의견을 털어놓고야말았다. 무엇때문에?...

그날밤 내 방에 와 앉았던 지배인의 모습이 또 다시 눈앞에 얼른거렸다.

《우린 순간도 한자리에 머물러있을수 없지 않습니까!...》

뜨겁고 열렬한 심장의 박동이였다.

지배인은 지금도 쉬는 날이나 점심시간이면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걸고 기술문헌들을 본다. 그는 인민대학습당 고정독자이며 배아링공학을 배우는 대학생들은 그가 집필한 세권의 두툼한 입문서를 참고도서로 리용한다. 기사장 역시 기계공업부문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더우기 그는 우리 나라 배아링공업의 기초를 축성한 오랜 공로자들중의 한사람이다.

그런데 저거서는 왜들 저렇게 몰켜서있는가?...

그렇지 200 일전투 중간총화정형이 나붙어있지.

기사장... 기사장... 어떻게 할것인가? 이제 그는 한두해만 더 일하면 영예롭게 자기 사업을 끝마칠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럼 이번 기회에?...아니 좀더 생각해보자. 역시 이것은 단순히 실무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나의 생각은 중단되었다. 정문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기사장의 모습이 보였다.

흰머리, 좁은 어깨... 그와 어기는 모든 사람들이 공손히, 친절히 인사했다. 그러거나말거나 그는 땅만 보며 걷고있다.

요즘 그는 매일같이 온 공장구내를 빠짐없이 돌아본다고 한다. 유독 그의 발길이 닿지 않는곳은 로보트도입장뿐이라고 했다. 리해가 되었다. 분명 그는 가슴속 깊이 노여움을 품고있을것이었다.

지배인의 까만 승용차가 정문을 나가다 기사장 옆에서 멈추어섰다. 앞문이 열리며 지배인의 큼직한 머리가 나왔다. 뭐라고 말하며 얼굴을 돌려 뒤문을 가리켰다. 아마 기사장더러 타라고 말하는것 같았다. 나는 긴장해졌다. 기사장은 머리를 흔들며 한손을 들어 어서 가라고 굳이 사양했다.

지배인은 몇번 더 권하다 할수 없는듯 머리를 들이밀고 차문을 닫았다. 차는 미끄러지듯 정문을 빠져나가고 기사장은 여전히 땅을 내려다보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휴-》

나는 기다란 한숨을 내쉬었다. 창가에서 물러나 자리에 와 앉았으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방금 본 장면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가슴이 쓰렸다.

나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1 직장을 찾아가고 통계원으로 일하는 기사장의 딸이 있는가고 물었다. 마침 처녀는 아직 사무실에 있었다. 나는 지금 곧 내 방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딸을 만나 기사장의 요즘 생활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었다. 직접 본인을 만나 담화해 볼수도 있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

공장예술소조의 인기가수인 얼굴이 가름한 처녀는 무릎우에 단정히 포개놓은 희고 통통한 두손등만 내려다보고있었다. 예쁘장하게 생긴 입을 꼭 다문채 방에 들어와 앉은 첫 순간부터 시종 얼굴을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즘은 집에 들어와 전혀 말씀을 안한단 말이지?》

《호-》

처녀는 조심스럽게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닌 건강하시냐?》

《네... 어머닌 모르십니다.》

나는 빙긋이 웃었다. 어떻게 그렇듯 내 심리를 알아맞추고 대답하는지 참으로 웅했다.

《그럼 네가 아버지 잘 위로해드려야지.》

드디어 처녀는 얼굴을 들었다. 붉게 상기된 가름한 얼굴에 짙은 의혹과 열렬한 호소가 실려있었다.

《비서동지, 전 지배인아저씨 잘 압니다. 어제도 직장에 왔다가 일부러 절 찾아보고 누구나 다 너처럼 훌륭한 아버지 잘 모시고 사는건 아니라고 하면서...전 기술준비실장동지가 왜 제앞에서 지배인동지... 그 아저씨 절대로 아버지...》

처녀는 눈길을 떨구며 조용히 되었다.

《용서하십시오. 어릴적부터 버릇이 패서...》

그 말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지배인은 기사장의 자식들에게 아저씨였고 기사장은 지배인네 아이들에게 큰아버지로 불리웠다. 내게는 그것이 이 순간 더 자극이 되었다. 그만큼 기술준비실장에 대한 불쾌감도 컸다.

처녀가 계속하였다.

《아버진 지난 밤 처음으로 저와...》

나는 마치 기사장과 그 딸의 대화를 눈앞에서 보며 듣는듯싶었다.

기사장은 책상을 마주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고 딸은 측은한 눈길로 아버지를 지켜보다가 다반에 차잔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딸; 아버지
 기사장; ...
 딸; 아이, 아버지...
 기사장; 응?...응...
 딸; 차 좀 드세요.
 기사장; 차?...무슨 차?
 딸; 아이 참, 찬 무슨 차예요. 차요.
 기사장; 오, 고맙다.
 딸; 헌데 아버지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사장; 생각은 무슨 생각.
 딸; (잠시 지켜보다가) 아버지, 너무 그렇게 상심마세요. 아버지 지금 괜히... 지배인아저씨 오늘도 일부러 절 찾아와서...
 기사장; ...
 딸; 사실 아버지야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기사장; 글세...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건 마감을 어떻게 맺는가 하는거지.

딸; ...

기사장; 누구나 나이들면 인생의 마감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우리야 더욱 그렇지 않느냐. 한생을 어버이수령님 품속에서 산

사람답게 마감까지 깨끗해야지. 난 그게 아프다.

딸; ...

기사장; 그래 넌 요즘도 로봇도입장에 가끔 가보니?

딸; (눈물이 그렁하여 머리만 끄덕인다.)

기사장; (깊은 생각에 잠긴다.)

딸; (아버지를 이윽히 지켜보다가) 아버지, 어서 자리에 누우세요.

기사장; (여전히 생각에 잠긴채 오래도록 대담을 안한다.)

...

이야기를 다 끝낸 처녀는 눈길을 떨구며 또한번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전 가겠습니다.》 하며 살며시 일어섰다.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더 다른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결심은 명백하게 섰다.

나는 지배인의 의견에 동의할수 없다. 물론 나는 그를 이해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며 나는 당일군이다. 우리 당은 바로 나에게 공장의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질 것을 위임했다. 그렇다. 그것을 떠난 내 사업이란 도대체 있을수가 없다.

나의 눈앞에는 딸과 마주앉아 자기 인생의 마감을 두고 모태기는 기사장의 모습이 우뚝이 떠올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밖은 부드러운 어둠에 덮여있었다. 이번에는 지배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치 창밖에 마주서서 나를 들여다보는듯싶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난 지배인동물 압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배인동무의 제기엔 한 인간의 어제와 오늘, 래일이 고려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지배인의 물음이었다.

《때문에 난 기사장동무의 그 부족점을 바로 지배인동무와 공장 기술집단이 보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지배인은 단호히 대답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난 우리모두가 책임적으로 자기 몫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난 기사장동무가 이걸 누구보다 잘 이해하리라고봅니다.》

《글쎄... 이해하는것과 받아들이는것과는 차이가 있지요.》

나는 눈을 감았다. 지배인모습도 사라졌다.

나는 어떻게 사무실을 나왔고 어느사이에 발길이 로봇도입장으로 돌려져 그곳에 이르렀는지 미처 의식하지 못했다. 다만 무엇때문에 언제 다시 공장에 나왔는지 텅 빈 도입장에 홀로 서있는 기사장만은 똑똑히 보았다. 깊은 생각에 잠긴 기사장은 내가 들어서는 기척도 못느꼈다. 그는 로봇트의 어느 한 부분을 주의깊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며 점도록 자리를 뜨지 않았다.

나는 그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 가까이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싶었지만 그럴수가 없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비서동무, 난 지금 혼자 있고싶습니다.》라고 그가 부락하듯싶었다. 기사장은 여전히 그자리에 서있고 나는 소리없이 돌아섰다.

4

지배인은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방안에 흘러든 해빛을 등지고 앉은 그의 등실한 얼굴은 시커멓게 색이 변해있었다.

《때문에 나는...》

나는 침착하게 말을 끝맺었다.

《지배인동무의 의견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밤 내가 그에게 마음속으로 한 말이었다.

지배인은 씩 가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책상우에 올려놓은 쇠덩이같은 주먹만 묵묵히 내려다보고있었다.

나는 그의 책상우에 놓인 한통의 문건에 시선이 갔다. 당중앙위원회 제 6기 제 14 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공장당위원회 집행계획서였다. 나는 지난밤 마음속으로 상상해본 그의 대답을 또한번 듣는듯싶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난 우리모두가 책임적

으로 자기 몫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언젠가 그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다.

《오늘의 하루는 어제날의 1년, 10년과도 맞먹지요.》

이윽고 지배인이 입을 열었다.

《털어놓고 말해서 난 지금 나 자신이 비서동무의 의견에 공감하고있는 이게 두렵습니다.》

《?...》

《그래 비서동무도 날 심장이 얼음덩어리같은 사람으로 봅니까. 나도 압니다. 사람들이 날 욕한다는걸... 그러나, 난 그보다도 기사장동무가 사람들로부터 동정과 외면을 받는게 더 아픕니다. 생각해 보시오. 그는 일생을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와서...비서동무도 지난해 아래 기사들속에서 의견이 제기되었던걸 기억하지요?...》

《이야기하십시오.》

《그때만해도 내 권한으로 덮어버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서동무, 그는 제 스승입니다. 그래 그가 그런 대접을 받을 때 제가 좋겠습니까. 물론 그를 제때에 도와주지 못한건 백번 저의 죄입니다. ...》

《...》

문득 나는 그날밤 이것이 기사장동무를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라는걸 이해해 주기 바란다면 그의 말이 상기되었다. 지배인이 계속했다.

《사실 난 기사장동무가 언젠가는 반드시 날 이해해주리라 믿었기에...》

《리해하는것과 받아들이는것과는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지배인동문 그가 요즘 누구도 모르게 로보트도입장에 가군하는걸 압니까?》

《바로 그때문에 내가 더 피로운거지요.》

지배인은 더 말을 하지 않았다. 모든것을 단념한듯 절걱 라이타를 켜 담배불을 붙이고는 구름같은 연기를 내뿜었다.

나는 피로왔다. 오늘까지 10년이상 그와 함께 공장사업을 책임지고 일해왔지만 우리 두사람의 견해가 맞지 않아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배인이 조용히 말했다.

《난 그래도 비서동무만은 리해해줄줄 알았는데 유감입니다.》

나는 사죄삼아 빙긋이 웃었다.

《불쭌 주시오.》

우리는 잠시 담배만 피웠다. 마치 담배 진미를 느끼기 위해 고심하는듯싶었다. 희끄무레한 연기가 가볍게 떠올라 서리고 얹히며 돌아갔다. 기요원이 문을 열었다 열른 달았다. 나는 담배불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간이 바쁜 지배인을 더이상 붙들고있을수 없었다.

《그래서 난 지배인동무가 한번 기사장동무와 마주앉았으면 합니다. 무척 피로와하고있는것 같는데 아무래도 나보다 지배인동무가 낫지요.》

《어떡하겠습니까. 나이들면 리성보다 감성이 앞선다는데...》

나는 지배인의 대답이 고마왔다. 마음도 가벼웠다. 최근 한시도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던 문제가 이렇듯 순조롭게 해결된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얼마나 경솔한 판단인가하는것을 다음날 공장당집행위원회 뒤끝에야 절실히 깨달았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지배인과 기사장을 주시하는 나의 눈길은 사뭇 긴장되어있었다. 그들이 여느때처럼 나란히 앉으면 두사람사이에 서로 화해가 된것ियो, 그렇지 않으면 아직 얼음이 풀리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지배인이 먼저 무거운 얼굴로 들어서고 뒤따라 기사장이 들어왔다. 허나 그는 기대와 달리 행정부지배인옆에 가 앉았다.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지배인과 기사장사가 녹지 않으면 누구보다 딱한것이 당비서였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도 이번 일로 기사장이 당할 그 상처가 더 마음에 걸렸다.

나는 회의를 집행하면서도 내내 두사람을 살폈다. 그들의 사소한 동작 하나, 얼핏 변하는 표정 하나하나가 나에게게는 모두 스칠수 없는 의미심장한것이였다. 왜서인지 지배인은 자주 궁싯거렸고 기사장은 초연히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저도 모르게 나의 시선이 기사장의 얼굴에 가 멎었다.

이 며칠어간에 얼굴의 주름이 더 늘어났듯싶었다. 머리도 더 희여지고, 나는 무엇인가 예리한것이 가슴에 와 박히는듯싶었다. 나는 종시 눈길을 떨구고 말았다. 더이상 그를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제기된 문제 토의가 다 끝나 해당한 결정서까지 채택하고 내가 자리에 앉았을 때였다.

《제가 좀 말하게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기사장이 일어섰다. 전혀 뜻밖이였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누구도 몰랐다.

기사장은 선이 예리한 얼굴을 들고 맞은편 벽의 어느 한점을 잠시 응시하다가 마치 자신에게 속삭이듯이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나는 처음 그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다. 무엇인가 귀속에서 쟁- 하는 요란한 음향이 긴 여운을 남기며 서서히 사라졌다.

《...》

여러 동무들은 최근 나와 지배인동무사이가 그전같지 못하다는걸 다들 느꼈을겁니다. 그리구...》

나는 그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가슴속에 박힌 그 예리한것이 마구 움직이는듯싶었다. 당장이라도 《기사장동무.》하고 부드럽게 그의 말을 막고싶었지만 웬일인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배인은 머리를 푹 떨군채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기사장의 이야기가 계속되고있었다.

《사실 난 고민했습니다. 그날 지배인동무가 젊은 기사에게 로보트도입을 넘겨주자고 했을 때 처음으로 모욕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어떤 부당한 배반이라도 당하는것 같았고 이제 남은 제 인생이... 저도 인간입니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장내는 고요했다. 그 누구도 눈길을 들지 못했다.

《그러나 동무들, 난 며칠동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의견이 옳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지배인동무!...》

지배인이 무겁게 머리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어떻게 죽어있었다.

《난 오늘 지배인동무에게 한가지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만일 동무가 앞으로 자기가 체구실을 못한다는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

지배인은 대답을 못했다. 주위는 더욱 엄숙해졌다. 기사장은 여전히 잔잔한 소리로 계속했다.

《난 동무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줄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문 오늘 나에게 외교했습니다. 난 지금 그제 제일 섭섭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동무가 며칠전에 나더러 기사장으로 앞으로 계속 도와달라고 권고했다면 난 그걸 웅당한것으로 받아들였을겁니다. 그러나 이제 날 압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난 요즘 로보트도입장에 가 볼 때마다 정말... 벌써 이렇게 했더라면... 사실 난 내가 이렇게까지 뒤떨어지리라고는... 그저 이 몇년간 눈앞의 생산, 눈앞의 과제만 안고 돌면서... 일꾼이라면 웅당 앞을 내다 봐야지요. 제가 못하면 아래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지향시키고...》

기사장은 말을 끊었다. 그의 입에서는 비록 신음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그 소리를 듣는듯싶었다. 기사장은 다시 지배인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때 지배인동무, 동문 앞으로 10 년이나 20 년후에 우리 공장에서 일할 후대들이 왜 공장의 현대화가 남보다 늦어졌는가고 물으면 이 김우정이 공로자고 또 내 스승이기때문에 돌려놓을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대답하겠습니까?》

《기사장동무...》

지배인이 고통스러운듯 그를 불렀다.

《동문 오늘 내가 믿어온 동지답게 행동하지 않았습시다.》

나는 이 순간의 감정을 무엇이라고 설명할지 몰랐다. 사람의 일생에는 이런 순간이 매우 드물게 차체지는 법이다. 바로 이런 순간에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새 인간이 되는 것이다. 나도 그리고 이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각 그런 이름할수 없는 감정을 체험하고 있었다.

《비서동무!》

기사장이 나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말씀하십시오.》

《비서동무, 용서하십시오. 난 나도 모르게 당에 손실을 준 사람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기사장은 목이 갈려있었다. 허나 나는 그를 위로할 말을 찾을수가 없었다.

《비서동무, 우리 공장은 이제부터 대대적으로 첨단기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당에 기쁨을 드려야 하구요. 그래서 난 여기 집행위원동지들앞에서 나를 해임시켜줄것을 당조직에 제기하면서 오직 이것이 내가 당에 리익을 줄수 있는 유일한길이라는걸 모든 동지들이 리해해주길 바랍니다.》

나는 물론 모두가 기사장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쇠뭉치가 쿵하고 세차게 가슴을 두드린듯싶었다. 기사장은 부드러운 눈길로 나를 보았다. 사소한 유감이나 서글픔이 전혀 담기지 않은, 인생을 끝고 깨끗하게 걸어온 사람들만이 간직할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빛나는 눈길이었다. 나는 생각하였다. 이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을 내가 무엇때문에 위로한단 말인가!!

그는 자리에 앉았다. 모두가 조용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지금 당에서 의도하고 바라는대로 체구실을 바로 하고있는가? 그리고 나도 후날 기사장처럼 자기 인생의 마감을 대답할수 있는가?...

나는 왜 제때에 그를 도와주지 못했는가?...

나만이 아니라 집행위원들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며 자신을 검토하는듯싶었다. 이자리에 기술준비실장이 없는것이 유감이였다.

나는 문득 공장에 가끔 취재오는 수도 신문의 한 기자가 생각났다. 언젠가 그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적이 있다.

《80년대 생각해보십시오. 비서동문 우리 동시대인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뭐라고 봅니까?》

만약 그가 지금 내앞에 있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것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 기사장과 지배인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활에 자기 감정, 자기 체면, 자기 리익이라는게 있습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충성과 효성을 못하지요. 난 오늘이야 말로 우리모두가 자기를 쟁그리 바쳐야 할 때라고 봅니다.》

...

한달이 지나갔다.

우리 기사장은 오늘 고문기사장으로 임명받았다.

생각해보면 끝없는것이 당의 은정이다. 바로 그 은정이 있어 우리 기사장, 우리 지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게 아닌가!

나서자 통일성전에

럼우봉

입술을 깨물며 넘겨받았다
배를 갈라 쏟아지는 창자를 건어안고
우리모두의 상처우에 돌처럼 떨어진
스물다섯 꽃나이 학우가 남기고간
그 앞날을

두주먹 펴며 받아외운다
고역에 땀젖은 온몸에
물이 아니라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
그 마지막 목소리로 웨치고 간
피의 절규를

아직은 아직은
분렬의 통분과
통일의 열망이
한강토, 한겨레
한심장속에 터질듯 커가기에

아, 분렬의 긴긴 밤은
애달픈 한숨끝에 가시지 않고
통일의 새 아침은
저절로 밝아오지 않기에

뼈아픈 추억의 모든 갈피들을 들추어
그것을 향연처럼 즐기는자들을
복수의 하수구에 마구 차넣는
그 드센 발길로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버리자

교정과 정원을 박차고
항쟁의 거리에 용약 펼쳐나

피흘리면서도 쓰러지면서도
끝끝내 대오를 홀지 않는
그 어깨와 어깨로
통일의 념원을 받들어올리자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정녕 우리의 주체가 길 밝히고
기발처럼 추켜든
그 진리도
죽음을 각오해야 말할수 있는
저기 절반땅 남녘

매국이 애국을 문초하고
파쑸가 자유를 교살하는
그 남녘땅에 도사린
미제와 로태우 살인마로 하여
더욱 질어가는 분렬의 아픔

오, 두동강난 조국을
그대로 정녕 그대로 두고서는
살수도 죽을수도 없는 사람들과
모두 떨쳐나서자
우리의 통일성전에

분렬은 한시절
통일은 영원하나니
투쟁속에 안아올 그 아침에
결단코 우리가 이 말을 하자-
력사여, 후대여
다시는 분렬없는 조국을
자 어서 넘겨받으라고!

공화국기발에 대한 생각

김종석

...

천만사람의 노래인듯 자랑인듯
바람과 해살과 온 대지의 축원을 담아
세차게 나뭇기는 내 조국의 기발이어

...

어느 시인은 이렇게 읊었다.

참으로 오각별 찬란한 공화국기발은 온 겨레의
시선과 마음을 한곳으로 모으는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영원한 표식이고 상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기발에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오래동안 일본제국주의를 반
대하여英勇적으로 싸운 항일혁명선열들의 숭고
한 애국주의정신이 깃들어있으며 간고한 조국해
방전쟁시기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인민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몸바쳐싸운 참다운 애국투사들과
영웅전사들이 흘린 붉은 피가 스며있습니다.》

공화국기발! 이 기발에는 유구한 역사를 이어
온 우리 인민의 불타는 념원이 담겨있으며 영원
무궁토록 조국의 영예를 빛내어나갈 크나큰 맹세
가 깃들어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얼굴이 다르
고 이름이 다르듯이 천가지 만가지로 사물을 대
하지만 조국의 기발과 마주서는 심정은 똑같이
숭엄하고 경건한것이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36 돛을 기념하는 국
기게양식에 참가하여 창공높이 솟아오르는 공화
국기발을 보노라니 불현듯 머리속에는 지난날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나의 추억, 그것은 흘러간 병사시절의 나날에
분계선초소에서 바라보곤하던 우리 기발에 대한
이야기이다. 내가 지켜선 전호가에서 이른아침이
면 제일먼저 눈에 띄우는것은 분계선마을의 공화
국기발이었다.

《초병은 수령님께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의
은은한 선률과 함께 새벽노을에 물든 그 기발을
바라볼 때면 초병들의 가슴은 수호자의 긍지와
자랑으로 마냥 높뛰곤했다.

젊은병사시절에 바라본 그 기발은 나에게 있어
어린 시절을 키워준 어머니의 눈빛이었고 아름
다운 조국의 전부였다.

그런데 공화국기발에 대한 의미를 더욱 깊이
가지게 된것은 한 장령동지와 함께 초소군무를
서던 날부터였다. 장령동지는 우리 중대의 오랜

군대원이다.

색날은 중대전투기록장의 갈피에 있는, 키보다
도 훨씬 큰 보총을 메고 서있는 애어린 전사의
사진과 비교해보면 퍼그나 그 모색이 변했지만
그는 36년이 흐른 오늘에도 중대를 못잊어 해마
다 찾아와 초소의 밤을 함께 지새우는것이였다.

군무초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장령은 나에게 물
었다.

《전사동문 고지에 휘날리는 저 기발을 볼 때
면 무슨 생각을 하오?》

《옛, 저는 바로 저 기발속에...》

나는 맑고 류창한 목소리로 전사의 소감을 남
김없이 털어놓았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조국이 비껴있다. ... 허,
마치 어느 시의 구절처럼 들리누만. 옳은 말이
요.》

머리 회숙한 장령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소중하고 아름답다... 내 오늘 전사동무에게
전쟁때 이야기를 하나 해줄가.》

그는 한참동안이나 말없이 펄럭이는 공화국기
발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1,211고지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던 어느날
이였다. 중대가 받은 임무는 까칠봉을 점령하고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는것이였다.

《동무들 당과 수령을 위하여 돌격앞으로!》

공화국기발을 날리며 비호처럼 달려가던 열두
번째의 기수가 원쑤의 흉탄에 쓰러졌다. 그는 쓰
러지면서도 전우들에게 《이 기발을 승리한 고지
우에...》 이 한마디 부탁을 남겼다. 그것은 쓰러
지면서 넘겨주고 넘겨받는 열두명 전우들의 모두
의 목소리였다....

《그날 공화국기발은 수백여발의 총탄과 파편
에 찢기면서도 마침내 열세번째 전사의 손에 의
해 기어이 고지우에 휘날리고야 말았소. 전사동
무, 과연 그들이 무엇때문에 숨이 지는 순간에도
공화국기발만은 고지우에 날리기를 바랐겠소.
지금도 그들의 목소리가 귀전에 쟁쟁하오...》

습격전투를 앞둔 시각 공개당총회에서 첫째 기
수 김승만동무는 이렇게 말했었다. 《나의 할아버
지는 뼈빠지게 머슴을 살다가 발고랑에서 숨졌고,
아버지는 소처럼 연자명예를 쓴채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에게 땅을 주셨고 집을 주셨고 사람으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

둘째 기수 김현도전사는 꿈이 많은 민청원이였
다.

《전 건축가가 됩니다. 원썬놈들이 파괴한 저 폐허위에 공장과 아담한 살림집과 병원, 그리고 학교며 유원지들을 더 크고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건설하렵니다.》

셋째 기수 하동준부소대장 그는 폭격에 찢어진 나무가지를 싸매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마을은 참 살기 좋은곳이었소. 울창한 수림에선 온갖 새들이 우짖고 꽃들은 만발하구... 시내가 물소리를 닮아서 우리 마을 처녀들은 목청이 참 맑다오. 우리 딸애가 마을에 찾아오신 장군님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돌아온 그밤은 정말...》

넷째 기수, 다섯째 기수... 평범하고 소박한 그들은 모두 공화국의 기발아래서 누린 인간다운 참된 삶과 보람, 그 소중함과 아름다움의 진가를 심장으로 체득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공화국기발은 고마운 조국이였고 조국은 끝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품이었다.

그들의 가슴속에 이러한 조국이 간직되었기에

쏟아지는 불비속을 뚫고 기어이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고야 말았다....

하여 수백여발의 총탄 뚫린 그 공화국기발은 세계청년학생축전장에 펼쳐져 세계에 조선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시위한 위훈의 상징으로 되었으며 오늘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미제를 타승한 력사의 증견자로 남아있다.

장령동지의 이야기를 들은 때로부터 벌써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오늘도 람홍색공화국기발은 조국의 창공에 여전히 힘있게 나뭇기고있다. 공화국기발은 우리 새 세대들의 손에 손을 거쳐 앞으로 나아가고있다.

첫째 기수, 둘째 기수... 그들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리키시는 충성의 한길을 따라 역세계 나아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모두이다.

나도 그 대오속에 선 한 전사로서의 높은 명예와 신성한 의무를 깊이 간직하며 펄럭이는 공화국기발을 숭엄히 바라본다.

호각소리

-한쪽의 유화앞에서-

김 석

방울방울 눈물속에
호르륵 호르륵...
나어린 소녀
네가 부는 호각소리
충전 병사의 이 가슴
칼날처럼 허비누나

흘러간 원한의 그 세월
앓는 엄마 약값때문에
지주집 머슴으로 끌려간 너
잔뼈도 굳기전에 애어린 어깨우에
고난과 멸시의 멍에를 지었구나

온갖 꽃 곱게 핀 동산에서
별나비 쫓으며 뛰놀 나이건만
너 어이하여 지주집 딸기밭에 앉아
눈물속에 호각만 부느냐

탐스럽게 익은 빨간딸기건만
피눈물로 익은 열매
지주집 아들녀석 게걸스레
한입에 반쯤 먹고 던져도
맛조차 볼수 없는 소녀
어이하여 딸기밭에서

호각만 불어야 하느냐

아, 호각부는 나어린 소녀야
악착스럽게 그지없는 흉악한 지주놈
한알의 딸기라도 네가 먹을가봐
네 입에 호각을 물렸구나

잠시라도 호각소리 몇으면
딸기를 먹는다고 소리치는
여우같은 지주너편네의 양갈진 소리
지금도 내 귀에 들리누나

오늘에 너 태어났다면
사랑의 선물옷 곱게 입고
나비처럼 춤추며
학교에 갈 나이건만
호각을 입에 물고 우는 소녀
병사의 이 가슴속에
조국의 귀중함을 깨우쳐주누나

아, 세월은 멀리 흘러갔어도
오늘도 울려오는 원한의 호각소리
잊지 말라, 잊지 말라고
세월의 흐름우에 당부하는 소리여

나의 마치

김기호

내 오늘도
힘있게 틀어쥐고
잘 익은 쇠덩이를 녹신녹신
장단맞춰 다듬어가는 마치

이 마치가 정녕
우리 당중앙청사우에 나뭇기는
승엄한 기폭에도 어려있고
하늘가에 높이 솟은 주체사상탑
중심군상우에도 빛나는것인가

지난날엔 손에 피멍이 들고
쇠찍지가 일도록 두드려도
버려진것은 노예의 철쇄
차려진것은 가난과 설음뿐이어서
제가슴마저 쿵쿵 두드리던 마치

언제부터였던가
그것이 그대로
삶의 권리이고
창조의 기쁨이어서
그 울림도 노래같은 나의 마치여!

그래서
우리 수령님
백두산을 내리시는 길로
고향집보다 먼저
우리 로동계급을 찾으셨던가

그래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일터에 찾아오시여
투박한 나의 손
그리도 보배로이 잡아주셨던가

별처럼 온 강산을 덮는
자동차의 눈부신 불꽃

고전시

너의 조화속에서 태어나고
우아한 노래춤도
너의 힘찬 가락속에서 흘러나오는것

어려있어라 이 마치에
수령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만들어낸
락원의 그 정신
종파를 전기로에 처넣겠다던
강선의 그 신념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것이 있다더냐
우리 당의 가르침따라
이 세상 모든것을
주체형으로 다듬고 완성하는
계급의 의지 불멸의 무기

아,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며
시대앞에 내세워준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으로
누리에 빛나는 마치여!

아끼고 내세워주는
그 사랑의 깊이는 어디
그 믿음의 높이는 어디
불현듯 감사에 찌릿하니 젖는 이 마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사랑 그 은정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하랴
나는 로동자
계급의 마치를 더 높이 추켜들어
우리 당을 길이 받들리
우리 당을 목숨으로 지키리

림종의 한탄

심광세 (1577~1624)

사람이란 백년안에
한번은 죽는 법
살아생전엔 부귀가 좋다지만
사후엔 절개와 정의만 남는다네

죽어야 할 자리를 피해나와서
림종때 한탄한들 소용있으랴
그대여 천고의 역사를 살펴보라
그대처럼 잘못산자 적지 않으리

그렇게 살고파

김남걸

그렇게 살고파
서있는 내 위치
대오의 맨 마감이어도
비면
그자리 비면 아니 될
그런 위치가 되게

그렇게 살고파
살뜰한 손길 애무의 목소리
자주
나를 어루만지지 않아도
임무에 대한 충직성으로 삶을 꿰이며

연단에서 손을 흔드는 일 적어도
직장의 속보판에 자주 못나도
그래도 큰 기계를 조립하려면
내 깎은 자그마한 부족품 꼭 찾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찾게

만세만 부르며

당의 두리에 곁도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당만을 묵묵히 따르는 인생이 되게

그렇게 살고파
푸른 잎새 더 많이 펼치라고
가지마다 고운꽃 더 많이 피우라고
더 깊이 더 넓게 뻗어가는
뿌리처럼,

그렇게 살고파
한낮에 떠있는 별
사람들 눈에 쉬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을 중심으로 씩없이 돌고돌듯이
우리 수령님과 우리 당을
영원히 옹위하는 별이 되교파
낮에 떠있는 별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별
그 별처럼

◇ 독자들의 목소리 ◇

친근한 속삭임

어쩌면 그렇게 내가 하고싶던 말, 내 마음속 생각을 신통하게 시로 썼는지!

전 오늘 우리 교원들의 사랑송모임에서 발표된 서정시 《교원의 마음》과 《교원과 제자》(1985년 5호 김선)를 들으면서 흥분을 억제할수 없어 《이거다! 바로 이거구나!》하고 환성까지 지를번 하였습니다.

저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조선문학》잡지를 펼쳐들고 마치 제가 쓴 시이거나 한것처럼 아들과 며느리앞에서도 읊고 또 읊었습니다. 아들도 교원인 남편도 록음까지 해서 다시 또다시 들으며, 정말 이 시로 하여 온 집안이 아름다운 정서의 꽃향기에 함뻑 취해있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좋은 길동무를 만났습니까. 출근길에서도 읊어보고 퇴근길에서도 읊어보며 자기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결의도 다지게 하는 이 정다운 생활의 길동무를 말입니다.

교원의 말과 행동, 옷차림과 눈길뿐만아니라 머리에 흰서리를 얹고 몇십년만에 제자앞에 선 교원의 그 섬세한 생활세부형상들은 지금도 나의 교원생활 수십년을 추억하게 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발걸음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탕개도 조여주고 주저와 동요의 작은 싹도 머리 쳐들지 못하게 내 심장을 울려주는 참다운 시, 나의 길동무!

시처럼 살자! 나의 길동무가 친근하게 속삭이는 그 목소리에 내 한생의 발걸음을 맞추며...

새날혁명학원 교원 로력영웅 **강영숙**

시대의 지향과 동심이 넘치는 참신한 성격형상

중편소설 《너를 기다린다》에 대하여-

김해월

동해의 푸른 물을 헤치며 바다우를 날아달리는 수중날개선의 선체가 그대로 보이는듯.

희망의 상상봉에 힘차게 날아오르는 나어린 미래의 과학자의 얼굴이 그대로 안겨오는듯.

우리들을 기쁨과 행복속에 잠기게 하는 중편소설 《너를 기다린다》(박형)는 아이들과 어른들속에서 인기가 있는 작품으로 널리 읽히고있다.

중편소설 《너를 기다린다》는 우리 새 세대들에게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주체의 세계관이 확고히 선 높은 재능을 소유한 유능한 인재로 자라나도록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중편소설 《너를 기다린다》는 그 제명부터가 우리 조국이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학생들은 과연 어떤 아이들이며 우리 새 세대들은 어떻게 자라나고 부모들은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조국이 기다리는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수 있는가 하는 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해답을 주려는 작가의 진지한 사색과 탐구가 깃들어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할 과업이 전면적으로 제기되고있는 오늘 과학을 발전시키는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소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과학으로 담보할것을 바라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 학생들이 조국을 위해 큰일을 할수 있는 미래의 유능한 과학자로 자라나야 한다는 사상을 예술적 형상으로 뜻깊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중학교 2학년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기본소재로 하고있다.

이 시기는 그 어느 시절보다 더 새것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호기심이 많고 탐구심이 강하며 뭉게 뭉게 피어오르는 흰구름마냥 부풀어오르는 희망과 포부로 가슴 불태우는 다정다감한 때이다. 마치 어미둥지에서 다 자란 새가 자유롭게 날아 가려고 나는 연습을 하는 때는 방불케 한다.

소설에서는 이 시기 아이들의 생활과 심리를 과학자처럼 2시간 자면서 공부한다고한것이 그만 열아홉시간 자서 동생에게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학자들이 사색할 때 담배를 피우는 본을 따서 흉내를 내다가 속이 메스메스하고 머리가 펄 돌

아서 혼썰나는 이야기등으로 생동하게 그리고있다.

소설은 이 시기 학생들의 재미난 생활속에서 중학교 2학년아이들의 지적 수준과 심리정서세계, 정신적 높이는 이전의 학생들보다 비할바없이 높다는것을 보여주면서도 원대한 포부와 아름다운 희망을 간직하고 과학을 탐구해가는 우리 학생들의 미더운 모습과 자식들에게 과학을 참되게 사랑하도록 교양하는 부모들의 이신작칙의 모범도 생동하게 그리고있다.

하여 우리 새 세대들이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참된 희망을 쫓아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부모들이 자식들을 원예사처럼 품들여 키울 때 우리 새 세대들은 현대과학의 최첨단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자랄 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이처럼 뛰어난 과학적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더 많이 키울데 대한 시대적 지향을 생활적으로 생동하고 감동깊게 보여주어 우리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중편소설 《너를 기다린다》의 높은 사상예술적 경지와 새로운 탐구가 있다.

소설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아이들의 성격을 처음부터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생활적으로 생기발랄한 산 개성으로 그린것이다.

소설에서 주인공 창무와 그의 동무들인 준섭이와 상교 등은 얼굴도 성미와 성격도 취미와 기호, 지적 수준도 모두 서로 다른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안겨온다.

아이들은 어른에게서는 찾아볼수 없는 자기고유의 특성인 동심을 가지고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생기발랄하고 낙천적이며 모험심이 크고 장난을 즐기며 환상이 풍부하여 그 무엇인가 엉뚱한 일을 잘 생각해낸다. 따라서 아이들의 성격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소설에서는 이때까지 적지 않은 경우 모범학생과 락후한 학생을 따로 정해놓고 긍정과 결함을 갈라서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성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주어진 성격에 맞는 동심적인 생활을 찾아 그리였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성격창조에서 이전과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특히 긍정적 주인공인 창무의 성격창조

에서 잘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창무의 성격을 그 어떤 모범의 본보기처럼 어른스럽게 그리지 않고 동심이 느껴지게 생활적으로, 어린 학생답게 웃음이 나게 그리고 있는것으로 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11 년제의무교육의 해빛아래 자라나는 우리의 새 세대들이 조국을 위해 한몫 단단히 하려는 결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피라는 노력과 탐구를 기울이는 마음은 불같이 뜨거우며 순결하고 진실한것이다.

소설은 창무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는 원대한 포부와 높은 과학적 탐구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그의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개성적으로 잘 형상하고있다.

창무는 학교에서 배운것을 그대로 만드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배를 그린 그림책을 보고 순식간에 수중날개선의 모형을 생각해내는 기발한 재능을 가지고있는 아이이다. 그는 머리가 좋을뿐 아니라 일단 생각한것은 무조건 만들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정열을 기울이는 좋은 점도 가지고 있다. 이런 좋은 성품이 동심과 결합되어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데 여기에 종전의 도식적인 작품과 다른 한 측면이 있다.

수중날개선을 만들 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자기가 미워서 전동기를 다 만들때까지 나가지 않을것을 결심하고 헛간문을 밖으로 걸었다가 무더위에 혼썰나는 창무, 낚시질도 하고 텔레비존을 구경하고는 결의조항을 어기고 시간을 허튼데 랑비한것을 가슴아프게 후회하는 창무, 전동기회전수를 계산하느라고 공공거리는 창무 등 그의 진지한 노력과 탐구는 우리들의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그의 희망과 포부는 또 얼마나 큰가, 태양열로 대륙붕까지 파고드는 날아다니는 수중날개선을 만들려고 하고 24 개의 대학을 다니려는 창무의 계획은 정말 엉뚱할 정도로 크다.

소설에서 수중날개선을 만드는 창무의 생활을 통하여 꾸준한 노력과 탐구심, 진실한 성격을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창무의 성격에서 특징적인 풍부한 감수성과 깨끗한 마음씨도 동심에 맞게 잘 형상하고있다.

창무는 아버지가 밤새워 일하는것을 보고 감동되어 대수를 6 점 맞고 동네에서 부산만 피운 자기 잘못을 아버지에게 진정으로 빌면서 꼭 수중날개선을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소설은 옳은것에 대하여 민감하고 열렬하게 긍정하는 창무의 성격과 함께 대바르고 깨끗한 그의 마음씨도 잘 보여주고있다.

창무는 반모임에서 숨씨전람회에 수중날개선을 내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얼마든지 1 등할수 있는 발동선을 내라고 비판했을 때에도 절대로 자기의 결심을 굽히지 않는다. 상교가 고달픈 과학연구를 하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희망을 바꾸라고

할 때에 도 분하여 싸움으로 맞선다. 그뿐이 아니다. 배시험을 몰래하다가 집에 불을 놓고 정전까지 시키고 자동차다이야공기를 빼서 웃어른들의 욕을 먹을 때에도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

소설에 그려진 창무의 모습, 이는 그대로 통성 부강할 조국의 전망이고 밝은 미래인것이다.

창무의 성격형상에서 종전의 도식적인 작품들과 다른 측면은 또한 주인공의 성격을 긍정으로만 일관시키지 않고 아이들로서 가지게 되는 연령상 제한성과 관련된 부족점을 가지고있는 산개성으로 잘 그린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창무는 대수를 식은죽먹기로 여기고 수업시간에는 집에서 만들 도면과 장치를 생각하다가 그만 6 점을 맞는다. 어머니 몰래 탁상시계와 선풍기를 마음대로 해체하여 배를 만드는데 쓰다가 꾸중도 듣는다. 그뿐이 아니다. 자동차다이야공기를 빼서 공기방석에 넣다가 급한 수송에 지장도 주며 건조장을 만드느라고 박막을 망탕 썼다가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준섭이와 상교가 거슬리는 말을 한다고 해서 대판 싸움까지 한다.

이처럼 창무의 성격을 우점과 함께 연령상 제한성으로 하여 발로되는 결함도 가지고있는 현실적인 아이로 그리면서 우리 시대 아이답게 미래에 대한 꿈을 꽃피우기 위한 불타는 정열을 지닌 탐구심이 많은 노력가로,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긍정적 주인공으로 사랑스럽게 그리고있다.

하여 창무는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는 우리 시대 산 전형으로 빛나고 있다.

다음으로 소설은 부정인물인 상교와 준섭이의 성격창조에서도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있다.

소설은 상교와 준섭이의 성격을 부정인물로 그리고있지만 성인소설에서의 부정인물과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있다. 세계관의 골격이 서기전의 아이들의 성격에 맞게 결함과 부족점을 타고난 형성된 자체의 사상적 요인으로 보고 그리고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적으로 미치는 낡은 사상의 영향이 아니면 연령적 제한성에서 오는것으로 동심적으로 그리고있다. 소설의 이런점은 종전의 도식적인 작품과 구별되는 새로운 시도이며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되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소설에서는 결함이 많은 상교의 성격에서 특징적인 아버지의 등을 밟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몇 만대면서 건달을 부리는 아이 형상을 생동하게 창조하고있다.

상교는 방학기간에 실컷 재미나게 놀것만을 생각하였기때문에 준섭이가 학습계획을 세우고 공부하자고 할 때 시끄럽게 여기며 어디서 주어들은 외국유적을 말하면서 많이 아는데한다.

그는 창무와 준섭이에게 감화되어 방학기간에 자기도 외국어를 몽땅 떼려고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반시간도 가지 못한다. 록음기스위치나 거

우 련결하는 주제에 록음기에 정통한것처럼 우쭐령거리며 배모는 솜씨를 자랑하러다가 물에 떠내려가서 동네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소설에서는 건달을 부리고 우쭐령거리기 좋아하는 상교의 성격뿐아니라 공명심에 가득차있는 그의 결함도 생동하게 그리고있다.

상교가 창무를 도와나선것은 수중날개선을 만들면 텔레비존에도 나오고 누이에게서 립체록음기도 빼앗을수 있다는것을 타산하였기때문이다. 그런데 창무가 자주 실패하고 동네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자 겁이 나서 그에게 배 만드는 장난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것처럼 추어주던 과학자로서의 희망까지 버리라고 한다.

그는 공부하는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유명한 외교관이 되어 국제회의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기가 좋아하는 얼음보숭이와 카스테라도 먹으며 세계명승지를 돌아보고 상어까지 타보는 등 환상에 잠겨 좋아한다. 그의 이런 모습은 독자들의 웃음을 절로 자아내게 한다. 상교는 공명심과 욕심이 많을뿐아니라 거짓말도 곧잘한다.

창무가 배 시운전을 하다가 마을을 정전시키었을 때도 자기가 고모에게 졸라서 전기줄을 구해다 주고서도 그 일을 전혀 모르는것처럼 시치미를 댔다. 창무와 같이 다이아공기를 뺏을 때에도 욕먹을 가봐 도망치고 발뺌을 한다.

소설은 상교의 결함만 헤치지 않고 사립성도 있고 락천적인 그의 우점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있다.

상교는 결함을 많이 가지고있지만 창무의 진지한 과학탐구의 노력과 열정에 탄복도 하고 부러워도 하며 준성이의 빈틈없는 학습계획과 조직생활에 충격도 받는다.

이는 상교가 결함이 많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고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전제로 된다.

소설은 준성이의 성격창조에서도 개성적 특성을 잘 살리고있다.

준성이는 창무와는 달리 반장으로서 옷차림도 단정하고 레절도 밝으며 동무를 잘 도와주고 인정도 깊다. 소년단조직생활에서도 모범이다. 얼핏 생각하면 모범학생처럼 보인다. 그러나 준성이는 기본혁명과업인 학습을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으로 습득하지 못하고 최우등을 위한 학습을 하고있다. 조국을 위해 큰일을 하겠다는 희망도 포부도 없다.

소설은 이처럼 여러가지 탐구적인 시도로 아동주인공들의 성격을 동심의 견지에서 깊이 파고든 결과 인위적이고 도해적인 감이 나지 않고 다 살아움직이는것 같이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안겨온다.

소설은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을 그리는 경우에도 세계관의 골격이 서기전 혹은 서가고있는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있다. 말하자면 창무, 준성이, 상교의 긍정과 부정중에 어느것이 더 강한가에 차이가 있게 긍정도 있고 부정적 측면

도 있는 아이들의 성격을 동심에 맞게 잘 그리고있다.

이것은 지난날 공부정으로 아이들의 성격을 갈라놓고 도식적으로 생활을 재단하여 들어맞추던 작품들에 비하면 얼마나 재미있고 진실한지 모른다. 특히 주목을 끄는것은 긍정인물이 가지고있는 부정을 형상하는 경우에 그것이 어떤 부정인가를 잘 그리어 긍정인물들의 성격을 살아나게 그리고 있는것이다.

창무가 동네에서 부산한 아이로 몰리우지만 그것은 수중날개선을 만들다가 범하는 결함이며 조국을 위해 큰 일을 하려는 결심을 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에 과학지식이 받아서 범하는 잘못이다.

그러나 준성이와 상교의 결함은 창무와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준성이는 옷차림도 조직생활도 다 모범이지만 실지 써먹을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학생으로 그려지고있다. 이런 학생이 조국을 위해 무슨 큰 일을 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성을 던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창무의 결함과는다르다. 소설은 긍정적 성격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조국이 바라고 기다리는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에 그 기준을 두고 지향적인 견지에서 우점과 결함을 함께 그리면서 미래의 역군으로 자랄 긍정적 성격이 아이들시기부터 하나하나 형성되어간다는것을 그런 여기에 소설이 달성한 성과가 있다.

작가는 아이들의 성격을 깊이 파고들어 그들이 가지고있는 부정적 결함을 고치는 과정도 서두르지 않고 동심에 맞게 잘 처리하고있다.

소설은 준성, 상교가 결함을 쉽게 고치는것으로 그리지 않고 창무의 긍정적 모범과 박사선생, 직사포아바이를 비롯한 웃어른들의 충고를 받으며 자기 스스로 잘못을 깊이 느끼는것으로 그리고있다.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있는 부족점을 깊이 뉘우치는 과정은 단순한 자책과정이 아니라 지적, 도덕적 성장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과 결심이 싹트고 자라나는 과정이다.

소설은 아이들이 가지고있는 성격장성과정을 지적 발전의 특성에 맞게 준성이와 상교가 자기 결함을 뉘우치는 과정을 진지하게 파고들어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의 성격창조에서 전형화의 원칙을 훌륭히 구현한 모범으로 된다.

소설이 거둔 성과는 다음으로 성격을 생활론리에 맞게 진실하게 그린것이다.

속담에 그 아버지애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다. 부모들의 교양은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을 세워가고있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정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 못지 않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부모들은 말 한마디, 하나의 행동을 해도 아들딸들에게 교양이 되고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소설은 부모들이 자식교양에서 노는 역할의 중요성을 세 아이의 호상대비속에서 잘 그리고 있다.

창무 아버지는 아이들을 창조적 능력을 가진 훌륭한 학생으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면서 자신의 긍정적 모범으로 자식을 교양하는 부모로 형상되고 있다.

창무가 발동선을 만든것을 가지고 으쓱해할 때도 과학자란 아직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것을 연구하고 창조하는 사람인데 상점장난감매대에서 얼마든지 사올수 있는 얼치기배를 만들어 놓고 부끄러운걸 모른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과학자가 되려면 속이 비고 겉모양만 미끈한것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이런 사람은 옆에서 달콤한 말로 꼬이면 쉽사리 과학을 버리고 편안히 살자고 도망친다고 이야기를 해준다.

이 말은 창무에게 과학자는 어떤 량심과 신념을 가져야 하는가를 가슴속깊이 새겨주고 있다.

창무 아버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가면서 아들에게 세상에는 어려운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지만 우리는 쉬운 길은 남에게 주고 어려운 길을 걷자고,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믿은 일은 끝까지 물려서지 말고 해내야 한다고 말해준다. 이 말은 창무에게 거듭되는 실패에도 주저않지 않고 수중날개선을 만들게 하는 결정적 계기로 된다. 창무 아버지는 병원에서 아들에게 설계도면을 그려서 보내준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기울이는 이 열성과 노력, 아들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 감화력은 자식에게 불타는 열정과 힘을 안겨주어 수중날개선을 만들게 하였을뿐아니라 미래의 과학자로 자라나려는 어린 그의 결심을 신념으로 굳게 하여주는 밑거름으로 되었다. 진정 창무 아버지의 아들을 위한 노력은 그대로 자식을 훌륭한 과학자로 자라나게 하는 추동력이요 토양이었다.

그러나 준성이와 상교의 부모들은 창무 아버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준성이 어머니는 학생교양에 보통 열성이 아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극진할 정도로 모든것을 다 하지만 그 모든것은 아들을 조국을 위해 한몫할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가진 아이로 키우는데는 관심이 돌아가지 않고 덮어놓고 압전한 아이로, 말썽이 없는 아이로만 키우는데 치중한 부모로 형상되고 있다. 준성이가 솜씨전람회에 낼 모형활공기를 만들 때도 아들에게 필요한 책을 보면서 《그저 책에 써여있는대로 만들면 되느니라.》고 한다. 조금만 장난해도 알아도 보지 않고 덮어놓고 나쁜짓으로 여긴다. 때문에 창무에게 험한 욕을 막 퍼붓고도 모자라서 준성에게 창무한테 업혀 돌아가지 말고 눈알이 쑥 나오게 으름장을 놓던지 반모임에서 혼뜨감을 내라고 하며 정 못하겠으면 자기가 하겠다고까지 한다.

부모의 이 영향은 아들을 창발성이 부족하고 교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게 하였

다.

소설에 상교의 부모들은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교는 아버지가 자기를 발전시킬것이라고 믿으면서 공부도 하지 않고 공명심에 들떠서 멍이나 부리며 우쭐거린다.

이처럼 부모들의 역할과 자식에 대한 교양은 각이한 작용을 하면서 아이들의 성격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있다. 이는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키워야 하는가,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에 예술적 해답을 주고있다. 하여 소설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중편소설 《너를 기다린다》의 성격창조에서 거둔 성과는 아이들의 연령심리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활을 탐구하고 구성을 재미나게 조직하여 안반침한것과도 관계된다.

작품은 수중날개선을 만드는 일관한 끝은 줄거리를 따라가지만 재미있게 읽히운다. 그 요인은 동심적인 다양한 생활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는데 있다.

수소풍선배의 진수식을 선포할 때 동무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모여오게 해서는 21 세기배에 대하여 연설도 하고 창무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주는 장면, 낚시터에 가서 학자들처럼 사색한다는 것이 놀음에 팔려 시간을 헛되게 보낸 일, 한꺼번에 두가지일을 하려고 글을 보며 밥을 먹다가 숟가락이 불에 부딪치는 바람에 국물을 쏟쳐서 동생의 웃음을 자아내고 어머니의 꾸중을 듣는 일, 배시험을 하다가 온 마을을 정전시키고 집에 불을 놓는 일, 배만드는데 쓰려고 탁상시계와 선풍기를 분해해서 치차와 전동기를 떼내고 자동차다이야공기까지 뺏다가 혼살나는 일, 2 시간 자고 연구한다는것이 19 시간 자서 망신을 하는 일 등 아이들의 동심에 넘치는 다양한 사건과 생활이 연속 꼬리를 물고 한자리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공간과 부단한 변화발전속에서 펼쳐지고있다.

소설에 펼쳐지고있는 이 생활과 사건은 과연 수중날개선을 만들어 솜씨전람회에 내놓게 되겠는가. 박사선생에게 보낸 설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의문과 기대로 하여 더욱 독자들을 긴장시키며 작품을 재미있게 읽히게 하는 견인력으로 되고있다.

소설은 인간관계도 잘 조직하여 주인공의 성격에 다양한 시점에서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주인공 창무와 그의 친구들인 준성, 상교가 기본인간관계를 이루고 부차적인 관계로 창무의 부모들과 준성이 어머니, 직사포아바이, 순영선생, 박사선생, 기사장, 창일이 등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다 주인공 창무의 성격을 부각하여 보여주는데 복종되고있다.

소설은 종자탐구의 참신성과 성격창조의 독특성, 재미난 구성으로 하여 성과작으로서의 자기얼굴을 가지게 되었으며 독자들을 기쁘게 하여주고있다.

분노한 나의 시

차영도

나는 지금
흰종이우에
이 시를 쓰지 않는다
력사의 엄숙한 갈피속에
미제의 《죄록》을 새겨가는 나의 시!

오, 온갖 테로와 피비린 살륙으로
넙마같이 더러워진 몸뚱아리를
배암처럼 도사린 너 미제
속심검은 《사도》의 탈을 벗고
창끝같은 나의 붓을 받으라!

아직도
초목이 머리풀고 통곡하는
피의 광주 무등산의 그 원한이
서리발같이 서린
분노에 찬 나의 붓

이 땅에 전쟁의 폭음을 몰아왔던
50년 그 여름처럼
또다시 평화를 우롱하는
《팀 스피리트》의 그 검은 구름에
치를 떠는 나의 붓

어찌 치떨지 않으리
미제와 맞선 나의 붓, 나의 시!
이 테로와 살륙의 피한
이 무서운 악과 독진으로 빚어진
철면피한 미제!

거머진 내 붓에
무겁게 젖어오는건
이 나라의 원한의 피만이 아니다
지구의 모든 대륙과 대양을
테로의 운동장으로 삼아온 미제!

어디더냐
한밤중 미제의 발톱에 토설하는 피

바다를 물들이고 하늘에 뿌리치던
그 참혹한 땅덩이는

어디더냐
하루아침에
미제의 숨은칼에 맞아
초불같이 숨져버린
그 이름모를 작은 섬은...

분노한 내 붓끝에서
멀리 지중해의 한많은 여울목이
때아닌 아랍인들의 곡성을 터친다
아프리카의 광막한 사막에
무덤도 없이 흩어진 주검들이
살인귀 미제의 죽음을 절규한다

불길한 흉조 까마귀같이
미제의 낫짝 피곳 어린곳마다엔
원인모를 주검이 길가에 덩굴고
젖은 피 땅에 마를날 없나니

나의 붓, 나의 시는
이 땅에 숨배인 그 모든 원한의 피로
극악한 살인마의 《죄록》을
력사의 갈피에 쓴다!

오, 미제!
너는 분노한 나의 시의
유일한 《피고》!
너는 창검같이 추켜든 나의 붓의
피할길 없는 《사형수》!

나는 이 지구상에서
너의 마지막 사형언도를
이 《죄록》으로 대치한다
력사앞에서!
인류앞에서!

단편소설의 생명과 매력

-단편소설 《명령》을 읽고-

김현규

누가 이야기를 잘 꾸미고 그것을 재치있게 엮어 나가는가. 이것은 모든 작품들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단편소설창작에서 나서는 관건적인 문제로서 그의 생명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단편소설 《명령》(한웅빈《조선문학》)은 단편다운 소재를 현실속에서 정확히 찾아쥐고 계기와 정황을 잘 설정하였으며 시대의 본질을 깊이있게 밝혀냄으로써 단편소설의 참다운 체모를 갖추었다고 말할수 있다.

작품은 우리 당의 위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광복거리 건설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영웅적 위훈을 떨치고있는 건설자들과 인민군인들의 생활의 한 단면을 펼쳐보이면서 현시기 시대앞에 나서고있는 첨예한 문제의 하나인 일군들의 혁명 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주인공 《나》를 통하여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밝혀내고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작품의 제명에서 보는것처럼 명령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과 태도, 자세와 립장이다.

작가는 현실생활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옮겨 찾아쥐고 그것을 하나의 평범한 생활속에서 형상하여 심오한 사상을 제기하고있을뿐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시대정신을 힘있게 천명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이 보통 느끼지 못하였던, 그리고 념두에 두지 않았던 문제인 명령이라는것을 생활속에 끌어들었으며 그것으로써 극적 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서 사회적인 문제로 제시하면서 심각성을 부여하고있다.

《나》는 설계가로서 자기앞에 나선 설계과제를 제기된 날자에 수행하려고 애쓰나 이러저러한 문제가 제기되어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말하자면 집행하지 못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

《나》는 이것을 별치 않게 여기며 또한 설계실장은 이에 대하여 따끔하게 총화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름아닌 실장이 《나》에게 주는 임무를 명령처럼 여기지 않는것이다.

작가는 이 형상적 과제를 인민군전사의 형상을 통하여 재치있게 처리하였다. 즉 설계실장으로부터 《나》가 받은 임무는 인민군전사가 받은 명령과 본질적으로 다를바 없다는것을 《나》자신이 깊이 자각하고 느끼는 감정을 예술적으로 론증함으로써 혁명임무에 대한 참된 뜻을 그 어떤 호

소와 웨침도 없이 독자들에게 설득력있게 보여주고있다.

또한 작품에서는 인물들사이의 예리한 형상적 대조를 통하여 시대가 안고있는 문제를 깊이있게 밝혀내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였다. 그것은 특히 《나》와 인민군전사, 설계실장과의 형상적 대조를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으며 이것은 결국 작품의 성공을 담보하는 근본열쇠로 되고있다.

인민군전사는 가열장설계도면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나》는 퇴근후 저녁 7시에 동무들과 만나기로 약속되어있다. 그러나 인민군전사의 명령집행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즉 《출입금지! 명령집행중》이라는 표적으로 하여 《나》는 끝내 동무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나》는 《명령》과 《약속》이라는 두 단어의 깊은 뜻을 놓고 저울질해본다. 다시말하여 자기의 생각을 인민군전사의 말로 이렇게 굴절시켜본다.

《〈약속때문이라구요? 난 명령을 받았는데요. 어는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기에는 대비도 할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것이다. 하나는 어떤 리유와 조건타발도 없이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는 의무만을 지고있는 절대적인 개념이지만 다른 하나는 인간호상간의 룰리도덕상의 문제로서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는 순 도덕적인 룰리에 관한 개념이다. 이 저울질속에서 《나》는 자기가 하는 일이 결코 실무적인 설계도면 작성이 아니라 《명령》을 집행하는 일이라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작가는 이와 같이 《나》와 설계실장을 통하여 《명령》과 《약속》의 극적인 대조를 통하여 작품의 주제해명을 자연스럽게 생활적으로 처리하였다. 여기서 특히 《명령》과 《약속》의 대조적 설정은 참으로 작가적인 발견이 아닐수 없다. 이것으로 하여 독자들은 다시금 작가의 기교와 재치를 엿보게 된다.

또한 두 일군 즉 인민군전사의 말을 통하여 한두번 이름만 빠친 중대장과 작품에서 일정하게 형상의 뭉을 안고있으면서 주제해명에 적극 참가하고있는 설계실장을 통하여 무엇을 찾게 되는가. 항상 명령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중대장과 언제나 과업을 줄 때마다 《해보지

않겠소?》, 《할수 없겠소?》라고 말하는 설계실장은 참으로 대조적인 인물들이다.

이처럼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내적으로 작용하는 이 형상적 대조는 《나》와 인민군전사의 형상에 영향을 줄뿐아니라 그를 더 부각하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또한 주목되게 눈에 띄는것은 개성화된 인물들의 형상이다. 이 인물들의 매력있는 형상으로 하여 작품의 생명력은 더욱 힘있게 담보되고있다.

문학에 산 인간이 없으면 형상이 있을수 없으며 형상이 없으면 문학의 고유한 본성도 살려내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작품에 그려지는 인간은 현실에 보는 인간처럼 살아움직이며 숨쉬는 산 인간으로 되어야 한다.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가운데서 인민군전사는 매력있는 형상으로서 독자들에게 참으로 깊은 인상을 안겨준다.

이 작품에서 인민군전사는 사상적 핵의 중요한 몫을 짊어지고있는 인물로서 작품의 사상주제해명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비록 전사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인물로서 독자들에게 하는 말도 많지 않고 그나마 간단명료한 몇마디의 말뿐이다.

《나는 더 설명하기를 그만두고 딱 잘라서 말했다.

〈래일에 가져가라더라고 동무네 지휘관에게 전해주오.〉

그러자 전사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안됩니다!〉

〈?!〉

나는 어리둥절했다.

〈뭐가 안된다는거요?〉

〈전 도면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습시다. 그냥은 돌아갈수 없습니다.〉

나는 성을 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야말로 서로 《상통할수 없는 고집불통》의 전사가 두손을 바지 혼술에 딱 붙이고 차렷자세로 서있는 모습이 눈앞에 방불하게 안겨온다.

여기서 독자들은 어떤 리유와 조건이 없이 명령을 받은 전사는 자기의 혁명임무를 무조건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와 사명감을 깊이 자각한 인민군전사를 보게 되며 주체시대에 교양육성된 인간들, 인민군군인들의 불굴의 기상과 투지, 그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와 숨결을 느끼게 된다.

인민군전사의 생동한 형상은 다음의 단락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그편 정말 미안하게 됐소. 나때문에 2층을 그날로 끝내지 못했겠구만?〉

〈못끝내다니요?〉

전사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못하면 됩니까? 명령인데!〉

나는 다시한번 놀랐다.》

여기서 보는것처럼 작가는 인민군전사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가지고 그의 형상에 초점을 집중하여 산 인간의 숨결과 활력을 부어줌으로써 개성적이고 매력있는 산 인간을 창조하였다. 이리하여 독자들은 여기서 평면적이고 회화적일 인간초상이 아니라 살아움직이는 산 인간의 숨결과 체취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에 대한 그 어떤 호소와 구호, 웨침도 눈에 띄우지 않는다. 그러나 작품의 밑바탕에 강하게 흐르고있는 사상은 그 어떤 개념적인 설명과 론리도 비할바없이 강렬하게 우리들의 가슴에 안겨오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작가가 해결하려고 한 기본문제가 있고 작품을 성공으로 이끈 열쇠의 하나가 있다.

작가는 이처럼 명령이라는 하나의 자그마한 이야기를 통하여 시대정신을 반영하였고 인간들의 형상을 통하여 그것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이밖에도 작품이 성공하게 된 요인은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치차에 맞물리듯 잘 맞물린데 있으며 또한 불필요한 정황묘사와 내면심리세계의 추구 없이 형상이 집중되고 짜인데 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요인들로 하여 이 작품은 자기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독자들과 친숙하여졌을 뿐 아니라 생명력있는 작품으로 될수 있었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나》의 친구인 대대장을 앞에 앉혀놓고 교양하는것과 같은 억지감도 있고 전사가 설계도면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어머니에게 쓴 편지내용 등은 진실치 못한 감을 준다. 그리고 일부 언어표현이 부정확한것을 비롯한 사소한 결함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시대가 제기하고 있는 절박한 문제를 예술적으로 해명한 사상미학적 성과를 놓고볼 때, 특히 단편소설의 재치와 매력, 생동한 형상, 그의 생명력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이 작품에 찬사를 더 보내게 되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단편소설의 사상미학적 특성과 그 요구를 깊이 연구하고 현실속에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단편소설들을 더 많이 창작하며 그 질을 한계단 높이 끌어올려야 할것이다.

출항의 아침

허린정

따사로운 봄빛
물결우에 눈이 시게 쏟아지는 이 아침
나는 먼 바다 출항의 길 떠난다

손에 손에 꽃송이 들고
뜨겁게 바래주는 환송의 물결
부두가에 넘치는 북소리 나팔소리
붉은넥타이 날리며
꽃잎같은 손을 흔드는 아이들

봄별에 타는 해당화인양
빨강게 피는 수집음 머금고
살뜰한 눈빛으로 바래주는
가공반의 정든 처녀

아, 물을 떠나 아득한 수천리
떠나는 우릴 위해 조국은 펼쳐주는구나
눈물겹도록 고마운
축복의 꽃물결을
축하의 춤노래를

어머니 조국이어!
천이랑 만이랑
격량이 덮친다 해도
그대 바래주는 뜨거운 손길
그대 바라는 간절한 눈빛
우리의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가슴 적시는 향기 되려니

들썩우는 파도에 마음 흔들린다면
우리 몇몇이 얼굴 못쳐들리
어창 가득 물고기 채우지 않고선
그리운 포구로 돌아오지 못하리

아, 출항의 배고동소리 울리며
먼 바다로 떠나는 이 아침
헤치고 헤쳐갈 우리의 앞길에
조국은 사랑의 바다를 펼쳐주는구나
위훈없인 그 품에 안길수 없는
은혜로운 포구가 따라서누나